

학술세미나논문집

천림산 봉화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

일시 : 1999년 10월 1일 (금) 09:30-17:00

장소 : 성남문화원 대강당(4층)

주최 : 성남문화원

주관 :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후원 : 성남시

목 차

대 회 사	남선우(성남문화원 원장)
격 려 사	김병량(성 남 시 장)
축 사	임동준(성남시의회 의장)

기조발표

"한국봉화의 기원과 연구현황"	5
------------------	---

발표 : 남도영 전 동국대 부총장

발표논문

"조선시대 봉수제의 운영과 문제점"	23
---------------------	----

발표 : 이준희 서울시립대 대학원장

토론 : 박상일 청주대박물관 연구원

"천림산 봉수의 연혁과 위치비정"	57
--------------------	----

발표 : 조병로 경기대 교수

토론 : 이상태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세사실장

"경기 봉화유적 조사 및 사례연구"	99
---------------------	----

발표 : 이재 육군사관학교 교수

토론 : 김기섭 경기대 강사

"천림산 봉화터의 고고학적 실증"	149
--------------------	-----

발표 : 김주홍 토지박물관 학예사

토론 : 조유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천림산 봉수군 신분과 생활"	177
------------------	-----

발표 : 방상현 경희대 교수

토론 : 김영관 서울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일정

□ 1999년 10월 1일(금) □

등록 <09:30 ~ 10:00>

■ 제1부 개회식

사회 : 이원우 사무국장
대회사(10:00~10:05) 남선우(성남문화원장)
격려사(10:05~10:10) 김병령(성남시장)
축사(10:10~10:15) 염동준(성남시의회 의장)

■ 제2부 학술발표

◆ 기조발표 (10:15~10:45)

"한국봉화의 기원과 연구현황"
남도영 (전 동국대학교 부총장)

◆ 좌장 : 백남욱 (동서울대학 교수)

◇ 주제발표 1 (10:45~11:25)
"조선시대 봉수제의 문명과 문제점"
발표 : 이준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
토론 : 박상일 (첨주대학교박물관 연구원)

◇ 주제발표 2 (11:25~12:25)

"천림산 봉수의 연혁과 위치비장"
발표 : 조병로 (경기대학교 교수)
토론 : 이상태 (국시민친위원회 고종세사실장)

(12:25~13:30) 중식

◆ 좌장 : 전보삼 (신구대학 교수)

◇ 주제발표 3 (13:30~14:10)
"경기 봉화유적 조사 및 사례연구"
발표 : 이재 (육군사관학교 교수)
토론 : 김기섭 (경기대학교 강사)

◇ 주제발표 4 (14:10~14:50)

"천림산 봉화터의 고고학적 실증"
발표 : 김주홍 (토지박물관 학예사)
토론 : 조유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 주제발표 5 (14:50~15:30)

"천림산 봉수군 신분과 생활"
발표 : 방상현 (경희대학교 교수)
토론 : 김영관 (서울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 슬라이드 상영 및 설명 (15:30~16:00)

설명 : 최진연 (봉화전문 사진작가)

●식 (16:00~16:10)

■ 제3부 종합토론 (16:10~17:00)

◆ 좌장 : 장철수(한국청진문화연구원 교수)

종합토론 :

고희영(동일기원봉화추진위원회)
김기빈(토지박물관 지명연구위원)
이수영(성남시의회 시의원)
한동억(본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기 조 발 표

한국봉화의 기원과 연구현황

남도영(전 동국대학교 부총장)

한국봉화의 기원과 연구동향

남 도 영(전 동국대부총장)

I. 烽燧制의 유래와 실태

한국사상 烽燧는 중요 軍事通信(적침경보) 수단으로 변경의 긴급한 상황을 중앙 또는 변경의 기지에 알려, 軍民합동으로 대체케 한 것이다. 따라서 烽燧制는 國土防衛 및 中央集權的 統治體制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중시되어, 역대왕조의 통치자들은 그 관리운영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갔다.

烽燧의 기원은 중국 周代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漢·唐의 발달된 제도를 참작하며, 敵情과 山勢, 地勢, 天候, 密林 등의 실정에 맞게 독창적 체계를 갖추었다. 初期國家時代에 이미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三國時代에는 實戰에 크게 활용되었으며,倭寇에 대비 沿邊烽燧臺가 설치되었다.¹⁾ 일본에는 三國人에 의해 烽燧臺 축조 및 舉火傳報기술이 일본에 전해지고 (『日本書紀』天智 3년 <664>), 신라 聖德王 원년 (702), 즉 日本 文武朝 때에는 大寶律令(衛禁律)이 시행되어져 한국·중국과 흡사한 일본 烽燧制를 확립케 하였다.²⁾ 高麗時代는 초기부터 契丹·女眞의 침입을

1) 姜仁中, 「釜山地方의 烽燧臺 沿革 및 位置考」, 「朴元均先生 90주년 기념論叢」, 1970.

6 학술세미나

받아 그 방어책으로 長城축조, 驛制인 懸鈴傳送法계정 등과 함께 봉수체제를 확립한 것으로 보이며, 그 봉수망은 仁宗 2년 (1124)에 『高麗圖經』에서 확인되고 있다. 穀宗 3년(1149)에 烽燧式등이 제정되어 발달된 봉수체제를 확립하고, 후기에는 倭寇에 대처해 갔다.²⁾

조선시대는 北方의 女眞과 南方의 倭을 主敵으로 대비하여 전국 봉수망을 수정 증폐하여 크게 5대노선으로 나누고 이를 直烽(幹線)369개, 間烽(支線)274개로 나누어 조작하고(『萬機要覽』, 烽燧), 이 밖에 濟州道에는 直烽25개, 烟臺(間烽) 38개 총 63개로 (『濟州三邑烽燧烟臺及將卒摺錄』) 5炬路 (順天·海南~漢城)에 연결 중앙에 도달 되도록 하였다. 총 706개의 봉수대는 북방 두만강연안과 압록연안과 남방의 경상, 전라 양 해안 및 제주도 해안에 조밀하게 배치, 外敵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중 女眞 대비는 1, 3 炬路로 280개

女眞 및 中國 대비는 4 炬路로 106개

왜구대비는 2, 5 炬路 및 濟州道 炬路 320개이었다.

봉수는 山岳이 많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여 먼 거리 통신수단으로서 다른 어느 통신수단보다 신속하였다. (1) 六鎮(慶興, 慶源, 穩城, 鐘城, 會寧, 富寧) 어느 곳인지 분명치 않으나 이곳 初境에서 서울 峨嵯山까지 약 6시간 (『增補文獻備考』 兵考 烽燧). (2) 牛巖(慶興, 西水羅)에서 峨嵯山까지 약 12시간 (『英祖實錄』 114, 영조 46년 5월 신미)이면 도달되었다. 그 정확성 여부는 뒷날 실측으로 확인되길 기

2) 松田甲, 「李朝時代の烽燧」, 『朝鮮』 254, 1928.

3) 沈模, 『韓國烽燧制』, 『韓國馬政史』, pp.495~497.

대한다. 다만 참고로 중국 唐代의 烽燧制를 보면, 30리마다 봉수를 설치하고 1炬는 州·縣까지 전하고, 2炬 이상만 중앙에 전하되 (唐兵部式) 4) 통신속도는 1晝夜 2,000리라하여, 1리를 唐尺으로 450m로 계산할 때 24시간에 900km가 되어, 평균시속은 37.5km로 봉수간의 통신에 필요한 시간은 약 20분이면 충분하였다.

그런데 『大東地志』 程里考 撥站에 慶興 西水羅 (牛巖)에서 서울(漢城)까지를 2,300리로 명기하고 있어, 이를 1리 약 400m로 계산하면 위 (2) 牛巖~餓鷹山까지 12시간에 약 920km가 되어 평균시속은 약 76.7km의 속도였다. 그런데 始舉時間(초경에서 아침에 올리는 시간)~京烽時限(서울도착시간)은 좀처럼 맞추기 어려웠다. 이런 설정으로 변경에서 12시간내 (아침~초저녁)에 木覓山에 전달된 변보는 『경국대전』 봉수조에 보면 다음날 아침(12시간의 여유)에 승정원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결국 봉수에 의한 변보는 24시간만에 국왕에게 보고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사시는 즉시 보고 되었다.

<표 1> 沿邊·內地 烽燧 배치수

(『충보문헌비고』 봉수)

	第 1 路			第 2 路			第 3 路			第 4 路			第 5 路			濟 州 道			合 计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里
沿 邊 烽 燧 佈 署	31	123	3	47	30	30	39	72	72	30	25	75	35	38	40	281	140	422			
內 地 烽 燧 佈 署	30	28	58	42	30	105	40	30	60	21	21	12	12			124	132	256			
合 計																405	273	678			

4) 四庫全書總本初集, 『武經總要』, 前集 5.

조선 왕조의 烽燧體制는 700개 이상의 봉수대 (沿邊烽燧 422, 内地烽燧 256, 京烽燧)를 설치하고(표1 참조), 110,754명의 방대한 봉수군(沿邊·内地봉수군 36,838명, 沿邊·内地保人 73,676명, 京烽燧군·보인 120명, 母岳봉수군·보인 120명)을 배치하여 북방의 四郡 六鎮과 남방을 지키어 갔다.

조선 전기 京烽燧에는 봉수군30명 (5개소, 각각 봉수군 4명, 五員 2명)과 保人90명(봉수군1명에 보인 3명) <120명>이 배치되고, 沿邊烽燧는 봉수대마다 봉수군 60명 (5소에 각각 봉수군 10명, 伍長 2명)과 保人 120명(봉수군 1명에 保人2명) 합계 <180명>이 배치되어 422개소에 봉수군 25,320명, 보인 50,640명 합쳐 75,960명, 그리고 内地烽燧는 봉수대마다 봉수군 40명(매 소에 봉수군 6명, 伍長 2명)과 보인 80명 <120명>으로 256개소에 봉수군 10,240명, 보인 20,480명 합쳐 30,720명으로서, 이밖에 濟州道 63개소에 봉수군 1,278명(別將378, 烽軍 444명, 軍456명)과 보인 2,556명, 서울 母岳 120명을 포함 전체 총합 110,754명이 있다.(표2 참조).

<표2> 朝鮮時代 烽燧軍·保人 數

	1개 봉수대 인원			烽燧臺 數	1개봉수대인원×봉수대수		총 계 数
	烽燧軍	保人	개		烽 燧 軍	保 人	
京烽燧 (남산봉수)	30	90	120	1	30	90	120
서울母岳 烽 燧	30	90	120	1	30	90	120
沿邊烽燧	60	120	180	422	25,320	50,640	75,960
内地烽燧	40	80	120	256	10,240	20,480	30,720
濟州道				63	1,278	2,556	3,954
총					36,898	73,856	110,754

후기에는 英祖 때 『續大典』 兵典 紿保조에서는 매 봉수대마다 봉수군 25명과 보인 75명(봉수군 1명에 보인 3명)을 배치하고 요소에는 別將-百摠-監官-條軍(武士)체제로 운용하였다.⁵⁾

그러나 峰燧制는 기대했던 바 기능을 다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첫째 峰燧制는 가시적 통신수단으로 炬(炬)수로서 번보를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악천후, 먼 봉수대간(멀게는 70리)의 거리, 울창한 숲 등으로 보이지 않아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駕告(雲暗符信制), 信砲, 角聲, 旗懸, 燈의 방책을 강구하였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둘째 봉수대가 북방은 협준한 국경선, 남방은 긴 해안선 및 섬과 내륙 넓게 분포되어 보급 시설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봉수군의 나쁜 치우와 태만 등으로 不舉火, 謾舉, 中途廢絕되어 한성에 도달되지 못하였다. 실제로 조선 전기 205년간 (태조~선조30년)에 일어난 34건의 적변 가운데 불과 4건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북방의 羅嗣宗變(성종22), 造山堡賊變(명종1), 尼湯介亂(선조16)과 남방의 三浦倭亂(중종5년), 蛇聚鎮倭變(중종39), 乙卯倭變(명종10), 王辰倭亂(선조25)등과 같은 당대의 큰 적변사에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그 운영취지를 무색케 하였던 것이다.

한편 비록 봉수로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적정을 오직 罷烟夜火에 의한 5炬의 방법으로만 전하여 그

5) 『咸鏡道各邑鎭烽臺及將卒挑錄成冊』, 『湖南烽臺將卒挑錄』, 『平安道內江邊各邑鎭烽臺將卒挑錄成冊』, 『濟州三邑烽臺將卒挑錄』。

내용 즉 적의 병력 수, 장비, 이동상황 그리고 아군의 피해 사항 등을 알 수 없고 이에 명령을 하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봉수전달 후에 보완책으로 중요사항은 急走(步遞), 駕馬(驛馬, 馬遞)을 이용하여 文書로 전달해야만 했다. 이에 국초부터 無益論내지는 廢止論이 여러번 제기되어 임진왜란을 계기로 선조30년(1597)에 摆撥制라는 긴급통신기관을 설치하여 緊急文書를 전달케 하였다. 그러나 곧 烽燧制 復舊論이 일어나 조선후기는 烽燧制가 과반제와 함께 근간통신망으로서 운영되었는데, 仁祖~肅宗년간에 개선책이 강구되고 고종 32년(1895)에 이르러 近代通信制(傳信·電話)만 설치됨으로서 폐지되었다.

그 후 봉수대는 3.1독립봉기 신호로서 이용되고, 오늘 그 자리는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소의 위치로 이용되고 있다.

한국 烽燧制는 어느 나라보다 발달된 체계를 갖추고 비록 民間通信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변경의 급보를 官民이 함께 공유하며 國土保全과 民族文化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큰 구실을 하였으며, 특히 불(烽)과 연기(燧)의 5단위 전보 방식은 근대 통신(디지털 광전송법)의 뿌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역사적 의의가 크다.

II. 研究動向

『三國史記』, 『高麗史』 志에는 烽燧條가 없고 『增補文獻備考』에 내용이 비교적 정리되고 있다. 李暉光은 韓國 烽燧制가 唐制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李玄錫은 烽山建寺說을 주장하였으며, 樹馨遠

은 『磻溪隨錄』에서 중국 烟臺시설과 胡兵이 이를
돌파하지 못함을 들고, 兩界의 烟臺실태를 분석하였고 李瀨도 峰燧制를 고증하였다. 그리고 많은 古地
誌·古地圖중에 金正浩는 「大東地誌」 邑別 峰燧
를 百里尺으로 된 「青丘圖」, 「大東輿地圖」에 정
리하여 봉수를 地形, 距離, 路線별로 과학하는데 공
헌하였다.

일제하에 봉수연구는 日人에 의해 독점되어, 그들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朝鮮總督府 通信
局은 『朝鮮烽燧考』을 내어 한국 봉수의 내력을 간
략하게 언급하고, 중국 峰燧制는 『增定捷錄』을 들
어 漢代의 匈奴 대비로 설치하였다 하고, 일본은
『日本書紀』을 근거로 664년에 峰燧를 설치하고
701년 文武朝때 大寶令으로 제도화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高宗 3년(1895)에 閣議결의로 봉수대
및 봉수군을 폐지하였던 請議書를 실어 식민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이어 1920년 한국토지 침탈의 주역 연구를 담당
하였던 和田一郎(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查局 殘務整
理)은 『朝鮮土地制度及地稅調查制度 調查報告書』의
4編 2章 44節 「烽臺屯及烟臺屯」에서 峰燧制 대한
약간의 설명을 하고, 이를 몰수하는 재료로 삼게 하
였다. 1928년 일인 松田 甲은 「李朝時代의 峰燧」에
서 중국 봉수는 「史記」, 「漢書」, 「唐書」 등을 인용
하여 周代에 비롯되어 漢·唐 때 발전하였다 하고,
朝鮮은 중국의 兵書에서 모방하여 自國의 발명이라
고 볼 수 있는 것은 없고, 日本은 664년 天智天皇 3
년(新羅 武烈王⁶¹, 高句麗 寶藏王, 百濟 豊王時代)에
朝鮮歸化인이 峰燧臺을 설치하고 文武天皇(新羅 聖

⁶¹ 664년은 新羅 文武王 4년으로 잘못된 것이다.

德王 時代) 때 大寶令에 의해 朝鮮, 中國과 같은 烽燧制가 확립되었다 하였다. 그러나 『增補文獻備考』로 봉수망을 소개하면서, 中國 경계용이 433개, 일본 경계용이 110개로 중국이 7대 3으로 많은데 朝鮮은 倭寇侵害을 자주 기록하면서, 중국 침해는 비교적 적게 기술한 것은 明·清을 끼렸기 때문이라고 왜곡하여 植民史觀의 속뜻을 분명히 하였다.

해방 후 車相瓚은 「烽火」(『朝鮮外交史』, 1947)을 발표하였으나 극히 개괄적으로 상식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1964년에 金鎬逸의 「烽燧考」(『文耕』 17, 中央大學生會)는 새로운史料를 수집하고 기존의 연구를 수용하여 烽燧制를 정리, 보탬을 주었다.

그러나 1969년에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研究室에서 許善道가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육군본부) 중 「烽燧」를 韓國, 中國의 諸史籍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烽燧制 연구의 기반을 닦았다. 烽火의 始源과 봉수제 성립(고려시대), 특히 조선전기 봉수제는 왜구의 再燃과 北境 개척을 적극화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었다고 강조하고 봉수 廬說化의 실상과 요인을 분석·비판하였다. 조직, 傳報, 시설, 멸착, 요원, 실태, 봉수망, 노선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어 비로소 日帝때의 연구를 탈피하였다. 氏는 1986년에 이를 그동안의 연구성과로서 보완하여 「近世朝鮮前期의 烽燧」(『韓國學論叢』 8, 國民大學 韓國學研究所)을 발표하여 기여했다. 그러나 연구가 조선전기에 국한되고, 당시의 형편상 문헌자료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어 내용이 나일식으로 충복된 점이 있다.

1970년 姜仁中은 「釜山地方의 烽燧臺 및 位置考」(『朴元均先生回甲紀念 釜山史論叢』)을 발표하여, 종래 중앙 중심의 연구에서 釜山 일대의 雞鳴

山, 荒嶺山, 干飛島, 鷄峰, 吾海項, 石城, 鷗峰등의 峰燧을 직접 답사하고, 그 연혁과 위치 및 현존유적지를 「實錄」, 「慶尚道地理志」, 「慶尚道續撰地理志」, 「東萊縣邑誌」, 「橫南左沿初起連梯圖」 등으로 고증하여 정리하였다. 신라 진평왕(579~631)때 融天이 지은 慧星歌을 분석하여, 倭寇에 대비 沿邊烽火을 설치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봉수지방사 연구에 길을 열었다.

1977년 南都冰은 당시까지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서울 六百年史」(서울特別市史 編纂委員)에서 「烽燧制度」를 발표하고 다시 1978년에 「朝鮮時代의 烽燧制」(『東國大師大論叢』1)를 집필한 바 있으며 1981년에 「朝鮮時代軍事通信組織의 發達」(『韓國史論』9, 國史編纂委員會篇)을 발표하며 <許善道 平> 종래 우리나라 烽燧制를 時期上의 구별 없이 泛然히 通論하는 병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조선전기의 그것과 후기 그것을 나누어 논술하되 특히 後者에서 새로이 등장한 罷撥制와 병존하였던 烽燧制의 실상을 특히 仁祖~肅宗 때에 復舊정책에 역점을 두어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이어 1985년에 「朝鮮時代 烽燧制」(『韓國近代社會經濟史研究』, 劉元東博士 回甲記念論叢)로서 보완하여, 1996년에는 그동안 소외된 제주도를 포함하여 「韓國烽燧制」(『韓國馬政史』, 韓國馬事會)을 발표, 일단 전·후기에 걸친 烽燧制를 체계화하였다.

1980년 方相鉉은 「朝鮮前期의 烽燧制 - 國防上에 미친 影響을 중심으로」(『史學志』14, 檀國大史學會)에서 烽燧軍의 身分, 烽燧와 國防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봉수속도를 1시간당 110Km로 정리하는 등進一步시켰다. 1982년 陳庸玉은 「韓國 烽燧制度에

대한 現代通信工學的 分析」(한국통신학회, 1982 및 추계학술발표 논문집, 1983)을 발표하고 이어 「봉화에서 텔레파시통신까지」(지성사, 1993)를 저술해서 한국의 烽燧通信과 現代通信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 정리, 봉수통신을 현대의 전기통신의 뿌리라고 설명하고 烽燧通信은 그 특성상 광파 통신, 디지털 통신, 마이크로파 통신, 국방통신, 방송통신, 常用통신의 기능을 한 소중한 민족유산이라고 강조, 한 차원 앞선 연구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아쉬움은 先學의 연구, 典據를 제시하였으면 싶다.

6년을 지나 李元根은 「韓國烽燧制度考, 그 内容과 傳報實踐演習」(『초우 黃壽永博士 古稀紀念論叢』, 1988)에서 기존의 연구를 요약하고 새로운 관계 資料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어 1989년에 崔根茂, 盧憲植과 더불어 「韓國의 城郭과 烽燧」(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을 간행하며, 「烽燧」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봉수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최초로 전국(남한)에 현존하는 봉수대 286개 [서울 4, 인천 3, 경기 26, 강원 23, 충북 18, 충남 9, 전북 26, 전남 27, 부산 6, 대구 3, 경북 75, 경남 40, 제주 26] 소를 실지 답사하여 소재지, 설치시대, 축법, 규모, 시설을 조사·정리하고 『大東輿地圖』와 비교 위치도, 측면도를 만들고 실태를 사진으로 소개하여 공헌하였다.

1994년 지방 烽燧制 연구로서 주목된 것은 李存熙, 金榮官의 「峨嵯山 烽燧位置考」(『향토 서울』 59, 1994)가 있으며 이어 趙炳魯의 「韓國의 烽燧制와 城南 금토동 天臨山 烽燧」(유인물), 「금토동 천령사 봉화터를 답사하고 나서」(『山城文化』 6), 오늘 발표한 「天臨山 烽燧의 沿革과 位置比定」과 1985년에 「朝鮮時代 驛站制度發達에 관한 研究」

(『韓國文化研究』2), 1992년 「朝鮮前期 驛路의 整備와 驛馬確保」(『素軒 南都永博士 古稀紀念 歷史學論叢』民族文化社)가 있다.

1993년 이후 清州大博物館, 忠北大, 明知大, 濟州大에 의한 봉수지 발굴 및 지표조사보고서(뒤 연구 문헌 ⑦, ⑪, ⑫, ⑯ 참조)와 특히 陸軍博物館에서 1994~1995년에 발간한 경기 강원 일대의 『봉수지 지표조사보고』는 봉수대 실태 정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1997년 國防軍史研究所에서 「韓國의 峰燧制度」을 발간했으나 내용 중복으로 끝 수정하고 『조선 왕조실록』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이용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연구는 다음과 같다.

- 1) 崔永禧, 「侵略倭軍의 발견과 峰燧-壬辰倭亂 戰鬪에 대하여」, 『한국사학논총(수촌 박영식 교수 회갑논총 간행위원회)』, 1992.
- 2) 나동욱, 「강서구 천가동 연대산봉수대 지표 조사」, 『박물관연구논문집』 3, 1995.
- 3) 朱雄英, 「朝鮮前期 漢陽定都와 慶尙道地域의 峰燧制運營」, 『향토사연구』 7, 한국향토사연구전 국협의회, 1995.
- 4) 朴相俊, 「順天에서 서울까지의 峰燧制運營-第5炬峰燧路線을 중심으로」, 『향토사연구』 7,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5.
- 5) -----, 「朝鮮時代의 峰燧運營體系와 遺蹟現況 第5炬 峰燧路線을 중심으로」, 『청대사림』 6, 1994.
- 6) 崔龍奎, 朴相俊, 「청주갓대산봉수터 발굴조사 약 보고서」, 『박물관보』 9, 청주대박물관, 1996.

16 학술세미나

- 7)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忠州周井山烽燧臺發掘調査報告書」, 충주시, 1997.
- 8) 국방군사연구소, 「韓國의 烽燧制度」, 1997.
- 9) 金起燮, 「天臨山烽燧의 位置와 現況」, 「朝鮮時代의 社會와 思想」, 조선사회연구회, 1998.
- 10)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장수군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 II. 4 성곽, 봉수, 전적지, 1988.
- 11) 청주대박물관, 「옥천군문화유적」 제 15책, 제 4장, 성곽, 봉수, 청주대출판부, 1993.
- 12) 명지대학, 「正往山烽燧」, 「始華地久 事業區域 地表調查」, 1988.
- 13) 육군박물관, 「경기도 파주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검단산봉수, 봉암리봉수, 도라산봉수」, 육군박물관, 1994.
- 14) 육군박물관, 「경기도 연천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두루봉봉수지, 놀목리봉수지, 간파리봉수지, 아미리봉수지, 고성산봉수지, 차탄리봉수지, 국사봉봉수지」, 육군박물관, 1995.
- 15) 육군박물관, 「강원도 철원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소이산봉수지, 할미산봉수지, 적골산봉수지, 상사봉봉수지」, 육군박물관, 1996.
- 16) 제주대박물관,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제1장 제 3절, 봉수연대, 남제주 남제주군, 1996.
- 17)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역사속의 수원-」 제4장 봉수와 역참, 수원시사 편찬위원회, 1996.
- 18) 孫德榮, 「朝鮮時代 公州地方의 烽燧」, 「충진문화」 8, 1995.
- 19) 金昌會, 「忠南의 烽燧遺蹟概要」, 「박물관보」 5, 청주대박물관, 1992.
- 20) 金 弘, 「朝鮮初期의 烽燧制度에 대하여」, 「육군

- 제3사관학교논문집(인문·사회·자연과학편)』 7,
1978.
- 21) 윤영섭, 「리조초기 봉수의 분포」, 『역사과학』 1998-1.
 - 22) 고려대 대학원도서과 한적실 소장,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 23) 전북체신청, 『통신문화유적 전북의 봉수대』, 전북체신청, 1992.
 - 24) H.N. Allen, 「봉화」, 『朝鮮見聞記 - 轉換期의 朝鮮』, 평민사, 1986.
 - 25) G.Gilmore (조용만 역), 「首都 서울」(원제: Korea from its Capital : With a Chapter on Mission), 『향토서울』 2, 1958.

■.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까지의 봉수에 대한 연구성과를 재검토하고, 보다 광범위한 재료를 발굴, 조사하여 거시적 안목으로 烽燧制를 체계화하여 인류문화에 공헌케 하는 것이다. 그런 작업으로 먼저

- (1) 미진한 조선후기에 역점을 두어 『實錄』과 古地誌, 古地圖, 邑誌등에 전하는 烽燧를 철저히 규명하고 現地답사해 위치, 규모, 시설, 설치연대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로써 봉수대의 전략적 가치 및 정확한 봉수 노선이 정리될 것이다.
- (2) 봉수대의 시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종래 중앙조직 연구에 치중하여 소외된 봉수대 시설에 대해서는 『實錄』, 『備邊司略錄』의 단편적 기록에 의존하다가 『輿地圖書』, 潤川, 金城 烽燧

기록으로 85개 종목의 舉火, 防護, 生活施設을 재료로 파악할수 있게 되었는데, 최근 蔚山(원래는 西生浦鎮관찰) 南木 봉수대 주변에 있는 蜂護寺에서 南木烽燧臺物目台帳이 발견되어 그 사실이 더욱 뒷받침 되고, 또한 주목되는 것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돈과 토산물을 협조 받는 품목이 기록되어, 봉수대가 상당한 토지와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된다.

한편 한 예로 舉火용 竹(艾), 積柴(積柴)등과 이리 풍(狼糞<증보문헌비고 봉수조에 전함>)등 燃料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막대한 연료의 비축과 관리는 큰 문제였을 것이며 그 성능에 대해서도 연구가 가해져야 한다. 日本의 경우 狼糞하나만도 상당한 연구가 있다. (末松四郎, 「狼糞考」, 「末松四郎教授退官紀念誌」 등), 이밖에 烟台, 望德, 烟竈(조)등에 조사가 있어야 한다.

- (3) 봉수대 운영실태를 정리하여야 한다. 조선시대 兵曹는 烽燧案을 비치하여 매일의 상황을 기록, 정책에 활용하였으며, 매 봉수대마다 日記帳을 두어 근무사실을 기록 守 습에게 보고하고, 매 계절 끝 달(3, 6, 9, 12)에 兵曹에 보고 토록 하였다. 『実錄』 등으로 부분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이 내용이 日記帳이 발견되면 봉수대 실태는 명백해 질 것이다.
- (4) 봉수군의 身分과 처우관계가 보다 명백히 되어야 한다.
- (5) 봉수조직 변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초기 <伍長(監考) - 烽軍> 체제로 운영되었는데 후기에는 「成鏡道各邑鎮堡烽臺及將卒並錄成冊」

이 발견되어 豆滿江 방면은 <別將 - 百摠 - 監官 - 武士(烽燧軍)> 체제로 운영된 것과 『湖南烽臺及將卒摠錄』으로 전라 해안 沿邊烽燧는 <別將 - 伍長 - 監考 - 軍·保人> 체제로, 이 밖에 平安, 濟州道도 각각의 『烽臺及將卒成冊』을 통해 볼 때 지역에 따라 특색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앞으로 이런史料들을 발굴, 그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烽燧文化발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가) 國際學術交流 : 봉수는 세계적 文化財로서 각 분야 (정치, 군사, 문화, 현대통신 등)로 연구영역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특히 중국, 일본 등과의 비교검토 및 학술교류를 통해 그 특성을 밝히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烽火)博物館설치 : 한국의 通信, 交通의 요지인 城南에 博物館을 설치하고 특히 나날히 袤손되어 가는 烽燧(舉火, 防護, 生活用品, 史書 등), 驛의 문화재를 수집·전시하여 그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며, 이 방면 연구자, 교육자들에게 편의를 주고 烽燧文化遺產이 참되게 계승되기를 기대한다.

地盤図



발 표

조선시대 봉수제의 운영과 문제점

발표 : 이준희(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

토론 : 박상일(청주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朝鮮時代 烽燧制의 運營과 問題點

李 存 黑 (서울시립대학교)

1. 조선전기 봉수제의 성립과 발전
2. 봉수제의 운영 실태
3.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검토

I. 朝鮮前期 烽燧制의 成立과 發展

烽火를 사용한 記錄은 伽倻의 金首露王代라고 전한다¹⁾. 그리고 三國時代에도 세 나라 모두 烽燧를 이용한 기록이 보인다. 百濟의 濟祚가 그 10년(B.C. 9년)에 北邊에 침공한 鮎鞠에 맞서 싸우던 백제 군이 패퇴하자, 온조 자신이 精銳化된 騎兵 100명을 거느리고 烽観에 나가 말갈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그 예가 된다. 그 후, 高麗에 이르러 봉수제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어 運營의 방법과 요령을 전국에 시달하기도 하였다. 穀宗 3년(1149) 8월 記事에 '밤에는 夷불(烽, 夜烽), 낮에는 연기(燧, 曛烟)로 신호하되, 平常時에는 1舉(炬), 二急(危急時) 일 때는 2炬, 三急(緊急時)일 때에는 3炬, 四急(超緊急時)일 때에는 4炬'로 상황을 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봉수대에는 防丁 2명과 白丁 28명을 배치하고 平田 1結씩을 지급하였다고 한다²⁾.

1) 『三國遺事』, 권2 紀異 罢洛崩記
2) 『고려사』, 권81, 병지1, 의종3년 8월조.

朝鮮時代에는 高麗朝의 봉수제를 踏襲하여 정착시키려고 하였다. 太宗代에 봉수제가 실시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峰卒이라는 용어와 함께 봉수로써 해상을 候望하는 것이 軍事的으로 간요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봉수제가 본격적으로 확립된 것은 朝鮮世宗代에 이르러서였다. 이 당시에는 海岸으로 침입하는 倭寇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무엇보다도 신속한 상황전달이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하여 세종은 원년에 먼저 거화법(舉火法, 炬火法)을 개정하였다. 그 배경에는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왜구에 대한 대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별일이 없는 평상시에 1기(舉, 炬), 위급할 때에는 2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3기, 초긴급시에는 4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때에 이르러 沿邊烽燧의 경우는 平常時에 1기, 적이 해중에 나타나면 再기, 해안에 가까이 접근하면 3기, 우리 병선과 접전하면 4기, 下陸하면 5기로 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眞末鮮初에 있어서는 봉수제가 남방의 왜구방어 때문에 필요하여 이에 대비코자 煙臺중심의 봉수대를 축조하였다. 그러나, 세종대 중기이후에는 북방의 女眞의 침탈이 심해지면서 그 필요성이 나타나자, 북쪽 국경지대에도 봉수제를 정비하여 나아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진의 침탈이 심한 지역부터 또, 전략상 방비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煙臺의 축조와 함께 木柵, 軍事施設 등을 확충하였다. 시설물 설치문제는 조선 초기까지도 어떤 규정이나 격식이 동일적으로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지방의 사정이나

지형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졌다. 煙臺 측조의 거리는 沿邊烽燧의 경우에는 10里나 15里 간격으로 하고, 중국제도를 참작하여 산 꼭대기의 頂上보다는 산 허리에 설치하여 산을 오르내리는데 가급적 힘이 덜 들고, 交代에 있어서도 시간이 단축되도록 하였다.

당시의 봉수제는 제도와 시설 뿐만 아니라, 행정·군사상의 운영면에서 그 중요성에 비례 너무나 어슬프게 운영되었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다.

조선왕조에서는 세종대에 와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세조·성종조에 이르러 큰 進展을 보게 되었다. 世宗은 烽燧網을 정비하고 직제를 바로 잡았으며, 煙臺築造規式을 제정하여 봉수제의 기본구조와 그 기초를 닦았으며 이것은 그 후 14세기 말, 『經國大典』의 公布로 조선시대의 봉수제가 法制化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봉수제는 임진왜란 후 거의 虛構的 존재로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예 봉수제를 없애고, 소규모의 臺나 堡를 만들어 그 위에 竿을 세워 낮에는 旗로써, 밤에는 燈으로써 서로 相應케 하려는 대안이 나오기도 하였다. 결국 宣祖 30년에는 전국의 육상군사통신망과 같은 摺撻制가 만들어져 향후 약 100년간 활용되면서 정보망 구실을 행하였다. 따라서 이 동안에는 봉수제는 그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었다. 그러나, 17세기 숙종대 이후부터는 다시 봉수제가 부활되어 과발제와 함께 조선의 군사통신 기능을 담당하면서 조선 말기까지 존속되

었다.

조선시대 전국의 烽燧路는 5大路로 제정되었는데, 「增補文獻備考」를 이용하여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第1炬 : 慶興→漢城(木覓山 第1烽)
- Ⓑ 第2炬 : 東萊→漢城(木覓山 第2烽)
- Ⓒ 第3炬 : 江界→(내륙경유)
→漢城(木覓山 第3烽)
- Ⓓ 第4炬 : 義州→(해안경유)
→漢城(木覓山 第4烽)
- Ⓔ 第5炬 : 順天→漢城(木覓山 第5烽)

II. 烽燧制의 運營 實態

1). 通信 方法과 施設

烽燧는 지방에서 중앙으로 邊境地方의 安危를 急告하는 것이고, 중앙에서 어떤 情報를 지방에 전달하는 것이 아닌 一方通行的 機能을 행하였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烽燧의 目標는 멀리 멀어진 邊境이나 沿岸으로부터 어떤 긴급한 상황을 京烽까지 속히 전달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변경지방의 연대는 급한 일을 빨리 중앙으로 보고하여야 하지만, 또 자체없이 인접한 다른 연대와 주변 촌락에도 알려서 급히 위기상황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水平的인 상호 通告의 기능도 함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호전달 방법에는 烟烽(烽)과 煙氣(燧)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비·바

람이 새차거나 안개가 심하게 끼어서 연기나 불 빛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 봉수군은 즉시, 다음 연락처까지 뛰어가서 전달하게 된다. 또, 賊이 갑자기 봉수대 주변에 출현하여 주위의 住民이나 우리 군에게 급히 알려야 할 때에는 봉수 이외에 砲聲과 角聲을 내기도 하고 북(鼓)을 치기도 하였으며, 흰 旗를 긴 나무에 매달아 혼들기도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인근에 알리면서 京烽에 급히 전달하였다. 이때 만일 적을 물아내고 그들의 목을 빼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壤賞을 해 주었고, 반대로 무기력하게 적에게 항복한 자에게는 罰을 주는 것이 당연하였다.

조선왕조에서는 爐火法을 정비하였는데, 이는 왜구의 침입이 찾을 때 沿岸烽燧를 중심으로 행하여진 것이지만, 內地烽燧에도同一하게 적용하였다. 內地에서는 國境 밖 멀리에 賊의 모습이 보이면 再舉, 국경 가까이 오면 3舉, 국경을 침범하면 4舉, 우리 군사와 접전하면 5舉씩을 올리도록 하였다. 물론 평상시 아무 異狀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이상이 없다는 신호로 1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양에는 밤이 늦지 않은 초저녁(未昏)에 烽火가 도달하여야 했다. 그리하여 대체로 매일 일정한 시각에 起點으로부터 봉수가 올려져야 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漢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연기(燧)를, 한양에 가까운 곳일수록 夜火(烽)를 올리는 것이 恒例로 되어 있었다.

왜구의 침입이 심했던 세종 4년 8월에는 전국의 연안봉수대에 煙臺를 축조하고 그 곳에 兵器 등을 배치하여 要塞化하였으며, 전국의 烽燧網도 정비하

여 國土防衛와 軍事 通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종 25년 癸亥條約奉 왜구의 침략이 거의 없어지자, 세종은 北方開拓에 박차를 가하여 이른바 4군 6진을 설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북쪽 국경지대에 條燧制와 軍事裝備 및施設이 크게改善되어 나갔던 것이다.

이제 조선의 군사정책 방향은 南方위주의 防禦概念으로부터 北方中心으로 바뀌고, 北邊에도 견고한 煙臺를 갖춘 봉수시설이 확충되어 갔다. 세종 14년 6월에 두만강변 17개 지역에 煙臺가 설치되어 對女眞 防禦要塞地化한 것은 북방의 국경지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그 만큼 커져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북방에 관한 관심과 대비책이 계속되어 마침내, 세종 28년 10월부터 다음 해인 세종 29년 3월에 걸쳐 조선왕조는 전국적으로 沿邊(沿岸)烽燧, 內地烽燧, 京烽燧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전국의 봉수를 재점비하는 등 일대 혁신을 단행하였던 것이다.³⁰⁾ 봉수대 간의 거리는 자연조건으로 차이가 생기지만, 대체로 연변봉수는 10리~15리, 내지봉수는 盡燧地域은 20리~30리, 夜火地域은 40리~50리 정도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면, 봉수대의 시설은 어떠하였는가?

당시 海邊에 위치한 沿邊烽燧臺는 의자할만한 堡壘조차 갖추어 있지 못하여 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

30. 『세종실록』 권114, 28년 10월 경자조 및 동서 권115, 29년 3월 병인조.

있기 때문에 적의 攻擊을 받게 되면 큰 피해를 면 키 어려웠고, 국경지역인 북방의 경우에도 봉수에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였다. 그러나 더욱 안타깝고 한심한 것은 이런 현상이 연례행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국가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했고, 봉수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일이 시급한 현안문제이고 중요한 사안이었다. 시설물은 煙臺, 煙竈, 軍施設物 그리고 기타 必要한 물건을 保管할 수 있는 시설 등이다. 煙臺는 주로 적과 대치하고 있거나 적의 침략을 자주 받는 沿邊과 邊境地方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것은 전략상 중요 시설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沿邊烽燧는 다른 內地烽燧나 京烽燧와 달리 煙臺를 꾸밀 때 갖추어야 했고, 또 이를 중심으로 要塞地化되어야 했다. 왜구침입이 잦았던 世宗初에 연안 봉수대에서부터 煙臺시설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世宗 중반 이후에는 野人에 대한 시설로 북쪽 邊方봉수대에도 이를 축조해 나갔던 것이다. 즉, 연대축조가 남쪽 연변지방으로부터 북쪽 국경지대로, 왜구의 방어용으로부터 여진의 대비용으로 바뀌어 간 것이다.

世宗4년 8월의記事에서 당시 봉수시설의 민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즉, 慶尙道 水軍都按撫使가 "烽燧臺에는 가히 의지할 만한 堡壁이 없으니, 청컨대 앞으로 봉수에 높이 煙臺를 쌓고, 그 위에 弓家를 설치하고 火砲를 비치하여 候望人이 항상

봉수대에서 안심하고 賊變을 看望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그것인데, 남쪽 경상도 지방에서 煙臺築造의 필요성을 제기한 내용이다. 결국 땅에 전략상 필요한 煙臺가 南方沿邊에서 등장한 배경이 된다. 이 내용은 기록상 조선조에서 처음으로 축조한 煙臺이다. 아울러 이 煙臺축조는 외적방어용 軍事要塞地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또,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여 南方 沿邊烽燧에 설치하기 시작한 煙臺축조가 10여년이 지난 후, 北方國境地域으로 확대되어 갔다는 것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世宗 14년 6월 成吉道都巡察使 鄭欽之의 上啓에 「지금 설치한 慶源과 ---石幕城 터 이북으로부터 남으로 龍城에 이르는 路邊에 마땅히 煙臺 17개소를 설치하여 그 煙火를 서로 바라보게 하고, 또 碓聲을 서로 듣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 연대마다 火桶肄習人 1명과 軍人 3명을 배치하여 놀 그 곳에 머물러 看守케 하고, 아울러 信砲 2, 3柄과 大發火 4, 5柄 및 흰색의 大旗를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만약 賊變이 있으면 각 연대에서 낮에는 연기를, 밤에는 烟 불을 올리며, 또 信砲와 大發火를 쏘아서 반드시 相應한 후에야 그치게 하고, 혹은 白旗를竿(장대)에 매다는 등 적의 賊變을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⁴⁾

세종 18년과 19년에도 평안도 지방에서 이와 유사한 왕의 의견이 파악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세종이 平安道都節制使에게 지시한 내용이 그 것인데, 「煙臺施設은 높은 곳에 올라가 면 곳을 바

4). 『세종실록』 권56, 14년 6월 계사조.

라보며, 邊境의 安危를 살핀으로써 일단 유사시에는 角을 불고 碓를 쏘아 四隣에 알리는 것이니, 攻守兩面에 있어서 모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利器가 아니겠는가.———— 東西兩界의 煙臺와 口子의 萬戶는 오랫동안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근년에 비록 설치하였으나, 그 효능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저번에 野人 300騎가 國延의 趙明干 口子에 돌입하는데, 먼저 40기가 압록강을 넘어 오자, 이를 발견한 우리의 煙臺에서 信砲를 두 번 쏘아 올리자 木柵 밖의 온 들에 나가 농사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적의 침입을 알고 혹은 檻內로 쫓겨 들어오고, 혹은 숲 사이에 흘어져 숨음으로써 살해되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면하게 되었으니, 가히 연대의 유리함을 경험한 것이다.⁵⁾라고 하면서 가급적 연대를 많이 축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記事를 통해 우리는 조선 초기에 있어서는 적어도 煙臺가 적의 침입이 끊았던 국경지대나 해안 연변지역에서 最前方 展望臺 또는 警備哨所 구성을 한 것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곳은 요새지로서 군사적 방어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했고, 煙臺間의 거리도 內地烽燧 거리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설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煙臺築造 施設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정해져 있다.

(가) 煙臺는 高25尺, 圓70尺, 臺下 4면 30尺이어야 하고, 그 밖에 深·廣 각 10척의 壟壕를 파고, 그 호(壕)밖에는 3척 높이의 말뚝을 박되, 말뚝은 반드시 껍질을 베끼고 위를 뾰족하고 예리하게 만들어

5). 『세종실록』 권73, 18년 윤6월 경해조 및 동설록, 권77, 19년 5월 기해조.

야 하며, 그 말뚝지대의 넓이는 10척이며, 척수는 营造尺에 기준한다. 그리고 煙臺위에는 假屋을 짓고 병기 및 조식생활에 필요한 水火器皿 등을 준비해둔다(세종 4년)⁶⁾.

(나) 煙臺는 4면의 下廣을 每1면 20尺, 高 30尺으로 하고, 煙臺4면 밖에는 구덩이(坑坎: 쟁감)를 설치해야 하며, 5명이 兵器와 火砲를 가지고 근무하되, 10일 교대로 盡夜堠望케 한다. 沿邊 각 口子의 石堡를 축조할 때는 敵臺, 競城, 煙臺의 형태를 修城典城色으로 하여금 그려서 내리 보내게 한다. 煙臺 등 시설물의 축조는 都節制使가 감독한다.(세종 20년)⁷⁾

한편, 沿海가 아닌 내륙지방의 内地烽燧에 대한 시설물이 어떠했을까도 궁금하다. 이곳은 왜구 등賊이 출현할 가능성이 연해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자연히 방어시설도 약하여 煙臺를 빙지 않고, 煙窓(연조: 아궁이)만을 만들어 이용하였다. 연조는 위는 壓족하고 아래는 크게 하는데 혹은 方形으로 혹은 圓形으로 쌓되 높이가 제한(10척이하)되어 있다. 그리고 煙窓의 둘레에는 垣牆을 쌓아 침승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成宗 6년 이후에는 모든 봉수에는 煙臺나 煙窓위에 반드시 煙箭을 만들어 달게 하여 바람으로 인한 연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전국에 지시한 내용이 보인다. 煙窓는 煙臺에 비하면 축조가 간편하고 비용 또한 훨씬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지)봉수에는 이 시설을 많이 갖추게 되었다.

6) 『세종실록』 권17, 4년 8월 계묘조.

7) 『세종실록』 권80, 20년 1월 경자조.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서 우리는 연변 및 국경지대에 설치한 煙臺와 内地에 마련한 煙竈와는 같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煙臺는 적과 접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煙竈가 갖추어진 내지봉수에서는 최소한 짐승을 피하는 정도의 시설만 갖추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봉수대(봉화소)의 숫자이다. 국초에는 연기나 횃불을 올리는 烽火所가 2개씩 설치했으나, 世宗 1년부터는 5個所로 증설하였다. 5事를 해야할 경우에 횃불 5개를 동시에 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만일 1개의 봉화대에서 횃불을 올렸다 내렸다하면 먼 곳에서 불줄이 그 올라온 수를 정확하게 혜아리기 힘들었다. 처음 것을 보지 못하고 나중의 것만 보았다면 이 역시 착오가 생기는 것이며, 이 착오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의 연락장소까지 연결되므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규정상 모든 봉수대에 5개소의 봉화대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원칙이 지켜진 곳은 별로 없다. 봉수제의 混亂과 虛設化 등으로 인해서였다.

2). 勤務 要員과 罰則

煙臺나 煙竈가 설치되어 있는 烽燧臺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경국대전』에 따르면, 烽火軍, 伍長(監考), 五員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봉화군은 烽軍, 烽卒 등으로도 불렀으며, 烽火干, 烽燧軍, 看望軍, 候望人, 海望

人 등으로 별칭되기도 하였다. 伍長은 지방 봉수대에 근무하고, 五員은 京烽燧에 근무하였다. 榜火軍은 봉수대에 기거하면서 候望을 직접 책임진 담당자이고, 伍長 및 五員은 봉수대에 함께 기거하되 봉화군을 독려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오장과 오원은 신분상 봉화군보다 우위에 있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봉화군은 그 신분이 身良役賤으로서 사실상 良人과 賤民의 중간에 속한 계층인데 비하여 오장과 오원은 봉화군과 다른 品官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五員은 王의 친족이나 文武官 藩官 출신자가 임명되어 높은 祿俸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⁸⁾. 왜냐하면, 명종 11년(1556)에 품관 4명을 監考로 별정하여 2번 교대로 근무케 하였다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봉수대에 근무하는 요원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沿邊煙臺와 内地烽燧 그리고 京烽燧에 배치된 인원은 같지 않았다. 일의 중요성과 그 기능에 따라 배정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사료와 선행연구에 따르면, 시대에 따라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세종대부터 정원이 책정된 것을 알 수 있다.⁹⁾ 그에 따르면, 세종 19년 연변 봉수(煙臺)에는 봉화군이 每所마다 5명이고, 伍長이 1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봉수대에는 5所가 있었으므로 실제로 봉화군이 25명(5명×5소=25명), 오장이 5명(1명×5소=5명)이고, 내지봉수에는 매소마다 봉화군이 3명이고, 오장이 1명이다. 즉, 봉화군

8) 『대전호통』 권4, 병전 봉수조.

9) 세종 19년 이후에 봉수대를 지키는 정원과 교대관계 등의 기록이 보이고 있으며, 또, 세종 28년 10월을 계기로 연변봉수대의 봉화군을 대폭 증가시켜 每所마다 봉화군을 10명으로 하여 이것이 정국대전의 규정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15명($3명 \times 5소 = 15명$), 오장 5명($1명 \times 5소 = 5명$)이다. 경봉수에는 매소마다 봉화군이 2명이고, 五員이 1명이다. 따라서 경봉수에는 봉화군 10명($2명 \times 5소 = 10명$), 오원 5명($1명 \times 5소 = 5명$)이었다.

그러나, 세종 28년의 경우에는 또 다르게 나타난다. 아직 봉수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사례에 “현재 각 봉수대에는 殘亡한 烽火干 1~2명이 있을 뿐이니, 앞으로 이 곳에 6명으로 증원하여 3番으로 나누도록 해야 한다”는 왕의 지시내용과 함께 沿邊煙臺에는 每所마다 봉화군 10명, 伍長 2명씩으로 정하여 上下兩番으로 나눈다. 그리고 내지봉수에는 매소에 봉화군 6명, 伍長 2명으로 정하여 2番 교대한다. 남산의 京烽燧 5所에는 看望軍 20명을 두고 兩番으로 나누어 1所에 2명씩 入直케 하고, 五員은 매일 事變의 유무를 병조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다.

봉수군의 交代時 봉수대에 식량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곳 지방관, 감사, 철제사 등이 적의 보급해야 하며, 이곳 근무자는 貢賦以外의 雜役은 일체 면죄된다. 그리고 伍長으로서 부지런히 근무한 자에게는 6년에 1次씩 散官職을 除授하며, 봉수군으로 능히 사변을 예고하여 賊을 잡게 한 자는 賦을 주고 적당한 관직에 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봉화소에 사고가 생기면 伍長은 곧 이를 지방관에게 보고한다. 단, 무사하면 10일에 한번씩 보고해도 된다. 지방관(수령)은 수시로 監司에게 보고하고, 兵曹에는 매 계절 말(3월, 6월, 9월, 12월)에 보고한다. 伍長과 봉수군의 勤慢은 監司, 守令, 節制使, 敬差官 등이 수시로 감찰·점검한다.

아울러 각 道의 수·목봉화가 相准하는 路次는

병조로 하여금 某處烽火는 某處烽火에 准한다는 것을 그 山이름과 距離를 기록한 臨帳을 만들어 兵曹, 承政院, 議政府 및 地方官衙, 觀察使, 節制使, 處置使에게 각각 1부씩 보내어 뒤에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첨부되고 있다.

그리고, 세종 19년의 실록기사에 “附近民 10여명을 모아서 봉화군으로 삼아 매번 3명씩 兵器를 兼借하고 항시 煙臺위에서 주야로 偵候하되, 5일마다 過番토록 한다. 만일 惡獸의 傷害가 염려되는 곳은 守宿으로 하여금 煙臺의 例에 따라 적의 조치한다.”는 내용이 있다.¹⁰⁾ 이로 미루어 보아, 봉화군의 差定은 그 隣近 住民들로 충당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入番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주위의 지형지물과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주민이 업무수 행상 이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經國大典』에는 “烽燧要員은 沿邊烽燧 每所에 軍 10명, 伍長 2명을, 內地烽燧에는 매소에 軍 6명, 伍長 2명을, 京烽燧에는 軍 4명, 五員 2명을 배정하고 있다. 舉火內容을 한양에서는 五員이 兵曹에, 지방에서는 伍長이 守令(鎮將)에게 보고한다. 병조

10). 烽燧軍은 正軍, 奉足, 甲士, 老弱者, 貧寒者, 黑者, 富者, 봉수대 무근의 住民, 京外에서 徒刑을 선고받은 罪人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봉수군의 주된 임무는 ①변경의 정체를 被燒夜火의 5擊法으로 京烽에 전달한다. ②적의 침입이 있을 때는 鐃聲(銃砲, 火砲)과 角聲, 白旗 등으로 주위 普觀과 주민들에게 알려 미리 대비케 한다. ③약천후로 被燒夜火가 불가능할 때에는 달려가 화재를 다음 봉수대에 전한다. ④봉수대를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한다. 이를 위해 무기, 화약 등을 준비해야 하고 무예를 닦으며, 부자연한 훈련과 軍紀點考 그리고 말타기 연습까지 철저를 기한다. 아울러 賦差官의 험관도 수시로 받는다. ⑤봉수대의 모든 시설을 잘 관리하고 보호 책임을 진다. (南都注, 「韓國馬政史」, 1996, P.P 503~504. 및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참조)

15명($3명 \times 5소 = 15명$), 오장 5명($1명 \times 5소 = 5명$)이다. 경봉수에는 매소마다 봉화군이 2명이고, 五員이 1명이다. 따라서 경봉수에는 봉화군 10명($2명 \times 5소 = 10명$), 오원 5명($1명 \times 5소 = 5명$)이었다.

그러나, 세종 28년의 경우에는 또 다르게 나타난다. 아직 봉수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사례에 “현재 각 봉수대에는 殘亡한 焰火手 1~2명이 있을 뿐이니, 앞으로 이 곳에 6명으로 증원하여 3番으로 나누도록 해야 한다”는 왕의 지시내용과 함께 沿邊煙臺에는 每所마다 봉화군 10명, 伍長 2명씩으로 정하여 上下 兩番으로 나눈다. 그리고 내지봉수에는 매소에 봉화군 6명, 伍長 2명으로 정하여 2番 교대한다. 남산의 京烽燧 5所에는 看望軍 20명을 두고 兩番으로 나누어 1所에 2명씩 入直케 하고, 五員은 매일 事變의 유무를 병조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다.

봉수군의 交代時 봉수대에 식량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곳 지방관, 감사, 절제사 등이 적의 보급해야 하며, 이곳 근무자는 貢賦以外의 雜役은 일체 면죄된다. 그리고 伍長으로서 부지런히 근무한 자에게는 6년에 1次씩 散官職을 授하되, 봉수군으로 능히 사변을 예고하여 賊을 잡게 한 자는 貲을 주고 적당한 관직에 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봉화소에 사고가 생기면 伍長은 끝 이를 지방관에게 보고한다. 단, 무사하면 10일에 한번씩 보고해도 된다. 지방관(수령)은 수시로 監司에게 보고하고, 兵曹에는 매 계절말(3월, 6월, 9월, 12월)에 보고한다. 伍長과 봉수군의 勤慢은 監司, 守令, 節制使, 敬差官 등이 수시로 감찰·점검한다.

아울러 각 道의 수·목봉화가 相准하는 路次는

병조로 하여금 某處烽火는 某處烽火에 准한다는 것을 그 山이름과 距離를 기록한 臺帳을 만들어 兵曹, 承政院, 議政府 및 地方官衙, 觀察使, 節制使, 處置使에게 각각 1부씩 보내어 뒤에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첨부되고 있다.

그리고, 세종 19년의 실록기사에 “附近民 10여명을 모아서 봉화군으로 삼아 매번 3명씩 兵器를 兼帶하고 항시 煙臺위에서 주야로 偵候하되, 5일마다 過番토록 한다. 만일 憲獸의 傷害가 염려되는 곳은 守 습으로 하여금 煙臺의 例에 따라 적의 조치한다.”는 내용이 있다.¹⁰⁾ 이로 미루어 보아, 봉화군의 差定은 그 隣近 住民들로 충당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入番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주위의 지형지물과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주민이 업무수 행상 이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經國大典』에는 “烽燧要員은 沿邊烽燧 每所에 軍 10명, 伍長 2명을, 內地烽燧에는 배소에 軍 6명, 伍長 2명을, 京烽燧에는 軍 4명, 五員 2명을 배정하고 있다. 舉火內容을 한양에서는 五員이 兵曹에, 지방에서는 伍長이 守舍(鎮將)에게 보고한다. 병조

10). 烽燧軍은 正軍. 幸足, 甲士, 老弱者, 貧寒者, 瘦者, 富者, 봉수대 부근의 住民. 京外에서 殲刑을 선고받은 罪人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봉수군의 주된 일부는 ①변경의 경세를 盡烽夜火의 5準法으로 京烽에 전달한다. ②적피 침입이 있을 때는 信砲(信砲, 大砲)과 角砲, 白旗 등으로 주위 燕鎭과 주민들에게 알리며 대비케 한다. ③악천후로 盡烽夜火가 불가능할 때에는 단려가 犯情을 탐을 봉수대에 전한다. ④봉수대를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한다. 이를 위해 투기, 화약 등을 준비해야 하고 무예를 닦으며, 부지런한 훈련과 軍紀點考 그리고 맷다기 연습까지 철저를 기한다. 아울러 故臣官의 철검도 수시로 받는다. ⑤봉수대의 모든 시설을 잘 관리하고 보호 책임을 진다.(南都府, 『朝鮮則政史』, 1996, P.P 503~504. 및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참조)

에서는 사람을 정하여 木覓山 烽燧를 候望하고 사면 유무를 다음날 새벽에 승정원에 보고하여 왕에게 上啓토록 한다. 만약, 事變이 있으면 비록 深夜라도 이를 즉시 보고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면, 봉수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違反者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위반자를 징계함으로써 봉수제 실시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봉수와 관련된 벌칙은 候望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舉火를 않은 경우와 봉군의 缺番과 代立 그리고 수령이나 기타 관련 관원이 감독을 소홀히 하여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이들을 문제하였던 것이다. 그 중, 가장 엄하게 다스린 것은 국경지대나 연변봉수에서 적의 침략이 있었는데도 거화하지 않아 큰 피해를 보게 한 것과 앞의 봉수대에서 傳報된 烽火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여 이를 中絕케한 경우이다.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세종 28년에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첫째, 開點(缺動)을 엄히 다스렸다. 이런 경우에 초벌은 答 50, 재벌은 杖 80, 3벌은 杖 100으로 처벌하고, 이를 능히 고찰하지 못한 官員에게도 치죄하였으니, 역시 초벌은 태 50, 재벌부터는 加一等하여 杖 100에 이르면 과적시킨다. 또, 만약에 봉수군이 사사로히 他人을 替立시켰을 경우에는 代立한 者는 杖 60에 箝을 거두어 充軍케 하고, 代立시킨 자는 杖 80에 役을 진다. 단, 子孫, 弟姪 기타 동거하는 親屬, 奉足 중에서 그 직무를 감내할 만한 자가 代立을 자원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한다. 둘째, 봉수군이 候望을 제울리 해서 아군에게 피해가 생기면 이를 엄하게 치죄하였다. 烽卒은 합시 罷煙夜火를 지키되, 만약 前烽에서 烽火가 올

라오지 않으면 즉시 그 사실을 다음 烽火所에 달려가 고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守 승이 그 사유를 推考하여 병조에 移文한다. 아울러 烽燧候望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우리 城이 함락되고 我軍에게 과해가 생기면 高處에서 看望하던 烽卒을 斬하게 되며, 적이 경내에 침입하여 인민을 침탈케 하였을 때는 杖 100에 邊遠充軍한다.

『受敎輯錄』에 나타난 中宗·明宗代의 경우를 보면, ①멀리 賊이 나타났는데 거화를 하지 않은 경우는 봉수군에게 杖80, 수령에게 杖70의 형이 가해졌고, ②적이 우리영토로 접근해 오고 있었으나 거화하지 않은 경우는 봉수군에게 杖100을 부과하고, 먼 지방으로 보내 充軍하였다. ③적과 접전 중인데 爐火하지 않은 경우에는 斬刑으로 다스렸고 ④중도에 봉수가 끊긴 경우에도 엄하게 다스렸다. 세종 5년에는 杖80~100으로 다스리다가 동왕 28년부터는 두 경우로 구분하여 有事時에는 �杖100, 無事時에는 업무 태만과 규정 위반죄로 治罪하였다. 그러나 뒤에는 봉수가 중도에 廢絕되었을 경우, 해당 노선의 烽燧路를 漢陽으로부터 逆追跡하여 처음 廢絕된 곳을 찾아 이를 치죄하였던 것이다. ⑤烽火軍의 缺勤(闕點)도 엄히 다스렸으니, 初犯은 答 50, 再犯은 杖 80, 3犯은 杖 100을 가하여 치죄하였다. ⑥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사로히 代立시켰을 경우에는 代立시킨 本人에게 杖 60과 본인 몫에 대한 충군을 하게 하였다.

그 외에 虛偽로 危急을 알리는 경우나, 봉수대에서 필요한 식량, 의복, 무기, 柴木 등 제반 준비사항을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III. 運營上에 나타난 問題點 檢討

봉수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충실했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세종 15년 5월에 北邊의 閑延지방에 賊變이 있어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봉수는 평일과 똑같이 아무런 異狀을 전하지 않았다던가. 또, 설사 제대로 事變을 알려서 한양에 도달하게 되더라도 한양에는 당시 이에 응할 아무런 설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숨짓기도 한 예가 있다.¹¹⁾ 이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세종 28년 1월에는 국왕이 우찬성 金宗璫에게 “봉화는 再舉로서 신호가 왔으나 아무런 賊變이 없었고, 반대로 어떤 일이 변경에서 벌어졌어도 봉화는 이를 알리지 않으니, 결국 봉화제가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철폐하는 것만 같지 않다”고 강조한바 있다. 김종서는 “지금 각 봉수에는 겨우 殘亡한 榜火干 1, 2명이 있을 뿐인데, 榜火로써 지방수령의 공과로 삼지 않고 있어서 그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榜火干의 숫자를 늘이고, 수령에게 봉화의 책임을 물게 하면 개선될 것”이라고 왕께 건의하였다. 그 이전 세종 15년 6월에도 최윤덕이 “봉수는 전혀 무익한 존재이니,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왕의 발언에 적극 찬성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연변지방의 봉수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화가 한양에 도달해도 이를 수용할 만한 봉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11) 『세종실록』 권60, 15년 6월 甲辰條.

결국 앞에서 보았듯이 조선시대의 봉화제는 제도 면에서나 운영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 이제 그 존재의의를 의심케 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봉수시설(연대, 연조, 방어시설, 기타 장비)의 미비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癸亥條約(세종 25년)이 체결된 후 왜구의 침입이 거의 없게 되자, 서남지방의 해안가 煙臺는 그 중요성이 감퇴되어 모든 연대가 거의 규정대로 축조되지도 운영되지도 않고, 또 긴 해안선의 要路 모두에 설치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자연히 이곳의 대부분의 연대가 부실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봉화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인적 차원(烽燧軍, 烽火干, 기타 요원)의 불충분으로 어떤 경우에는 변방에서 올린 봉화가 1개월이 걸려도 한양에 도달되지 않는 예가 있었다.¹²⁾ 셋째, 봉수군에 대한 보급 및 지원의 불충분을 들 수 있다. 겨울이나 여름을 막론하고 항상 布衣를 입고 煙臺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그 곳에서凍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넷째, 煙臺의 위치가 조선 초기와 달리 거의 후방의 本營근처에 설치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즉 적이 침략하여 한참 우리영토로 접근하여 城壁에까지 와서야 煙臺에서 알게 되니, 연대로 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북쪽 변경지방의 연대가 明宗代에 오면 거의 없어지거나 또는 비어 있어서 적이 마음대로 우리의 국경을 출입하고 있는 실정을 밝히고 있다.¹³⁾ 다섯째, 봉수군 등 근무요원들의 경

12). 『중종실록』 권73, 27년 9월 경오조.

신적 해이감을 들 수 있다. 즉 평온한 평시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해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내지봉수가 더 심하였다.

이처럼 봉수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세종 자신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여 봉수제를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봉수제의 문제점이 크게 노출된 왕 28년 10월부터는 본격적인 혁신작업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즉 사료의 내용처럼 烽廳救弊之策에 착수하여 일대 혁신을 단행하였다.¹⁴⁾ 세종은 그 초년에는 고려이래의 봉수제를 근간으로 하였고, 중기이후 약 20년간에 걸쳐서 계속된 野人과의 실전에서 얻은 산 경험을 살려 그 시설과 요원, 운영실태, 처벌과 포상 등 전반적인 것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봉수제는 세종 말에 확립되었고, 이것이 『經國大典』에 수록되었다.

우리는 『경국대전』 체계 이전에 봉수제를 개선하려는 역대 국왕들의 노력을 살릴 수 있다. ①煙臺施設과 그에 속한 信砲, 小火砲 등의 철저한 관리. ②봉수처를 자주 순시하여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 ③아침·저녁으로 안개와 구름이 끼고, 수목이 앞을 가리어 잘 보이지 않기가 일쑤이니, 그에 대한 조치를 잘 취하고 있는가 등의 내용이 그 것이다.

봉수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국왕이 목표

13). 『명종실록』 권24, 13년 3월 갑인조.

14). 『세종실록』 권114, 28년 10월 경자조.

한 바 대로 실효률을 거두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그 결과는 그리 신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월이 훌러감에 따라 운영상의 문제점만 점점 더 커져 갔던 것이다. 이제는 그 실효성을 의심하게 되고, 봉수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燕山君은 폭정으로 봉수제를 아예 혁파하기도 하였고, 남쪽으로부터 발생한 을묘왜변(1555년)이나 심지어 임진왜란시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자 肅宗朝에는 峰卒을 아예 없애고 봉수의 업무를 山僧에게 위임하기까지 한 바 있다. 북쪽으로부터 야기된 尼蕪介의 叢에서도 제대로 연락체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봉수제의 효용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결국 우리는 봉수제의 운영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변방에서 올린 봉화가 도중에서 변질되어 舉火된 대로 전해지지 않거나, 혹은 중간에서 끊겨 아예 한양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前烽의 舉火가 잘 보이지 않으면 도보로 그 곳에 쫓아가 원인을 규명하고 다음 봉수에 속히 알려야 한다. 그러나 수십리나 떨어져 있는 高山峻嶺까지 달려가 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舉火를 하지 않거나 도중에 끊기게 한 자에게는 엄격하게 다루어 斬刑에 처하거나 혹은杖100의 중형을 가하였지만,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뱃불을 올리기란 그리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르게 파악하고, 속히 그 改善策을 講究하여야 했으나, 그 노력은 별로 이

투어지지 아니하였다. 특히 잘못을 들추어 내어 차별하는 것 만으로 實效性을 높이려한 것은 옳다고 보기 힘들다. 가장 중요한 것은 峰卒을 위한 예전 향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했다.

둘째, 병수군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다. 임무에 충실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그들은 긴장이 풀려있었으며, 거화한 시간에 맞추어 무사하다는 信號 1舉를 올리는 것으로 족하였다.

朝鮮時代 烽燧의 變遷

박 상 일(청주대학교 박물관)

인류문명의 발달은 불의 사용을 근간으로 한다. 선사시대에 인류가 처음으로 불을 발견하여 난방, 요리, 방호에 이용함과 함께 신호기능으로도 활용하였을 것이다. 烽燧制度의 기원이 언제인지 불확실하지만 선사시대부터 불을 다양하게 이용할 줄 알았음에 비추어 불빛과 연기는 중요한 통신수단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鷄洛國의 首露王 설화에서 봉수의 실용예를 볼 수 있으며, 《三國史記》百濟 溫祚王條에 나타나는 地名들 가운데 烽峴, 烽山, 烽山城 등과 같이 烽燧制의 실지를 반증하는 기록이 있다. 이밖에도 삼국시대에 봉수를 이용한 기록이 사서에 자주 나타나며 특히 백제는 일본에까지 城郭과 烽燧 빛는 기술을 전해 주었다. 그러나 봉수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된 것은 고려시대로 보인다. 《高麗圖經》에 의하면 宋의 사신이 흑산도에 들어서면 매번 야간에는 인근 지역의 山頂 烽燧에 순차로 불을 밝혀 王城까지 인도한다고 하였으며, 그후 26년후인 麥宗 3년(1149)에는 西北面 兵馬使 曺晉若의 상주로 봉수식을 정하여 夜火 盡燧의 炬火方式과 봉수대에 근무할 俗長, 防丁, 白丁 등의 인원수를 정하였다. 이때의 봉수대에는 하급장교인 방정 2명과 봉화대에서 직접 패불을 올리게 하거나 방어하는 근무병·보초병등인 백

정 20명을 배치하였다. 그들에게 각각 높은 곳에 있는 평지인 平田 1結씩 주어 가까이서 쉽게 오르며 농사짓게 하여 생활대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본업무인 봉수에 충실하게 하고 있다. 이는 각 봉수대에서 정세에 따라 올릴 화수와 봉수를 지킬 요원의 배치, 경제적인 배경의 규정 등 봉수제 전반에 대한 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이후 元의 침입과 지배로 고려의 독자적 봉수제도는 무너지고 원나라 군사의 봉수조직에 준하여 편성되었다. 그후 원나라의 지배세력이 차츰 후퇴할 무렵, 소위 왜구의 침입이 늘어나면서 고려의 봉수는 다시 강화되었다.

忠定王 3년(1351) 8월, 松嶺山 봉수소를 설치하고 창교 2명과 봉수군 33명을 배치하였는데, 이 봉수소는 전국 각지에서 집결되는 중앙봉수소의 역할을 하였고, 부근 주민의 보호와 자체 방호를 담당함은 물론 王都의 수비에도 중요성을 띠고 있었다. 또 고려말에 왜구가 계속적으로 해안지방을 침입하자, 봉수시설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증강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었다. 복과 정을 쳐서 알리면 更과 點을 굳세게 하고 봉연을 삼가하여 봉수를 잘 소통시킴으로써 이웃을 불러 이를 구원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서도,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봉수가 국방상의 이유로 설치 운영되었음을 알려주는 일이라 하겠다.

조선시대의 봉수제도는 고려시대의 봉수제를 바탕으로 世宗代에 개정 정비되었다. 봉수대 시설과 榊軍의 신분과 봉화 빼(炬)의 수를 다시 정하고 榊炬의 線路를 구분하여 唐律 또는 大明律를 보완한 조선시대 봉수제도의 근간을 만들었다. 이때 정해진

봉수제도는 큰 변화없이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8路烽燧가 폐지되고 1895년 봉수군이 해체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조선시대의 봉수로는 모두 5개 노선의 直烽으로 이루어지고, 위치에 따라 京烽燧, 沿邊烽燧, 內地烽燧의 3종류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봉수의 횟불 수는 평상시에는 1개의 횟불로 하고, 적의 形迹이 나타나면 2개의 횟불(二炬), 적이 국경 선에 접근하면 3개의 횟불(三炬), 적이 국경을 침범하면 4개의 횟불(四炬), 적과 접전하면 5개의 횟불(五炬)을 올리게 하였는데, 제주도의 해안에서는 약간 방법이 달랐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대	횟 수	구 분	1회	2회	3회	4회	5회
고 려	4	평상시	보통 위급 (적이 출현)	경세가 긴급 (적이 국경에 접근)	경세가초긴급 (전쟁의 상황)		
조 선	5	내 지	*	적의 행적이 나타남	*	적군이 국경에 침범 할 때	적과 접전(교 전)을 할 때
		해 안	태평과 평 화가 계속 될 때	바다위에 적(황당선) 이 출현	적선이 해안선에 접근할 때	적선과 우리 함대가 접전할 때	적군이 육지에 상륙
		제 주	평상시	적선(황당선) 의 형적이 나타남	적선이 국경에 접근할 때	적선이 경계를 침범할 때	적과 접전(교전) 할 때

봉수의 중요성이 인식될수록 그것을 차지해서 맡아보는 부서가 문제였다. 중국에서는 兵部의 職方郎 중 員外郎이 烽候를 맡았다. 그 임무는 적의 진지나 거처를 수색해 살피기 위해 봉화를 올리던 敦臺와 斥堠를 관리하는 것으로 행정적인 것은 병부의 소

관사령이며, 여기에서 임무를 관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의 경우 병조의 武備司가 봉수를 관장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수령·병사·수사·도절제사·순찰사 등 모든 군사책임자가 그 임무를 맡았다.

여기서 관찰사의 수령은 행정상의 책임자로서 실제의 직무를 맡았다가 보다는 겸임 직무였던 군사책임자 직무의 일환으로 담당하였다. 수령은 봉화군이나 伍長 즉 駕考를 감독·감시하여 이와 연대책임을졌다.

봉수대에 직접 배치되어 있는 자는 하급장교인 오장과 봉줄인 봉수군으로서 그들은 모두 봉수대 근처에 거주하는 자를 임명하고 다른 군역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오직 망보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였다. 오장은 봉수군과 같이 생활하면서 봉수대의 이상 유무를 수령, 즉 頸將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를 보고받은 수령은 유사시에는 즉시, 무사시에는 월마다 관찰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매 분기 말인 3월·6월·9월·12월에 병조에 보고하였다.

이때 봉수의 연락이 끊어졌을 경우, 수령은 곧 그 사유를 병조에 보고해야 하는데 관찰구역 안에서의 봉수의 전보 송신과 시설 상태가 양호한가의 여부는 수령의 공적과 과실에 직접 관련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벌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연변봉수는 봉수대마다 군사 10명과 감고(오장) 2명, 내지봉수에는 군사 6명과 감고 2명을 배치하여 봉화를 올리되, 혹 구름이 덮여 어둡거나 바람이 세차서 연기나 불로 신호가 통할 수 없을 때에는 봉수군이 차례로 달려가서 보고하게 되어 있다.

京烽燧인 목멱산봉수에는 군사(봉수군) 4명과 伍

員 2명이 있었다. 이는 목멱산이 중앙봉수소이며 다른 봉수와는 달리 5개의 봉수소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볼 수 있겠다.

경봉수에는 병조에서 따로 사람을 배치하여 목멱산봉수를 바라보고 있다가 무사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침 승정원에 보고하여 임금에게 상주하게 하고, 변란이 있으면 밤중이라도 곧 승정원에 보고하였다.

중국에서 봉화는 狼煙으로서 變事가 있을 때 신호로 올리던 불인데, 이리 랑(狼)이란 글자가 있는 것은 뱀감이나 셀 속에 이리의 뚫음을 섞어서 불을 피우면 연기가 뚝바로 올라간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리가 많지 않아서 그 뚫음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대신 쇠똥이나 말똥을 구해 섞어서 썼고 후대에는 연대에 연조(아궁이)를 만들어 쓰다가 내지봉수 중의 중요한 곳에는 연통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이 불을 전달하던 시설을 桔槔(길고)라 하였다. 이것은 높은 땅 위에 버팀목(기둥이나 立木)을 세우고 거기에 지렛대같이 긴 나무를 달아 그 끝에 뱀감을 넣는 바구니를 매달아 두었다가 적이 오면 거기에 불을 붙여 점화하여 오르내리게 하여 신호하는 장치이다.

국경 즉 변경의 초소에서 올린 봉수가 차례로 전보되어 경봉수인 서울 목멱산 중앙봉수소에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점은 당초부터 큰 관심거리였다. 시대와 거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정상적인 봉수대의 설비와 성설하고 책임감 있는 봉수군이 봉수대를 맡아서 헛불을 듣다면 그 소요 시간을 算測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변방에서 횃불을 올리는 시간은 대개 한낮이었으므로 어느 노선이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낮에 올리는 연기 즉 주연이었고, 서울에 가까워지면 밤에 올리는 횃불 즉 야화로서 한밤에 경봉수인 목멱산봉수에 도달하였다.

조선 세종 1년(1419)에 봉수가 성실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몰래 변방에서 시험적으로 봉수를 올리게 해보니, 과거 5~6일에 서울에 이르면 것이 이제는 1개월에도 통하지 않음을 걱정하며, 각별히 깨우쳐 밝히자는 의견이 나온 것을 보아도 초기의 봉수의 소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六韻의 경우, 처음 국경에서 오후에 봉화를 올리면 저녁 해질 무렵에 경봉수 직전 봉수인 아차산봉수에 도달했다고 한다. 오후 12~13시에 출발하여 17~18시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면 5~6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를 목멱산 직전 봉수대인 아차산봉수대에서 종성까지의 거리를 550km(약 1,400리)로 측정할 때 1시간 당 110km를 전달했다는 계산이 되어 당시의 그 어느 통신수단 보다도 신속한 것이었다. 또 영조 46년(1770) 7월에는 봉화를 올리는 시각을 매일 해질녘으로 정하여 1,000여리를 연이어 용하면 아차산까지의 소요시간이 12시간 정도여서 경봉수의 시한에 맞추지 못하였으므로 좀더 일찍 火底에서 봉화를 올리므로써 단천을 훨씬 지나 철령에 도달하여 야화로 서로 응하도록 조치하라고 하였다.

국경지방의 연대에서 해가 저물 무렵에 봉화를 올린 시간을 16~18시경으로 가정하고 경봉수대에 도착한 시간을 초경에서 3경 사이인 23~01시로 본다면 봉수의 전보가 다른 어떤 통신수단에 비해서도 신속한 방법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봉수가 제대로 소통이 안되고 中折, 不報되는 문제가 있었다. 直烽·間烽을 막론하고 그 전보가 중간에서 끊어지거나, 다음 봉수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평상시처럼 1해만 올리는 일 등이 생겨서 그 대책이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이 중 세번째의 일은 적변이 있어도 평일처럼 무사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 전보를 믿던 사람들에게 무익할 뿐 아니라 피해가 커서 그 폐지론까지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성종 9년(1478) 1월 28일 전라도 순천부 돌산포 및 2월 2일 경상도 남해현 적량에 사변이 있었는데도, 역시 평시의例에 따라 1해만 올린 일을 따져 문도록 지시하였다. 성종 22년(1491) 1월 여진이 함경도 경흥 造山堡에 침입했을 때 경흥부사 羅嗣宗이 원군도 없이 외로히 순절하였으며, 연산군 1년(1495) 8월 전라우도 남도포에 왜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도 不報하였다. 같은 해에 野人이 三水郡에 침입하였을 때에도 불을 올리지 않아 해당 수령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봉수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하여 연산군 10년(1504) 11월 제도봉수를 폐지하였으나, 중종은 즉위한(1506년) 바로 다음달인 10월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나 중종 5년(1510) 4월 삼포왜란이 일어나서 웅천성이 함락되고, 6월 24일 안골포에 왜란이 있어도 봉화를 올리지 않았다. 중종 8년(1513) 왜적이 인천·남양·충청과 전라 해안에 침입하여 20여일 체류하였어도 봉화를 올리지 않아 조정의 큰 근심 거리가 되어, 중종 14년(1519) 8월 병조로 하여금 미루어 살피게 하였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또 중종 17년(1522) 7월 전라 추자도에 왜변이 있어도 봉수가 올려지지 않아서 근래 남변에 사변이 있어도 봉

수로 알려지지 않은 일을 자세히 살펴서 고하게 하였다. 10년 후인 중종 27년(1532) 9월에 많은 적이 침범했을 때에도 4해, 5해를 드는 일이 없이 평시처럼 1해만을 들은 일이 수령이 계으른 탓이라하여 군령으로 다스리게 하였다. 중종 39년(1544) 4월 고성 사량도 왜변이 일어나고 8월 왜적이 전라도에 출현했어도 평일과 같이 1해만을 올렸다. 명종 1년(1546) 9월 순천 방담진에서倭奴와 접전했는데도 평안하다는 1해만을 올려 서울에서 방담진에 이르는 노선의 봉수인을 차례로 추궁하여 따져 문도록 지시하였다. 명종 7년(1552) 5월과 다음해 5월 제주도에 왜변이 있었으며, 그 이듬해 7월 왜구가 제주도에 출몰하여 제주도에서 나무를 살라 봉화를 올리면 황어천 등에서 볼 수 있는데도 봉수가 오르지 않았다.

또 명종 10년(1555) 5월 전라도 영암 달량포에 을묘왜변이 일어나고, 다음해 6월 제주목사 김수문이 침입한 왜선 5척을 태웠고, 명종 12년(1557) 7월에는 남쪽 해안의 왜구를 막기 위해 제주목사, 전라감사와 병수사 등에게 왜적의 방어 기구와 봉수의 조치를 충분히 하도록 명하였다. 또 이보다 앞서 명종 9년(1554) 몇차례 함몰당한 일이 있었으나 봉수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선조 16년(1583) 4월에는 윤곡이 十萬養兵說을 건의했으나, 선조 20년(1587) 3월 왜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암행어사를 남쪽 지방에 보내면서도 방비 대체는 허술하였다. 선조 25년(1592)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봉수가 모두 끊어지고 선조 30년(1597) 1월 정유재란이 일어났으나 2월까지도 봉수가 오르지 않았다.

이처럼 중도에 봉수를 사용하지 않고 끊어짐이 심하여 기능이 약화되고 虛設化했다하여 봉수의 無用論과 봉수의 폐단을 주장하는 일이 생겼다. 더구나 봉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이런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선조 38년(1605) 4월 摺撥制度가 설치되었다.

이렇듯 봉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무용론까지 제기된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높은 산과 험하고 가파른 봉우리의 철첨산중에서 근무하는 악조건이다. 즉 깊고 힘한 산골짜기에서의 업무적인 연락이나 생활의 불편과 고독, 바람과 눈과 비 또는 재앙으로 인해 생기는 변고 등 뜻밖의 자연현상, 봉수대가 산꼭대기에 있어 아침 저녁의 구름과 안개 및 울창한 숲으로 인해 봉수가 잘 전달되지 않는 점, 사나운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느껴지는 공포와 불안, 결혼에 지장이 많아 입는 피해 등이다.

둘째로, 봉수군의 사기저하를 들 수 있겠다. 七般賤役에 속하였던 봉수군은 신분상의 친대를 받았다. 또 대우가 소홀하여 생활이 어렵고 봉수대의 재정은 자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논밭을 경작하였으나 식량이 부족한 일이 많아 봉군으로서 도망하는 자가 많을 정도였다.

셋째로, 태평시대가 계속되는데다, 늘 같은 일만 반복하는데서 오는 나태를 들 수 있다. 같은 일을 같은 시간에 반복하다 보니 요령을 부리게 되어 앞의 봉수를 보지 못하고 대개 짐작으로 우선 平安의 1회만을 전달해 버리는 일이 많았고, 봉수의 시설이 거리에 비해 멀고 드문 것도 원인으로서 고려시대 이후 계속 연대와 봉수대 숫자가 늘었다. 더구나 잘 못 전보하는 일도 있는데, 가끔 실화한 것이 봉수로

잘못 이해되어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즉 영조 12년(1736) 괴산 능한산 연대 근처의 절(寺)에서 불이 난 것을 봉줄이 변고를 알리는 봉화로 착각하여 즉시 화재를 들어 차례로 전보해 나간 일이 있을 정도였다.

봉수의 기능은 변경지방에서 일어나는 賊徒들의 반란 및 각종 급박한 정세를 전보로서 중앙에 전달하는 정치적·군사적 목적과 시급히 변경의 상황을 전보하는 통신면에 중요 임무가 있었다. 驛傳制가 역과 역마를 이용하여 관리의 업무와 서류, 특히 기밀문서의 전달과 여행을 도왔다만, 그와 함께 2대째 주었던 봉수는 그 목적에서 특성과 한계성이 있었다.

봉수제가 악화되고 그 기능이 정상적 구실을 못하게 되자 임진왜란 후에 과반제도가 등장하였고,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驛站으로 駕撥과 步撥을 두었다. 그리고 조선 말엽 근대적 통신시설인 전신전화가 설치되자 봉수의 존재 가치는 더욱 회박하게 되어 고종 31년(1894)에 봉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봉수제도는 통신수단의 전통적 원조라는 점과 국방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발 표

천림산 봉수의 연혁과 위치비정

발표 : 조병로(경기대학교 교수)

토론 : 이상태(국사편찬위원회 고종세사실장)

天臨山 烽燧의 沿革과 位置 比定

조 병로(경기대학교)

1. 머리말
2. 천림산봉수터의 발견경위와 위치문제
3. 천림산봉수의 연혁과 위치비정
 - 1) 천림산봉수의 유래와 면천
 - 2) 천림산봉수의 위치비정
4. 맺음말

1. 머리말

최근에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일명 月川, 月峴 또는 달이내고개)에서 조선시대의 봉수터라는 유적이 발견되어 학계는 물론 지역향토사 연구가들에 의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향토문화유적의 계승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향토문화유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궁핍한 성남시의 경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화유적이다. 이른바 天臨山봉수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천림산봉수터는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초기에 廣州에 설치된 穿川山烽燧로서¹⁾ 서울 木覓山烽燧와 東萊 多大浦 鷹峰을 잇는 중요한 군사통신로이다.

조선왕조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驛站²⁾이라는 교통기관과 더불어 烽燧³⁾라는 군

1) 『世宗實錄地理志』 권 148, 廣州牧

2) 趙炳魯, 『朝鮮時代 駛站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0.

사통신망을 根幹으로 왕명과 변경의 긴급한 군사상황을 신속히 중앙의 兵曹와 國王 그리고 지방의 郡縣 및 鎮堡에 전달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국가의 動脈이자 中樞神經이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봉수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榜撻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써 漫境의 警急한 군사정세를 전달하는 것으로, 전국의 5개 노선에 直烽과 間烽으로 조직되었다. 봉수의 구조는 煙臺와 榜撻臺(烟窟라고도 함) 및 煙箭으로 되었으며, 부대시설로 壘壘木柵 및 武器庫 그리고 봉수군의 숙소 등이 있었다.

이러한 봉수터가 새삼 왜 우리의 관심거리인가? 오늘날 우리는 세기의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른바 뉴밀레니움 시대의 도래이다.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鏡轉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농업사회에서의 정착성과 토지는 삶의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앞으로 뉴밀레니엄시대의 가치는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이 그의 이동성과 함께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과 국가전략에 있어 커다란 몫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남북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과 통일이 어느 때보다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

3) 南都株, 「朝鮮時代의 榜撻制」,『역사교육』23, 1978.

-----, 「朝鮮時代 軍事通信組織의 發達」,『한국사론』9, 1981.

方相鉉, 「朝鮮前期의 榜撻制-국방상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사학자』14, 1980.

허선도, 「近世 朝鮮前期의 榜撻(상.하)」,『한국학논총』7.8, 1985.1986.

한국군사연구실,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編』, 육군본부, 1968 등이 선도적으로 봉수에 관한 연구를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이원근, 이준희, 주영웅, 박상일, 김기섭 등의 현장연구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어 봉수연구 붐을 조성하였다.

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농업사회에서의 국가적 군사용신 시스템적인 봉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남북을 이어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남북한 봉화재현의 문화공동체적 필요성도 한층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욕구증대, 현대적 정보통신 기술과 전통과학의 접목, 불의 신호체계화에서 전자신호체계로의 발전 등 현대정보사회에서의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식사회에서의 문화시민으로서의 시민적 자질향상과 나아가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유적의 관광상품화, 그리고 교육화 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천림산 봉수의 위치 확인과 유적 발굴 및 문화재 지정 그리고 발굴,복원은 하루 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의 봉화학술세미나는 학술적으로나 지역문화창달에 있어서나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행사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II. 천림산봉수터의 발견 경위와 위치문제

1) 발견경위

요즈음 성남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천림산봉화터가 발견되어 언론과 지역사회의 관심거리로 대두된 것은 1995년부터 성남시에서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어 왔던 향토문화행사로서 굳게 자리잡은 이른바 '통일기원 천림산봉화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부 지역 향토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은 있었다고들 하지만 이를 구체적, 학술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1996년 7월 내일신문(성남판)의 역할이 커다고 평가된다. 당시 성남지역에서는 1995년부터 통일기원천립산봉화제 행사의 하나로 고등동 인릉산에서 재연해 왔었다.

그런데 금토동에 거주하고 있는 남원윤씨 17대손 윤효상씨가 “천립산봉수가 위치하고 있는 月川峴이 바로 현재의 금토동”이라는 남원윤씨족보에 의한 제보와 강이봉씨의 증언 즉 “본래 봉돈이 5개였는데 6.25 이후 마을에 새로 들어온 모씨가 밭을 일구면서 봉돈 2개를 갈아버렸다”는 증언과 더불어 봉수를 관리했던 봉수군이 강기수씨였으며, 그 일가가 봉수터 아래 평평한 곳에 집을 짓고 살다가 봉수제 폐지 이후 1895년부터 살던 집을 뜯어 산아래 마을 쪽으로 이사하여 살았으며 현재 강기수씨의 양자인 강형신씨가 제주도 어디엔가 살고 있다”라고 한 증언에 의해, 1996년에 봉화제의 재연장소를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1999년 7월 필자가 다시 증언을 확인하였음. 비디오 참고). 이에 통일기원 천립산봉화제 추진위원회측과 (대표 고희영) 내일신문 취재팀의 고증을 요청받은 필자(경기대 사학과 교수, 한국교통, 통신사 전공)가 1996년 7월 현장을 답사하고 관련사료를 검토하여 청계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금토동이 천립산봉수 유적지로서 역사적, 자리학적인 면에서 볼 때 고등동 보다 더 적합한 곳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합의에 따라 봉화제 재연장소를 고등동에서 금토동으로 옮겨 오늘날까지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⁴⁾

4)『성남내일신문』 1999년 7월 24일자, 8월 7일자 참조.

2) 여러 異說의 粉粉

그런데 일부에서는 금토동 천림산봉수터가 원래의 위치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 이완재교수는 정확한 역사적 사료에 대한 검토없이 내곡동 뒷산이라고 하였으며⁵⁾ (어느 산인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음, 인릉산 또는 대모산?), 일부는 口傳에 따라 현재의 심곡동 仁陵山이라고도 한다.⁶⁾ 또 어떤 사람들은 금토동봉수터는 봉수터가 아니고 기우제를 지냈던 기우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에서는 일부 청계산 등산객들의 傳言에 따르면 청계산에도 봉수터가 있었다고 한다.⁷⁾ 물론 정확한 역사적 고증이나 현지조사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 민간에서 전해내려 온 얘기에 근거한 것 같다. 천림산봉수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우선 기우제단에 대해 검토해 보자.

기우제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내리기를 비는 제사의식의 하나로써 일찍 농업사회인 고대시대부터 있어 왔다. 특히 단국신

조병로,『山城文化』6호, 「금토동 천림산 봉화터를 답사하고 나서」, 성남문화원 1997.7참조.

5)이완재,『성남지역의 역사』, 민족문화사, 1996. 참조

6)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광주성남지역의 지명자료집』에 개재된 『한국지명총람』(1985)에 의하면 심곡동에 봉화터 있다고 하였으며, 경기도『지명유래집』(1987)에서는 인릉산이 심곡동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성남시사』(1993)에서는 수평구 고등동 옛 들판에 마을 뒷산 꼭대기에 봉화터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한국의 청자와 봉수』(1989)에서는 반대로 성남시 상적동과 고등동사이의 천림산이라 하고, 금토동에 달라내

고개 즉 月臺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7)남도영,『烽燧臺址』,『서울육백년사-문화사적면』(1987)에서 청계산으로 보고 명칭도 '청계산봉수대'라고 추정한 바 있다.

화의 桓雄이 風伯, 雨師, 雲師를 거느리고 하강했다는 내용은 인간사회에서 비를 포함한 자연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 태조는 종묘와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냈으며⁸⁾, 태종대에 이르러서는 종묘, 사직, 원단 그리고 명산대천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기우제를 거의 배년 거행하였으며⁹⁾, 국왕의 親祭를 포함, 문무백관들이 대신주관하였다. 대부분 기우제는 名山, 大川, 宗廟, 社稷 그리고 北郊의 龍神들에게 지내는 것으로 때로는 지방관이 대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광주지역에서 기우제를 지냈는지의 여부는 자료상 자세하게 전하지 않으나 기우제를 지낸 흔적은 찾을 수 있다. 『海東地圖』 廣州府 (18중업)에 따르면 廣州古邑 주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단지 黑丹山 渡迷津 부근에 祈雨祭壇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점단산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突馬面 왼쪽에 祈雨祭壇 표시가 있어 현재의 고기리·대장동지역의 대장산에 있었지 않나 추정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청계산 주변이나 심곡동 주변의 현릉·인릉산 및 대모산 주변에는 어떤 표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계산 차락에는 대부분 月川峴봉수, 天臨山봉수 또는 穿呼川봉수 등의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내곡동 뒷산이나 인릉산설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언급된 사료를 근거로 판단한다면 역사적 사실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다음 장에서 자세히 고

8) 『太祖實錄』 권5, 太祖3년 5월 甲辰.

9) 『太宗實錄』 권1, 太宗1년 4월 甲戌에는 新都인 한양의 明德殿에서 기우제를 지냈고, 『太宗實錄』 권9, 太宗5년 5월 壬寅에는 종묘·사직·원단·명산대천에서, 그리고 『太宗實錄』 권15, 太宗8년 5월 壬午에는 백악·북악산 및 한강에서도 기우제를 지냈다.

증하기로 하겠다.

III. 천림산봉수의 연혁과 위치비정

1) 천림산봉수의 유래와 변천

천림산봉수는 언제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었을까? 우리나라의 봉수는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설치된 것으로 보이나 옛 광주지역인 성남시에는 기록상 穿川山봉수가 최초이다. 이 천천산봉수가 고려시대에도 설치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천천산봉화에 관한 기록은 世宗5년(1423) 3월 26일(丁丑)에서 서울 남산(목멱산 봉수라 함)에 최초로 봉화 5군데를 설치한 병조의 다음과 같은 啓聞에 보이고 있다. 즉

“서울 남산의 봉화 다섯곳을 본조가 진무소와 더불어 산에 올라 바라보고 불을 들어 서로 조준한 뒤에 땅을 측량하여 설치하였는데 그 지명과 내력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록해 올립니다. 동쪽의 제1봉화는 明哲坊의 洞源嶺에 있는데, 楊州 鐵嶺山의 봉화와 서로 마주쳐 합길도와 강원도로부터 오게 되고, 제2봉화는 誠明坊의 동원령에 있는데, 廣州 穿川의 봉화와 서로 마주쳐 경상도로부터 오게 되고, 제3봉화는 훈도방의 동원령에 있는데, 무악 동봉과 서로마주쳐 평안도로부터 오게 되고, 제4봉화는 明禮坊의 동원령에 있는데, 무악 서봉과 마주쳐 평안도·황해도의 해안가로부터 오게 되고, 제5봉화는 好賢坊의 동원령에 있는데, 양주 개화봉의 봉화와 마주쳐 충청도·전라도의 해안가로부터 오게 됩니다. 위

의 봉화를 들어 서로 마주치는 곳이 연대가 오래되면 혹 변동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청권대 한성부로 하여금 대를 쌓고, 표를 세워 서로 마주치는 지명과 봉화를 드는 式例를 기록하여 둘 것입니다.”¹⁰⁾

라고 한 대서 천천산봉수의 명칭이 최초로 보이고 있다.

조선은 신왕조 개창 이후 고려 開京에서 漢陽으로 천도한 이후 고려의 법제를 계승하면서도 한양 중심의 정치 및 교통체계를 재정비하였다.¹¹⁾ 봉수제도 역시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고려의 봉수노선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이다.¹²⁾ 조선의 통치구조가 태조·태종을 거쳐 세종과 성종대에 이르러 경국대전체제로 완비된 것으로 볼 때 봉수제도는 세종대에 이르러 대대적인 정비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천천산봉수도 世宗5년(1423) 남산의 목멱산봉수 설치와 함께 5대노선의 하나인 제2거 봉수노선으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보면 천천산봉수의 설치시기는 太宗대부터 世宗5년(1423)이전이라고 판단된다. 이후 천천산봉수가 천림산봉수로 개칭되기까지의 변천을 사료에 의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世宗實錄地理志』, (세종14:1432)廣州牧에 따르

10) 『世宗實錄』 권19, 世宗5년(1423) 3월 丁丑.

11) 참고, 『朝鮮時代의 農耕研究』, 동국대 박사학위, 1990 참조.

12) 『高麗史』 권81, 兵志1, 穀宗3년 8월 및 『高麗史』 권83, 兵志3, 看守軍에 의하면, 거화법, 봉수군 배치와 충악산봉수소 설치 및 봉수군 배치 기록이 전하고 있어 상당한 봉수노선이 확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자세한 전국적인 봉수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

면¹³⁾, “烽火一處 穿川山在州西 南准龍仁石城 北准京城木覓”

라 하여, 광주의 서쪽에 있으며 남으로 용인의 石城 으로부터 전달받아 북쪽의 京城 木覓烽燧에 전달하고 있다.

B. 『新增東國輿地勝覽』(中宗25:1530) 廣州牧, “穿川峴烽燧 南應 龍仁縣寶蓋山北應京都木覓山第二峰”

라 하여, 中宗 25년(1530) 이후에는 세종대의 穿川山烽燧가 穿川峴烽燧로改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¹⁴⁾, 용인의 寶蓋山烽燧를 받아 木覓山 제2봉수에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천천산에서 천천현으로의 개칭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개 봉수는 山 또는 峴(嶺)에 설치되고 있는 곳을 불 때 천천산과 천천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결국 穿川山능선에 穿川峴이 있다고 판단된다.(穿川峴에 대해서는 穿川峴路와 관련 後述)

C. 『重訂南漢志』(憲宗14:1846)廣州府 烽燧條 “天臨山烽燧 在大旺面即古穿川峴也南應龍仁寶蓋山之嶺南傳烽北應京都木覓山之第二峰 烽軍二十五名保七十五名”

D. 같은 책, 山川 月川峴條에 月川峴은 일명 懸川

13)『世宗實錄地理志』는 『世宗實錄』이 편찬된 端宗2년(1454)에 만들 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鄭杜熙의 「조선초기 地理志의 편찬」(1, II), 「역사학보」69.70, 1976에 따르면 世宗14년(1432)에 편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필자도 후자의 견해를 취하였다.

14)『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된 시기가 成宗12년(1481)이고, 개편된 시기가 中宗25년(1530)이기 때문에 穿川山烽燧가 穿川峴烽燧로 개명된 것은 成宗12년(1481)이전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라 한다. 輿地勝覽에는 穿川峴으로 나와 있으며, 清溪山과 天臨山 중간에 있다.

E. 같은 책, 山川 天臨山條에는 천림산은 大旺面에 있으며, 서쪽으로는 清溪山과 연접해 있고 위에 峰巒臺가 있다.

라 하여, 憲宗 14년(1846)이전에 천천현봉수가 천림산봉수로 개칭된 사실이 보이고 있다. 언제 천천현봉수가 천림산봉수로 개칭되었을까? 이에 대한 기록 역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편년자료를 고증해 본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憲宗 14년(1846)보다 117년 앞선 英祖 5년(1729)의 기록에 천림산봉수의 명칭이 보이고 있다. 즉 英祖 5년(1729) 6월 16일에 木覓山과 鞍峴봉수에서 雲霧를 평계로 봉화를 거화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 兵曹가 봉수장과 봉수군을 불러 치죄하였는데,

"(전략) 또 목멱산에서 이미 봉화를 들지 않았는데도 廣州의 天臨山과 양천의 개화산봉수에서는 일기에 날씨기 청명하여 서로 전해 받았다고 일컬었으므로 이 두곳의 봉수인들에게도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나 뒤에 천림산봉화는 목멱산에서 전해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버려 두게 하였고 개화산은 목멱산에서 서로 전해 받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먼저 봉화를 칠희했다는 것으로 개화산 봉수인만 치죄하였다"¹⁵⁾

라 하여, 천림산봉수군은 다행히 치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결국 憲宗 14년(1846) 洪敬謨가 쓴 『重訂南漢志』의 기록에 의하면 天臨山

15)『英祖實錄』 권22, 英祖 5년(1729) 6월 16일.

烽燧는 廣州府 大旺面에 있는 清溪山과 天臨山의 중간인 月川峴에 위치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穿川峴이라고 하였으며, 당시에는 봉수군 25명과 봉수군보인 75명이 편성되어 봉수군을 助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조선초기의 천천산봉수가 천천현봉수를 거쳐 후기에는 천림산봉수로 개칭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사료 F의 『廣州府邑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F. 『廣州府邑誌』(憲宗11:1843)烽燧條, “天臨山 在州西三十里大旺面 卽古穿川峴 南屬龍仁寶蓋山之嶺 南傳烽 北應京都木覓山之 第二烽”

그런데 이 천림산 봉수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었다. 月川峴烽燧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金正浩의 『大東地志』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G. 『大東地志』(哲宗13:1862) 廣州府 烽燧條, “天臨山 一云 月川峴 西三十里” 같은 책, 山水條, “月川峴 舊云穿川峴”.

라 하여, 천림산봉수는 월천현이라고 하는데, 월천현은 관 조선초기에 불리었던 천천현봉수라는 것이다. 결국 천림산봉수는 초기의 천천산봉수→천천현봉수→월천현봉수→천림산봉수로 변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후에는 천림산봉수 명칭이 일반화하게 되었다(사료 H.J 참조). 시대에 따라서는 穿川峴烽燧라 불리기도 하였다.(사료I 참조)

H. 『萬機要覽』권1, 軍政篇 烽燧條, … “木覓山烽燧 自東至西五炬 東第一 準成鏡江原兩道來 楊州峨嵯山

烽 第二 準慶尙道來 廣州天臨山烽.... 第二炬 初起東萊多大浦鷹峰 自梁山,彥陽,慶州,永川,新寧,義興,義城,安東,禮安,榮川,奉化,順興,豐基,丹陽,淸風,忠州,陰城,竹山,龍仁,廣州通于天臨山烽…已上 直烽四十處 間烽一百二十三處”(목멱산봉수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5개의 헛불이 있는데, 동쪽의 제일은 함경·강원의 두 도에서 양주의 아차산 봉수로 온 것을 받으며…제2기는 동래·다대포의 응봉으로부터 시작하여 양산·언양·경주·영천·신녕·의홍·의성·안동·예안·영천·봉화·순흥·풍기·단양·청풍·충주·은성·죽산·용인·광주의 천림산 봉수로 통한다. 이상 직봉은 40군데이며, 간봉은 123군데 있다.)

L 『東國輿地備攷』(高宗)2권, 漢城府 烽燧條, “…목
멱산봉수:동쪽의 제1봉은 양주아차산에 용하는데 이
것은 함경·강원·경기도에서 오는 봉화요, 제2는 광주
천천령(穿川嶺; 天臨山이라고도 함)에 용하는데, 이것은
경상·충청·경기도에서 오는 봉화이며,…”

에서 알 수 있듯이 천천현봉수는 穿川嶺烽燧라고
불리었다.

J. 朝鮮總督府 中樞院, 『烽燧調查表』(국사편찬위원회 소장)에 따르면 일제시기각 지방의 봉수를 조사하였는데 경성에서 부산까지의 경성 제2거노선상의 天臨山條에서

“天臨山 一名穿川嶺 大旺面深谷里 廣州郡西南三十里 木覓山南四十里”

하여 천림산봉수는 일명 천천현봉수라고 하는데 大旺面 深谷里에 있으며, 광주군 서남 30리, 목멱산 남쪽 40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다. 이 천림산 봉수는 용인 蒲谷面 金塘里에 있는 寶蓋山(일명 石城山)烽燧로부터 전달받아 최종 목적지인 남산 木覓山烽燧로 전달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천림산봉수는 大旺面 深谷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종래의 穿川峴 또는 月川峴에 있다는 것과는 어떤 역사지리적 관계가 있으며, 세간에 논의, 중언되고 있는 금토동위치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따라서 천림산봉수가 구체적으로 행정구역상 또는 역사지리적으로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2) 천림산봉수의 위치비정

① 봉수노선상의 위치

천림산봉수의 전국적인 봉수노선상의 위치는 어떠한가? 앞에서 언급한 世宗 5년 2월의 남산봉화설치 사료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 남산의 목멱산봉수 제2봉에 연결되는 第2炬 烽燧路線上에 위치하여 남쪽의 경상도로부터 오는 봉수를 연결해 주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萬機要覽』軍政篇, 烽燧條에서 상세히 전해 주고 있는 바, 東萊 多大浦 鹿峰에서 初起하여 梁山, 彦陽, 慶州, 永川, 新寧, 義興, 義城, 安東, 禮安, 梁川, 奉化, 順興, 豊基, 丹陽, 清風, 忠州, 險城, 竹山, 龍仁, 廣州 天臨山으로 通達되는데 直烽이 40처이며, 間烽이 123처라고 하였다. 이하 『大東地志』, 『大東輿地圖』 등에 나타난 第2炬 봉수노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初起: 鷹峰(부산 동래)→龜峰(石城)→荒嶺山→鶴鳴山→渭川(양산)→夫老山(언양)→蘇山(경주)→高位→蝶布峴→硃砂峰→方山(영천)→永溪→城隍堂→城山→仇吐峴→餘音洞(신녕)→吐乙山(의홍)→甫知(只)峴→繩木山→繩院(의성)→大也谷→城山→鶴卵峴→馬山→甘谷山(안동)→峰枝山→開目山→祿轉山(예안)→昌八來山(영천)→龍古(姑)山(봉화)→堂北山(안동)→沙郎堂(순흥)→城內山(영천)→望前山(풍기)→竹嶺山(순흥)→所(金)伊山(단양)→吾峴(峙)(청풍)→心項(충주)→馬山→加(迦)葉山(음성)→望夷城(望耳山)(충주)→巾之山(죽산)→石城山(寶蓋山)(용인)→天臨山(평주)→木覓山 第2峰,(이상 45봉수)

② 名稱의 变遷에서 본 位置比定

名 称	位 置	出 處	備 考
穿 川 山	州의 서쪽	『世宗實錄地理志』	世宗14(1432)
穿 川 峴		『新增東國輿地勝覽』	中宗25(1530)
天 臨 山	州의 서쪽 30리	『廣州府邑誌』	憲宗11(1843)
天 臨 山	大旺面 淸溪山과 天臨山의 중간인 月川峴	『重訂南漢志』	憲宗14(1846)
天臨山(月川峴)	서쪽 30리	『大東地志』	世宗13(1862)
天 臨 山	大旺面 深谷里, 廣州面 서남쪽 30리	『鮮境調查表』	조선총독부

결론적으로 말해 천림산봉수는 廣州의 서쪽 大旺面에 있는 清溪山과 天臨山의 중간인 月川峴(또는 穿川峴) 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도 주민들의 口傳으로 전해져 온 일명 달래내고개의 위치와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 현재의 金土洞(옛 금현동) 위치가 역사적 사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③ 道路交通史的 측면에서 본 위치

가) 良才驛-樂生驛의 驛路와 穿川峴

조선시대 郡城으로부터 양재역을 지나 낙생역에 이르는 도로는 언제부터 개설되었으며, 여기에 역참이 언제부터 설치되었을까? 이 문제는 도성에서 낙생역을 지나 삼남지방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또 그 도로교통 노선에 穿川峴이 위치하고 있다면 천천현의 역사적 유래와 천천산 또는 천천현봉수의 유래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高麗史』兵志, 駕驛條에 의하면 開京에서 南京 즉 조선시대의 郡城에 이르는 驛路는 青郊道소속의 15 역참으로 青郊(개성)-通波(임진)-馬山(봉성-파주)-碧池(고봉-고양)-迎曙(남경)-平理(덕수-고양)-丹棗(적성)-淸波(남경-한성부)-蘆原(남경-한성부)-幸州(고양)-從繩(수안-통진)-金輪(수주-부평)-重林(인주-인천)-綠楊(견주-양주)이었으며, 또 도성에서 광주에 이르는 길은 平丘道소속의 30역참가운데 平丘(남경-양주)-奉安(광주)-娛賓(양근)-田谷(지평)-白冬(지평) 등 이었다. 한편 廣州道소속의 15역참중 德豐(광주)-慶安(광주)-長臺-安榮-南山(광주-양천)-良樟(파주-과천)-金領(용구-용인)-佐贊(죽산)-分行(죽주-죽산)-五行(이천)-安利(이천)-無極(음죽)-遜安(음성-충주)-丹月(충주)에 이르는 역참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¹⁶⁾. 여기서 고려시대에 설치된 역참가운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대부분 漢城(고려의 남경이 한

16) 고려시대 역참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内藤尚輔, 「高麗驛傳考」, 「歷史와 地理」, 34-45, 1934; 「朝鮮史研究」, 1961제수록,에 의거 하였다.

성으로 개칭)에 그대로 영서역, 청파역, 노원역, 평구역으로 존속되었으며, 도성에서 광주에 이르는 도로에도 양재역, 봉안역, 덕풍역, 경안역, 남산역 등이 존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양천도 이후 도성에서 광주를 거쳐 용인-죽산-이천-음죽-충주에 이르는 이 길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부분적인 개편을 통해 조선시대의 역로를 형성하게 되었다. 단 樂生驛이 고려시대에 설치된 것인지(위의 장가, 안업역 가운데 어느 것이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선시대에 이르러 설치된 것인지 아직 불명하다. 조선시대의 역로는 태조, 태종을 거쳐 절차 확립되었는데 태종 15년(1415) 2월 14일에 병조가 각驛의 거리에 관한 조목을 啓聞한 바에 따르면 周尺 6尺을 1步로 삼고 매 360步를 1里로 삼아, 돈화문을 기점으로 서쪽의 영서역, 남쪽의 양재역, 동쪽의 명석원, 평구역까지 그리고 북쪽의 광시원, 녹양역까지 각 30리를 1息으로 하여 1息마다 1驛을 설치, 사객의 황래와 숙식을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 都城부터 良才驛을 지나 樂生驛에 이르는 역로도 태종시기를 전후하여 확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실록지리지』 분석에 의한 서울 도성에서 광주에 이르는 역로는 경기좌도, 충청도정역, 칠방 소속 하에 良才(과천)-樂生(광주)-駒興(용인)-金嶺(용인)-佐贊(죽산)-分行(죽산)-無極(음죽)에 이르는 교통로였으며, 『경국대전』 반포시기 성종대에는 良才道와 慶安道, 平丘道로 나뉘어 良才道에는 樂生驛(광주)이, 慶安道에는 豊德驛(광주)이, 平丘道에는 奉安驛(광주)이 소속되어 관할되었다. 이로써 보면 조선초기 태종이후 성종대에 도성에서 良才驛을 지나 樂生驛(광주), 駒興驛(용인), 金嶺驛(용인), 佐贊驛(죽산),

分行驛(죽산).無極驛(음죽)에 이르는 驛路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驛路上에 穿川峴이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나) 穿川峴의 지명유래와 穿川峴路의 開路

조선초기 역사기록상 穿川의 명칭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世宗 5년(1423) 2월 26일에 兵曹가 남산의 봉화설치를 보고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남산에는 봉화 5처를 설치하였는데, 동쪽의 제1봉화는 明哲坊에 있으며 양주 아차산과 마주보고, 제2봉화는 誠明坊에 있는데 廣州 穿川의 봉화와 마주치며 제3봉화는 薰陶坊, 제4봉화는 明禮坊, 제5봉화는 好賢坊에 설치하였던 것이다¹⁷⁾.

여기서 광주에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천천봉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정확히 언제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穿川이라는 지명은 늘 穿川峴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당시에는 천천에 큰 고개가 있었고 이 고개를 넘나들면서 하나의 도로가 형성된 것 같다. 천천현에 道路의 개설문제가 대두된 것은 獻陵 참배와 직결되었다. 世宗15년(1433) 7월 22일에 行司正 崔揚善·李揚達·高仲安 등과 集賢殿 신하들과의 논쟁에 보인다¹⁸⁾. 즉 행사정 최양선은 穿川의 큰 길은 獻陵의 主山 來脈이니 불가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하여 이양달·고중안은 비록 큰길이 있다하더라도 산맥에는 해가 없으니 그대로 두자는 견해였다. 이에 대해 집현전에서는 『陰陽節目』, 『輿廢門庭』, 『行道諸訛』, 『地理全書』, 『地理新書』, 『洞林

17) 『世宗實錄』 권19, 世宗 5년 2월 丁丑.

18) 『世宗實錄』 권61, 世宗15년 7월 癸酉.

照體』,『明山寶鑑』,『明堂論』 등 여러 풍수지리학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최양선이 주장한 陽星峽의 人迹論을 비판하고, 斷山截斷論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獻陵主山이 길로 말마암아 끊어진 것은 해롭지 않고 오히려 벌(蜂)의 허리에 해당한다는 논리에서 穿川峴의 도로(길)를 종전대로 두자는 견해를 꾀하였다. 여기서 世宗15년 이전에 이미 서울 都城과 穿川峴을 잇는 도로가 개통되어 人迹이 많이 왕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더욱 다음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천천현도로의 開塞문제가 世宗 26년(1444)에 다시 불거져 존폐논의가 제론되었다¹⁹⁾. 方術家 高仲安은 종전의 입장을 선회하여 世宗26년 7월에 獻陵의 園局안에 있는 여러 무덤을 철거하고 또 主山 서쪽에 있는 재(嶺,峴)의 通路를 막아야 한다고 上言하므로써, 議政府와 禮曹가 제론하게 되었다. 이때 의정부와 예조의 신하들은 高仲安의 주장을 그릇된 私見이라고 치부하였고 또 主山 서쪽의 재(峴)에 대해서 처음에는 도로가 없었는데 부근의 주민들과 守護軍들이 내왕하여 길이 생긴 것아기 때문에 지금부터 엄중하게 禁亂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穿川峴路는 주민들과 수호군이 이용하므로써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천천현로는 국가가 治道政策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인적의 왕래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조선초기에 이르러 都城의 漢陽遷都와 三南地方에로의 왕래로 말마암아 주요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太宗의 사후 獻陵을 축조, 참배하게 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기존의 천천

19)『世宗實錄』 권105, 世宗26년 7월 辛酉.

현로의 開塞論議가 대두되었던 것 같다. 여하튼 현재의 사료에 따르면 穿川峴은 世宗15년 이전에 존재하여 이용되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데 천천현의 開路문제는 文宗대에 이르러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²⁰⁾.

文宗 원년(1450) 10월 20일에 공조판서 鄭麟趾가 “또 穿川峴은 下三道를 行旅하는 지름길인데 나라에서 方術者들의 말을 믿고 이 길을 막은 것은 더욱 未便하니 청원대 옛길을 열어서 行旅에게 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세종께서 일찍이 명하여 이 길을 다시 開通시킨 것을 알고 있는가?”하였다. 이에 정인치가 대답하기를 “다만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通來할 뿐입니다. 그나마 소.말을 가진 사람은 이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고 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천천현의 通路에 대하여 世宗이 傳教한 내용을 추후에 詳考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文宗 1년 (1451) 9월에 文宗이 驪州에 있는 英陵을 암현하고 귀경길에 천천현길을 막은 곳으로 行幸하였는데 이 때에 風水學提調 李正寧, 司藝 尹統, 行副司直 李賢老등을 불러 穿川峴開路여부를 논의하도록 하였다²¹⁾. 문종 역시 이곳의 地勢가 높지 않아서 비록 다시 길을 開通한다고 해도 참(壘)을 이루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世宗당시 開通의 필요성을 인정한 위에서 당초 길을 폐쇄할 때의文案을 詳考하여 의논토록 하였다.

문종대 논의의 초점은 세종때의 術者 崔揭善이 말한 ‘穿川峴은 獻陵의 來賾’이라는 입장에서 길을 막았었는데 문종1년 10월에 이르러 천천현에 다시

20)『文宗實錄』권4,文宗 원년 10월 庚寅.

21)『文宗實錄』권9,文宗1년 9월 庚申.

사람들을 통행하도록 하고 路上에는 薄石을 깔아 地脈의 손상을 막도록 조치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 文宗2년 2월 21일의 기록에 의하면 穿川峴開路와 薄石役事에 船軍 1,000명 중 900명을 동원하여 役事하기도 하였으나²²⁾ 英陵부근의 산맥 보축공사 관계로 일시 지연되다가 端宗1년(1453) 8월 21일에 의정부, 예조의 건의를 수용하여 監役官과 軍人을 동원하여 결국 돌을 깔고 통행하게 되었던 것이다²³⁾. 世祖 대에 이르러서는 清溪山에서 사냥을 하는 등의 일로 천천현에 자주 거동하였다.²⁴⁾

그러나 『世祖實錄』권32, 世祖10년 3월에 地理學 崔挺善이 瑞山郡에 은퇴하여 살고 있었는데 이때에 다시 穿川峴을 塞路할 것을 上言함으로써 또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유인 즉 천천령을 적당히 補土하고 築城하여 길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世祖 10년(1464) 4월 22일에 여러 地理書를 참고하여 穿川峴의 塞路를 막는 일의 便否에 대하여 의논한 결과, 최양선의 “人跡의 王래가 많고 적음이 盛衰의 크고 작음을 徵驗한다”는 논리를 반박하여 세종15년 당시의 논리와 비슷하게 “祖宗의 來脈과 主山의 過脈하는 곳에 人跡이 王래하는 것은 吉하다”는 입장에서 穿川峴路를 옛날 그대로 開通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주장이었다.²⁵⁾ 이후 穿川峴은 獻陵과 같은陵寢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막았다가 결국은 개통하게 됨으로써 이 천천현로를 따라 都城으로 부터 良才驛을 지나 柏生驛에 이르는 三

22) 『文宗實錄』권12, 文宗2년 2월 乙酉.

23) 『端宗實錄』권7, 端宗1년 8월 乙巳.

24) 『世祖實錄』권2, 世祖1년 11월 己亥 및 『世祖實錄』권32, 世祖10년 3월 癸酉.

25) 『世祖實錄』권33, 世祖 10년 4월 甲辰.

南지방을 연결하는 주요한 交通路로서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穿川峴의 명칭이 언제 古地圖에 나타난 바와 같이 月川峴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리고 成宗대에 이르러 英陵參拜 문제로 서울에서 여주 영릉까지의 능행로가 곧 興仁門-廣州 栗脫-樂生驛-利川-驪州로 가는 길이 새로 개척됨으로써 이후 穿川峴路는 官과 민간인들의 주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던 것이다.²⁶⁾

4) 月川峴과 경부고속도로 '달래내고개' 切土工事

그런데 月川峴의 유래에 대해서는 남원윤씨, 안동권씨 등의 족보 및 묘표에 나타나고 있는 月川(또는 月午川)에서 찾을 수 있다. 『南原尹氏族譜』에 따르면 시조로부터 12대인 克新(1527-1587)대에 이르러 현재의 금토동으로 이주하여 世居하게 된 것 같다. 克新은 宣祖9년(1576)에 문과에 급제하여翰林吏郎, 弘文館應敎, 知製敎 등을 역임한 인물로 그의 묘와 묘비는 당시 廣州 月午川에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필자가 남원윤씨후손인 윤효상씨와 현장답사한 바에 의하면(1999년 7월) 금토동의 남원윤씨 선영에는 克新이하 여러 명의 묘비가 있는데, 13대 晉(月午川), 16대 以載(月午川 또는 穿川), 以壽(月川峴) 등과 같이 月午川, 月川 또는 穿川이라고 새겨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12대 又新的 증손 尹榮 및 동생 尹集은 병자호란때 斥和臣으로서 유명한 三學士의 한사람이었다. 여기에서도 지금의 金土洞은 바로 月川(또는 穿川)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기타 비디오 자료 참조)

26) 『成宗實錄』卷12, 成宗2년 10월 丙子.

한편,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秘話에서도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른바 '달래내고개 切土工事'가 그것이다. 민간인들의 口傳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는 속칭 달래내(또는 달이내) 고개는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금토동 한국도로공사 앞을 가로질러 달리는 곳에 있다. 이 구간은 서울-부산간 고속도로기본계획에 의거, 1968년 1월부터 건설되었는데 이 구간은 수원공구에 소속하였다. 수원공구는 당시 영등포구 良才洞(현 강남구 신사동)에서 華城郡 烏山邑 園里 사이를 잇는 38.6 Km로 그 중 달이내고개는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院基(CS292440)~미동(CS315411)의 3 km의 난공사 구간이었다. 이 구간의 토목공사는 현대건설이 시공했는데, 달래내고개만은 육군제 1201 건설공병단 제220대대(대대장 오병주 중령)가 투입되어 암석굴착, 절토, 성토, 용배수로 및 배수관 설치, 비탈면보호공, 용벽 등을 시공하였다.²⁷⁾ 1968년 당시를 회고한 고속도로 건설비화에 의하면²⁸⁾ 金正浩의 大東輿地圖에 근거하여 이 지역을 한강의 잠원나루에서 시작하여 良才峴-新院-月川峴-板橋院을 거쳐 양지현에 이르는 길로써 파악하고, 良才峴은 지금의 양재고개, 新院은 지금의 新院洞(옛 원터-옛 괄부근), 月川峴은 달래내고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달래내고개의 공사는 1중대(중대장 노부웅 대위)가 맡았는데 전장 1.8km 구간의 토목공사로 높이 16.4m를 切土하는 대역사였다. 이 공사는 1968년 1

27) 건설부, 한국도로공사,『서울-부산간 고속도로건설지』, 1974.
한국고속도로10년사편찬위원회,『한국고속도로10년사』, 한국도로공사, 1980 참조.

28)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건설비화, 맘과 눈물의 대서사시』, 한국도로공사, 1980.88-104쪽 참조.

월7일 시작하여 6월20일 준공되었다.(당시의 공사 사진1-2.3, 참조) 이를 통해 볼 때 달래내고개는 옛 월천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월천현의 지명은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한국5만분지1전도 (상,하)』(경인문화사)에서도 생생하게 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⁹⁾

이러한 자료의 고증을 통해 볼 때 오늘날의 금토동은 옛 월오천, 월천 또는 천천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천림산봉수는 결국 금토동 월천현에 있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5) 古地圖에서 본 위치--부록.지도 참조

- 가) 『海東地圖』 「광주부」--天臨山烽壠---청계산과 천림산 표시
- 나) 『青邱圖』--天臨山烽壠
- 다) 『大東輿地圖』--天臨山烽壠, 청계산-월천현-천림산봉수 표기
- 라)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고려 대 소장)-최진연씨 활영 비디오 참조,
- 마) 『廣輿圖』--天臨山烽臺--청계산 우측
- 바) 『京畿邑誌』『廣州府誌』(1871)--穿川峴烽壠臺--언주면 양재역과 돌마면 낙생역을 연결하는 도로축에 천천현이 있고, 천천현 정상에 봉수대 표시하고 있음.
- 사) 『輿地圖書』--穿呼川烽壠
- 아) 『東輿圖』(金正浩, 1860)-- 天臨山烽壠는 月川峴

29) 朝鮮總督府,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상,하)』 광주군, 경인문화사 참조.

에 있다고 하였음.

결론—古地圖上에 나타난 천림산봉수는 穿川峴 또는 穿呼川. 천림산봉수로 표기되고 있으며, 청계산과 멀어져 그런 경우와 붙여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도 제작의 정확도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호의 실제답사에 의해 제작된 大東輿地圖나 輿地圖書의 봉수지도가 비교적 실제 지형과 일치한다고 판단됨.

6) 주민(윤효상, 강이봉)의 증언과 현장답사--(비디오 시청 15분 정도)

IV. 맺음말

1) 천림산봉수의 由來 및 名稱은 조선초기의 穿川山烽燧→穿川峴烽燧→月川峴烽燧→天臨山烽燧로 변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2) 천림산봉수의 位置에 대해 종래에는 인릉산설, 청계산설, 금토동설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학술세미나 고증결과 금토동설이 가장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3) 역사상 나타나고 있는 천천산, 천천현, 월천현 그리고 천림산 봉수는 같은 위치에 있었던 봉수이다.

4) 천림산봉수의 좀더 정확한 위치는 대왕면 청계산과 천림산사이 월천현(속칭 달래내고개) 또는 천천현에 있었다.

5) 조선후기의 古地圖에 따르면 月川峴 우측에 있는 산을 天臨山이라고 불리었다.

6) 조선초기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 高麗의 驛站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都城으로부

터 廣州 樂生驛에 이르는 교통로상에 穿川峴이 있었으며, 이 穿川峴路는 三南지방에 이르는 중요도로 있다. 도로교통사 및 역사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도 고등동, 심곡동보다는 금토동 월천현(또는 천천현)에 천립산봉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雲暗 등으로 봉수를 置火하지 못할 경우는 烽燧軍이 駍報하거나 驛馬(또는 摺撥)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이 式例이기 때문이다.

7)『남원윤씨족보』나 『안동권씨추밀공파보』 및 墓表에 따르면 月川 또는 月午川 및 穿川은 오늘날의 金土洞(이전의 金峴里.屯土里를 合稱)을 지칭한다.

8) 穿川峴이 언제 月川峴으로 改稱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속칭 달래내고개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 당시 육군제1201견공단 제220대대의 달래내고개 절토공사 기록에서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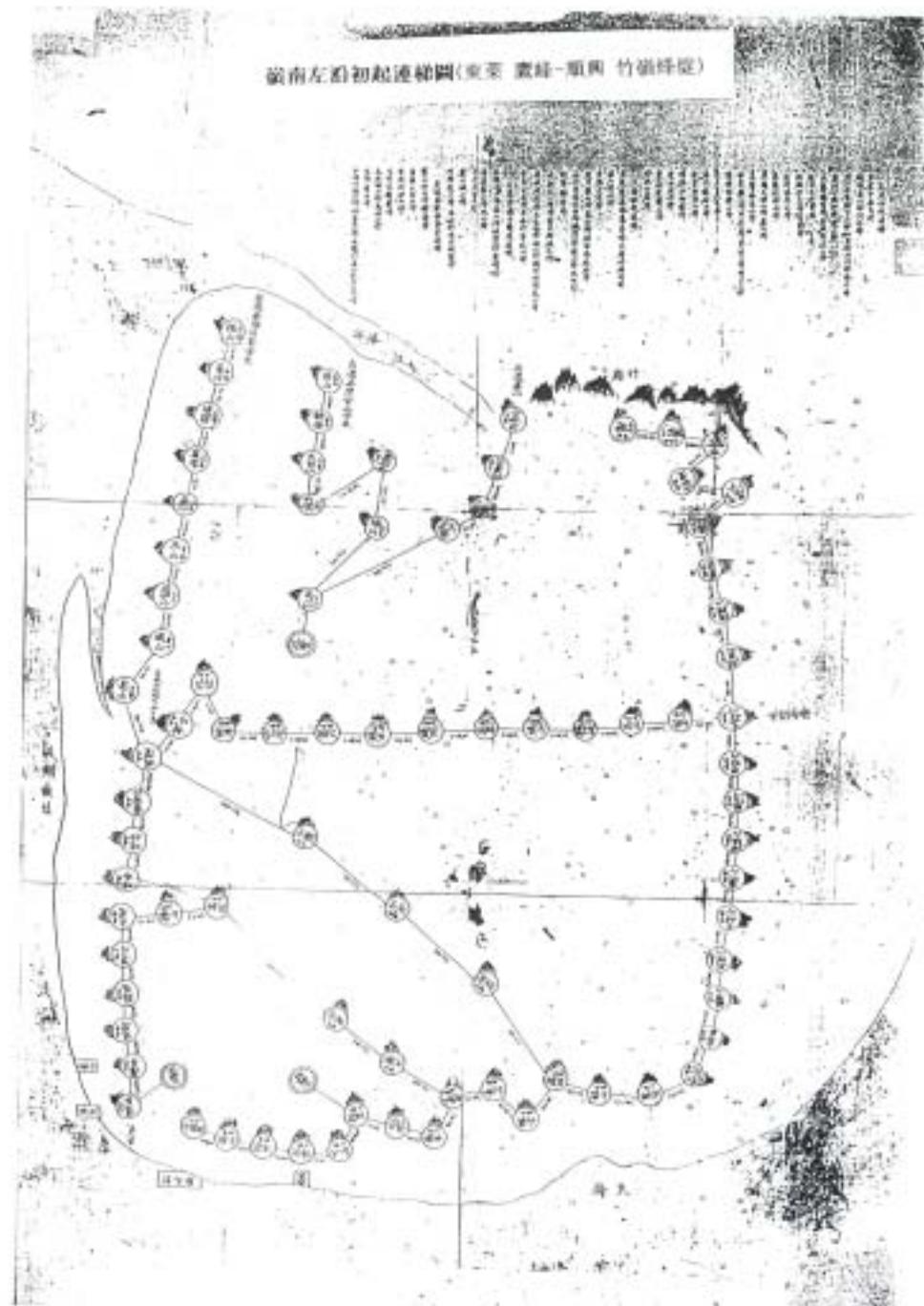
9) 금토동 거주하는 남원윤씨 후손 윤효상씨와 강이봉씨의 증언에 의하면 봉수군 강기수씨와 그의 아들 강병룡(범직), 손자 강형선씨에 대한 증언 및 봉수군 거주지(집터) 확인 결과 현재의 청계산 아래 자락에 있는 금토동이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南都泳, 「朝鮮時代의 烽燧制」, 『역사교육』23, 역사교육연구회, 1978
- , 「朝鮮時代의 烽燧制」, 『사대는총』1, 동국대, 1978.
- , 「朝鮮前期 交通.通信-烽燧制度」, 『서울6백년사』, 서울시, 1977.
- , 「朝鮮時代 軍事通信組織의 發達」, 『한국사론』9, 국사편찬위, 1981.
- 南都泳, 「조선시대 烽燧制:조선후기 摺撥制와 관련하여」, 『한국

- 근대사회경제사 연구, 1985.
- , 「韓國馬政史」, 제8편 마정과 통신,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6
- 方相鉉, 「朝鮮前期의 銳撻制-國防上에 미친 影響을 중심으로」, 『史學志』 14, 단국대, 1980.
- 許善道, 「近世朝鮮前期의 銳撻 (上, 下)」, 『한국학논총』 7.8, 1985.1986
- 경기도, 명지대학교, 「始草地區 開發事業區域 地表調查; 始興郡君子面 烏耳島貝塚과 正往山烽燧를 중심으로」, 경기도, 명지대학교, 1988.
- 李元根, 「韓國烽燧制度考- 그 내용과 誤解實踐演習」, 『초우황수 염박사고회기념 미술사학논총』, 1988.
- , 「韓國烽燧制度考」, 『인문학보』 4, 강릉대학, 1987.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韓國의 城郭과 烽燧 (상, 중, 하)」, 서울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89.
- 나동욱, 「감서구 천가동 연대산봉수대 지표조사」, 『부산시립박물관연구논문집』 3, 1995.
- 李存熙, 金榮官, 「峨嵯山烽燧位置考」, 『향토서울』 59, 1994.
- 朱雄英, 「朝鮮前期 漢陽定都와 盡我道地域의 烽燧制運營」, 『향토사연구』 7,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5.
- 朴相相, 「順天에서 서울까지의 烽燧制運營- 第5炬烽燧路線을 중심으로」, 『향토사연구』 7,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5.
- , 「朝鮮時代의 烽燧運營體系와 道蹟現況- 第5炬 烽燧路線을 중심으로-」, 『청대사람』 6, 1994.
- 崔龍奎, 朴相相, 「청주것대산봉수대발굴조사 약보고서」, 『박물관보』 9, 청주대 박물관, 1996.
-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忠州周井山烽燧臺 發掘調查報告書」, 충주시, 1997.
- 국방군사연구소, 「韓國의 烽燧制度」, 1997.
- 金起燮, 「天臨山烽燧의 位置와 現況」, 「朝鮮時代의 社會와 思想」, 조선사회연구회, 1998.
-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체사-근세조선천기편」 제3장 제3절 봉수, 육군본부 1968.
- 松田甲, 「李朝時代の烽燧」, 『朝鮮』 254, 1928.
- 姜仁中, 「釜山地方의 烽燧台沿革 및 位置考」, 『朴元均先生回甲紀念釜山史論叢』 1970.
- 陳肅玉, 「한국의 봉수제도에 대한 현대봉신공학적 분석 I」, 한국

- 통신학회1982 및 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 1983.
- ,「봉수」,『전통문화』신년호,서울 종로구 전통문화사,1985.
- ,「봉수제도의 발달」,『한국전기통신100년사』,1987.
- 和田一郎,『土地地稅制度調查報告書』제44집,烽臺屯及煙臺屯,1920.
- 車相璣,『烽火』,『朝鮮史外史』제1권,明星社,1947.
- 金鍋逸,『烽燧考』,『文耕』17,중암대문리대학생회, 1964.
- 전북향토문화연구회,『장수군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Ⅱ 4성관
·봉수,전격지,1988.
- 청주대 박물관,『속천군문화유적』제15회,제4장,성관,봉수,청주대
출판부,1993.
- 육군박물관,『경기도파주군군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검단산봉
수·봉암리봉수·도라산봉수,육군박물관,1994.
- 육군박물관,『경기도연천군군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두부봉봉
수지·늘목리봉수지·간파리봉수지·아미리봉수지·고성산봉
수지·차단리봉수지·국사봉봉수지·육군박물관,1995.
- 육군박물관,『강원도철원군군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소이산봉
수지·할미산봉수지·적골산봉수지·상사봉봉수지·육군박물
관1996.
- 제주대 박물관,『남제주군의 문화유적』,제1장 제3절,봉수·연대,
남제주 남제주군,1996.
- 수원시사편찬위원회,『수원시사-역사속의 수원』,제4장 봉수와
역 참·수원시사편찬위원회,1996.
- 孫德榮,『朝鮮時代 公州地方의 烽燧』,『웅진문화』8,1996.
- 金昌會,『忠南의 烽燧遺蹟概要』,『박물관보』5,청주대 박물관,1992.
- 金 弘,『朝鮮初期의 烽燧制度에 대하여』,『육군 제3사관학교논문
집(인문·사회·자연과학편)』7,1978.
- 윤영섭,『리조초기 봉수의 분포』,『역사과학』 1998-1.
- 고려대 대학원도서과 한석실 소장,『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 전북체신청,『통신문화유적 전북의 봉수대』,전북체신청,1992.



경부고속도로 서울-오산간 건설구간 달이내고개 공구

인력 배정자 12개 팀
버스 스트 15대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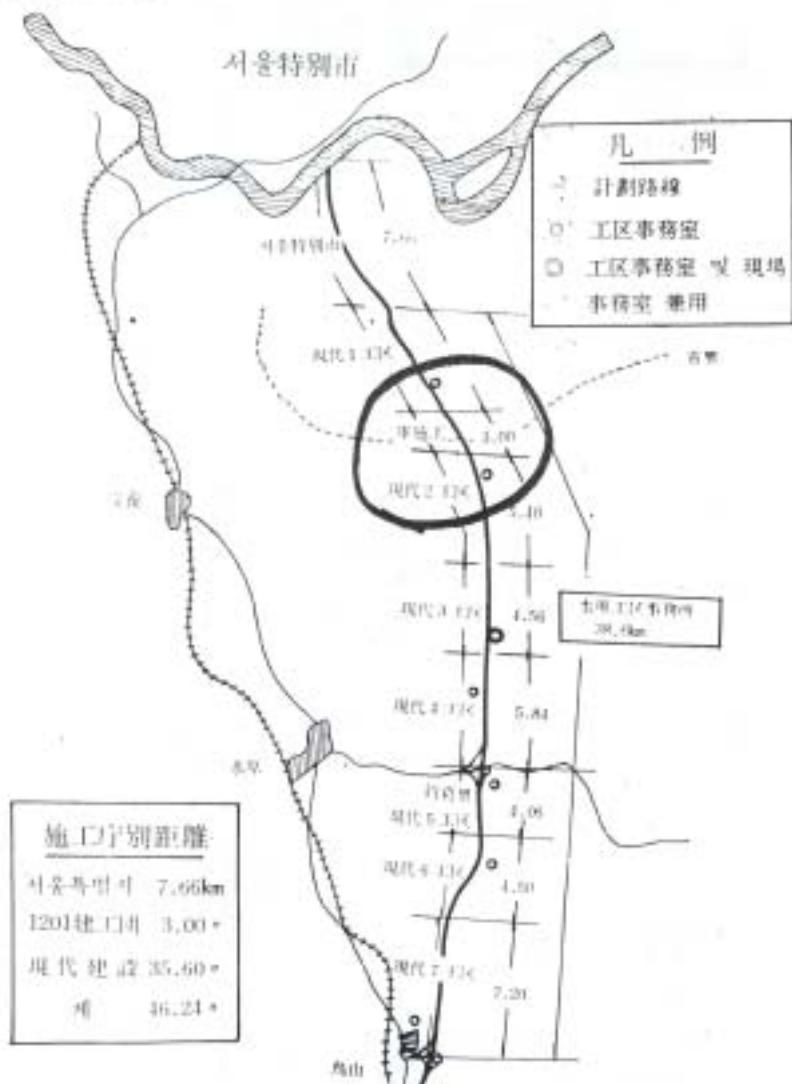


그림 1-1 水原工區 路線圖

경부고속도로 서울 - 오산구간 달이내고개 구간공사 장면



■ ■

■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건설단의 역사적
• 철상을 띠고 일대수레(이내고개)
■ ■ 일야내 고개 절토작업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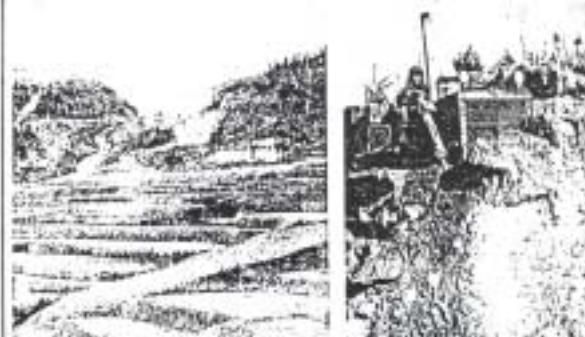


그림1-2 달이내고개 공사장면 건설부,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지」, 1974



그림1-3 달이내고개 구간,

「고속도로건설비화, 땅과 눈물의 대서사시」,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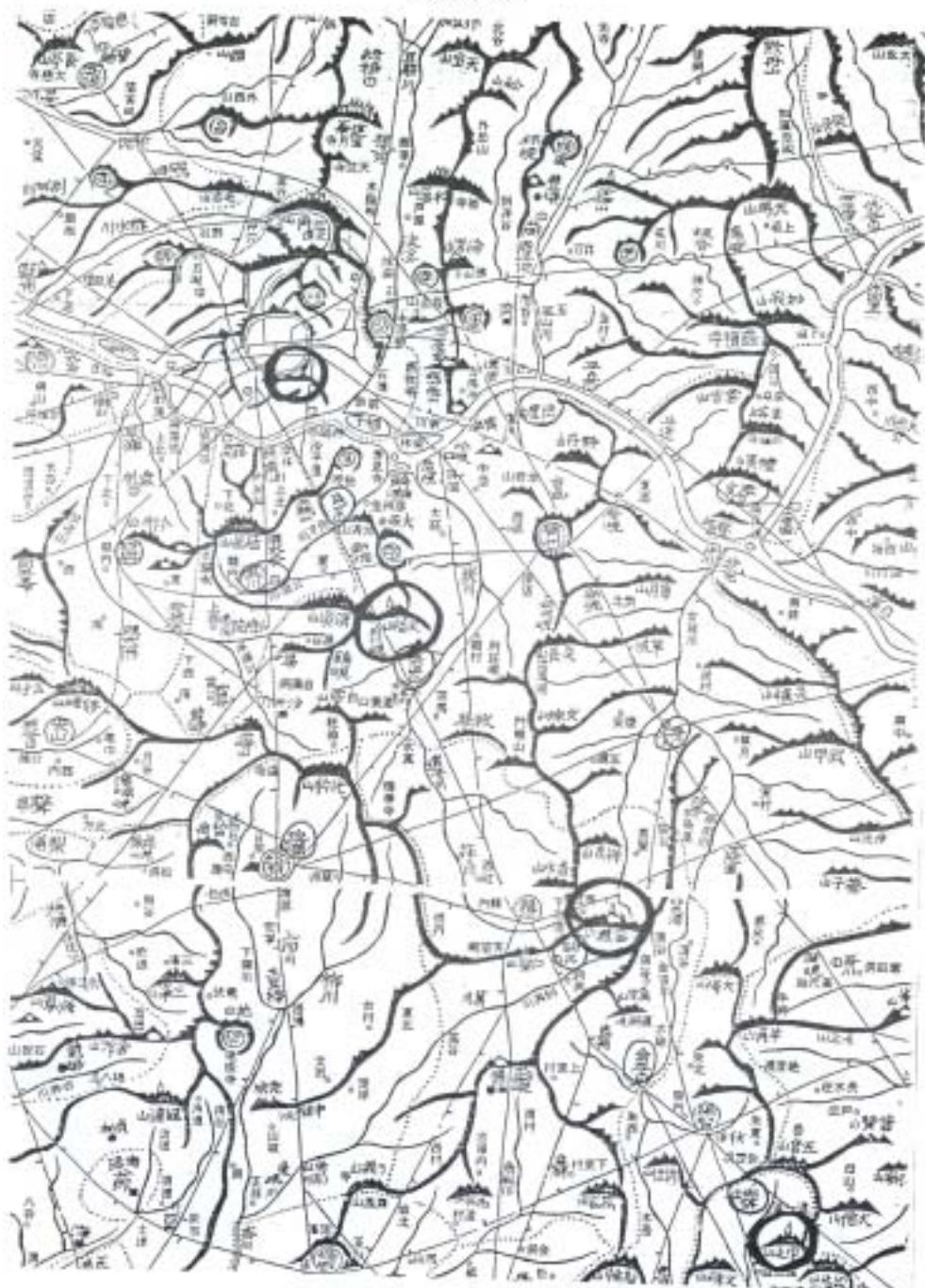
海東地圖 (18세기 중엽)



青邱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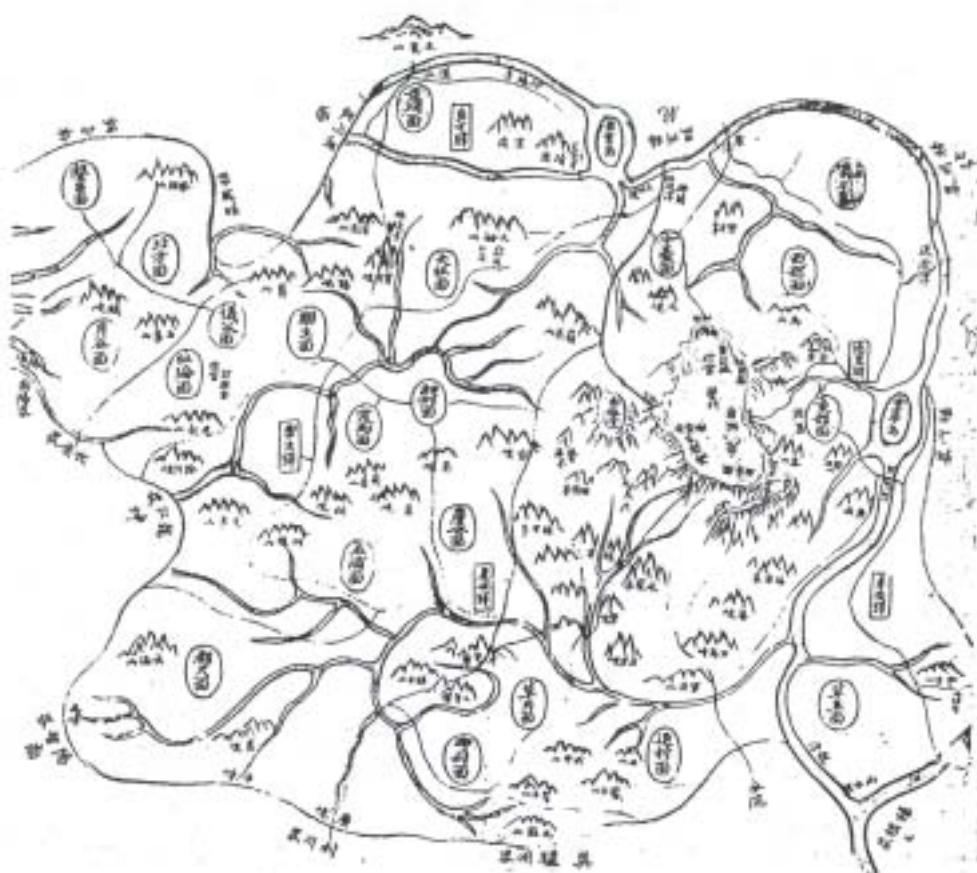


大東輿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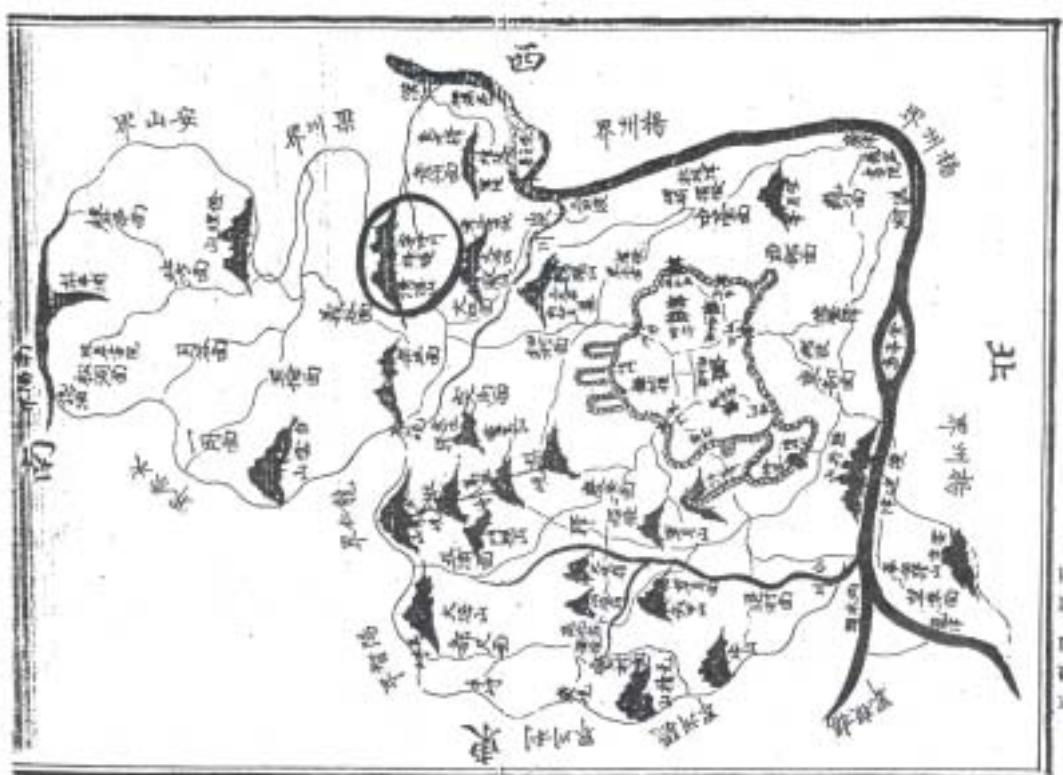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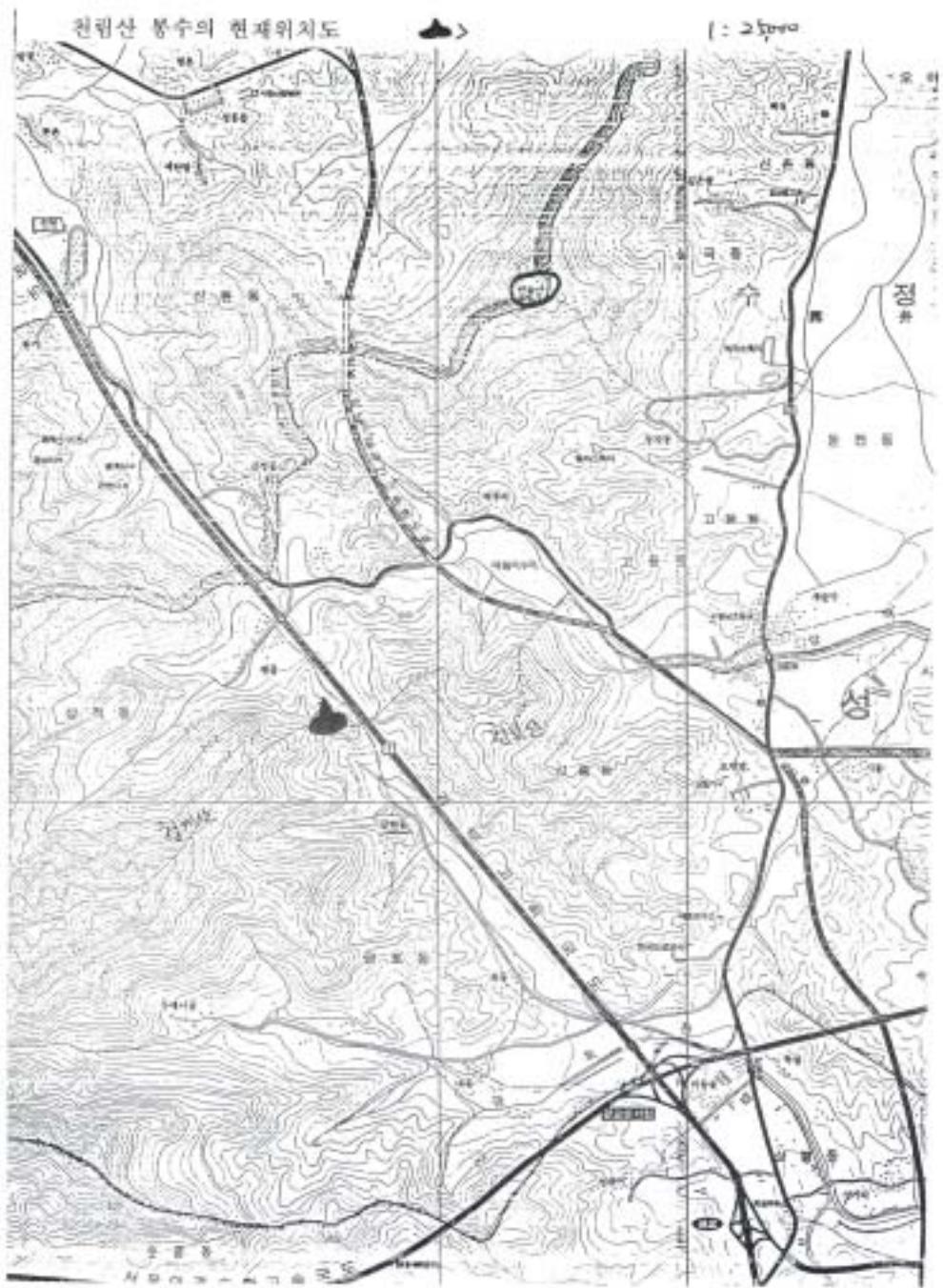
『京畿邑誌』 廣州府誌 (1871)



『輿地圖書』 廣州地圖



천립산 봉수의 연혁과 위치비정(발표) 93



천림산봉수의 연혁과 위치 비정

이상태(국사편찬위원회)

봉수란 면방의 긴급한 군사경세를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을 이용하여 중앙에 전달하는 통신체계이다. 조선왕조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봉수란은 군사통신망을 조직하였는데 전국을 5개 노선으로 운영하였다.

천림산 봉수는 제2봉화로로써 경상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봉수를 서울의 목멱산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 이 봉수터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은 역대 지지와 고지도 그리고 근대의 지형도에 그위치가 잘 나타나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를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지지와 고지도에 나타난 천림산 봉수에 관한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1. 세종실록자리지 | (1432) | 穿川山 |
| 2. 문종즉위년 실록기사 | (1450) | 穿川峴 |
| 3. 세조10년 실록기사 | (1464) | 穿川峴 |
| 4. 성종9년 실록기사 | (1478) | 穿川峴 |
| 5. 연산군12년실록기사 | (1506) | 穿川峴 |
| 6. 동국여지승람 | (1531) | 穿川峴 |
| 7. 동여비고 | (1682) | 穿川峴 |
| 8. 영조5년 실록기사 | (1729) | 天臨山 |
| 9. 여지도서 | (1764) | 穿呼川 |
| 10. 해동지도 | (18세기중엽) | 天臨山 |

11. 청구도	(1834)	天臨山
12. 중정남한지	(1846)	天臨山
13. 대동여지도	(1861)	天臨山
14. 대동지지	(1864)	天臨山
15. 광주부지도	(1871)	天臨山
16. 구한말지형도	(1899)	月峴(둔토리)
17. 5만분지1지형도	(1917)	月峴(금토리)
18. 2만5천분지1지형도	(1999)	月峴(금토동)

위의 기록과 같이 천림산봉수는 17세기 까지는 천천현 봉수라고 부르다가 18세기부터는 천림산봉수라고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질문1 : 대동지지의 기록을 보면 월천현을 옛날에는 천천현이라고 불렸고, 천림산의 봉수는 또한 월천현 봉수라고 보고 있으므로, 천천현 봉수가 천림산 봉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근대 측량지도인 지형도에는 천림산의 표시가 없다. 천림산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 : 고지도에는 천림산의 봉우리에 봉수 표시를 하고 그 아래 쪽으로 천천현이나 월천현을 표시하고 있는데 천림산 봉수터의 정확한 위치는 월천현이 아니라 천림산 꼭대기가 아닐런지요?

질문3: 월현에 봉수터 혼적이 있습니까?

발 표

경기 봉화유적 조사 및 사례연구

발표 : 이 재(육군사관학교 교수)

토론 : 김기섭(경기대학교 강사)



경기 烽火遺蹟 調査 및 事例研究

이 채(육군사관학교)

1. 서언
2. 동북지역의 봉수설태
3. 경기 중북부지역의 봉수지
4. 서북지역의 봉수망
5. 결언

I. 序 言

필자는 1992년부터 비무장지대일대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는 유적조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이 지역에 대한 유적 지표조사 사업 조사원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그 후 1993년부터는 문화재 연구소와 별도로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군사보호구역내 關防유적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년에 1개 郡씩 조사를 해왔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파주군, 연천군, 포천군, 철원군, 김포군, 강화군의 관방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¹⁾ 조사대상 관방유적은 각종 城址들과 烽燧址, 그리고 故臺, 鐘, 望 등이었다. 이 글은 그간에 조사해온 봉수지 조사결과를 요약한 것이며, 조사대상은 한강 이북의 파주군, 연천군, 포천군, 철원군에 제한하였다.

1) 관방유적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는 파주군, 연천군, 포천군, 철원군, 김포군까지 출판하였다.

다. 이글은 우선 관련 조사지역의 봉수들에 관한 문헌검토를 통해 봉수로가 어떻게 설치 및 변경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실제로 이 지역에 남아 있는 봉수지의 위치확인과 가능한 한 봉수의 구조를 살펴본후 이를 문헌과 연관하여 분석해 보고자한다. 조사대상 봉수는 비무장지대와 그 일대의 군사보호구역이 중심이 되겠으나 실제로는 서울 목멱산봉수까지 연결되는 봉수들을 모두 조사하였다. 따라서 증보문헌비고에서 밝히고 있는 直烽烽燧路 중 경기도 경흥에서 한성으로 연결되는 第一炬와 강계에서 내륙을 거쳐 한성으로 들어오는 第三炬, 그리고 의주에서 해안을 따라 한성으로 연결되는 第四炬봉수망이 조사에 포함되었다.

II. 동북지역의 봉수실태

第一炬 直烽烽燧路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함길도 서수라에서 시작하여 함길도와 강원도 및 철원 일대를 지나고 그후 양주일대를 거쳐 아차산에서 목멱산 제1봉으로 연결되는 봉수망이다. 현재 군사분계선이 구철원(동송)과 평강사이를 지나고 동쪽으로는 舊金化와 연해 있어 실제 조사는 이지역 이남의 봉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지역적으로는 철원군, 포천군, 양주군 일대의 봉수들이 해당된다. 먼저 이 지역일대의 봉수들에 관한 문헌상의 기록들을 조사해 보았다. 관련된 문헌이나 지도를 시대 순으로 나열하면 세종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여지지(1656년),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18세기초), 예지도서(1759년), 예도비지(1851~58), 대동여지도(1861년), 대동지지(1864년),

증보문현비고(1908년) 및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1942년) 등 모두 10종이다. 이외에도 다른문현이나 지도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개 단편적이고 신빙성이 적어 대부분 참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第一炬봉수망 중 북한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사목적도 아니고 또 조사할수도 없는 지역이지만 남한의 경기동북지역의 봉수와 관련있는 부분이 있어 문현상 약간의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문현상에 나타난 봉수망을 도식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지리지의 봉수망> <신증동국여지승람 및 동국여지지의 봉수망>



<여지도서의 봉수방><대동여지도 및 대동지지봉수방><증보문원비고의 봉수방>



주지하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봉수제의 정비 및 확립은 조선 세종조에 이르러 성립되었다. 고려말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점차 강화되어오던 봉수제는 세종때 이르러 고려의 봉수제를 바탕으로하고 나아가 당나라의 봉수제를 참조하여 새로이 확정하였다.

즉 세종4년에 이르러서 灰火數나 범법자 처벌등의 규정 뿐만이 아니라 연변봉수의 烟臺를 새로이 축조하고 나아가 봉수노선을 새로이 확정함으로써 전국적인 봉수망을 다시 갖추게 되었다.²⁾ 그러나 불완전한 봉수시설이나 봉수의영의 어려움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봉수제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여 명실 공히 봉수체제가 정립된 것은 세종29년(1447년) 때였다. 세종은 즉위 후 20여년간을 북방의 野人們과 남쪽의 왜구들을 상대로하여 군사적 정벌과 화유를 통해 여진족의 소굴이었던 암록강, 두만강 이남의 땅을 우리영토로 만들고 -대마도까지를 정벌함으로써 남북으로 군사적, 정치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영토팽창이 끝난 시점에서 봉수제가 정비된 것은 새로이 신설한 4郡, 6鎮을 애인으로부터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도 왜구의 침입을 철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세종의 의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조선최초의 관찬 자리지인 세종실록 자리지에는 봉수를 포함하여 關防에 관한 자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가 필요 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자연환경이나 인문지리 및 역사·인물 등에 관한 자료

2) 육군본부, 『한국군체사』 - 근세 조선전기편-, p.492

도 포함되겠지만 국방과 관련된 자료도 필요했을 것이다. 榎櫈條가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봉수체가 고려 중기에 처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봉수규정을 재정비하고 봉수노선을 새로 확정하고 나아가 봉수와 관련된 시설을 확충한 것은 바로 세종대왕이었으며 이렇게 확정된 봉수체계를 앞으로 확실히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의 봉수망을 실록지리지에 포함시켰다고 보아야겠다. 세종실록지리지는 단종 2년(1454년)에 편찬되었지만 여기에 실린 주요 자료들은 세종14년(1432년)에 편찬된 것으로 전해지는 新撰八道地理志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³⁾

그런데 新撰八道地理志가 편찬된 세종14년에는 아직 압록강상류와 두만강일대는 야인들이 점령하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신찬팔도지리지가 세종실록지리지의 底本역할을 했다면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이를 북방지역의 봉수망이 없어야 하겠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세종이 최윤덕을 통해 4군을 개척한 것이 1437년부터 1443년에 해당하고 김종서로 하여금 6진을 개척한 것은 1434년부터 1449년의 시기였다. 또한 세종이 봉수체를 확립한 시기인 세종29년(1447년)은 4군과 6진의 개척이 거의 끝난 무렵이었다. 이렇게 볼 때 세종실록지리지의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의 봉수망은 신찬팔도지리지가 편찬된 뒤 북방영토 개척과 그에 따른 봉수체 확립의 결과를 받아들여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가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인문지리와

3) 한국학 문헌연구소편, 『전국지리지』 1, 서문(이성부) p.6

자연환경, 역사·인물 및 관방사항에 관한 편록들은 상당히 자세한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어서 그뒤에 출판되는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지의 표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경기도, 강원도, 함길도 일대의 봉수망에 관한 세 종실록지리지의 봉수노선을 검토해보자. 제일 먼저 확인되는 점은 조선후기의 지리지에 보이는 바와는 달리 이 지역의 봉수망은 하나의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두 개의 노선이 한곳에서 만나(철원의 소이산) 이것이 한성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노선중 하나는 함길도 두만강 일대에서 내려오는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영동의 동해안 일대에서 들어오는 봉수노선이다.

이 두노선의 경우 조선후기 지리서, 예를들면 중보문헌 비고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第一炬 直絳路線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선전기에는 직봉이나 간봉의 구분이 있는것도 아니므로 함경도에서 내려오는 노선을 직봉, 강원도에서 들어오는 노선을 간봉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 같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이 봉수망을 언제 무슨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으며 또 이·지리지의 저본이라고 전해져오는 신찬팔도지리지 또한 실제로는 전해져 오지 않고 있어 그 자세한 봉수망 설정경위와 목적을 알수는 없다.

다만 봉수의 설정 목적이 이민족의 침입을 빨리 알려서 침입을 방지하자는 것이란 점을 생각해 볼 때 함길도의 두만강 일대에서 내려오는 봉수망은 그 지역에서 침투하는 세력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을 것 이고 그렇다면 이 세력은 6진개척으로 근거지를 빼앗긴 野人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이 봉수노선은 고려때부터 있었던 것이라기 보다는 6진개척으로 확보한 두만강 하류지역을 지키고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었으며 이것이 곧 세종 29년 새로운 봉수망을 확정한 배경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런데 이 봉수노선을 확인해보니 안변지역의 산성봉수는 동쪽으로 진사원봉수에 용하고 진사원은 다시 남쪽으로 선현에 그리고 선현은 다시 남쪽으로 흡곡현의 제공포 봉수에 용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제공포는 다른 봉수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영동지방의 봉수로중 제일 북쪽이 겹봉으로 끝나고 있는데 겹봉산이 안변 도호부의 동남쪽에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제공포와 겹봉은 상호 연결될수도 있을 것 같으나 문헌상에는 연결이 되고 있지 않다. 만일 제공포와 겹봉이 상호 연결된다면 이것은 영동과 함길도 지방의 봉수가 내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동지방의 봉수는 북쪽의 경우, 함길도에서 내려오는 봉수로와 연결되어 한성에 이르게 되며, 영동지방의 남쪽봉수는 영해지역에서 안동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더 내려가 동해, 경주, 영천 등을 통해 한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즉 영동지역의 봉수망은 남북이 다른 봉수로를 따라 각기 한성으로 연결되고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영동북부의 봉수는 통천지역의 금란에서 서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화양지역의 여이파, 개탄등을 지나고 다시 금성의 아현 등을 거쳐 구천원의 소이산으로 연결된다. 이 영동지방의 봉수로 또한 조선후기의 지리서에는 찾아볼 수 없고,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그리고 동국여지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봉수망이다. 따라서 문헌상으로는

1454년부터 1656년 사이 약 200여년간 이 영동지역의 봉수로는 실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후에는 이 봉수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시설이 폐허화되어 뒤의 자리서에서는 사라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

영동지방의 봉수노선은 북쪽의 안변지역으로부터 남쪽으로는 동래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상당히 긴편이며 대개 동해안의 모든 해안지역을 따라 봉수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이봉수로는 동해로 침입하는 세력을 막기 위한 봉수로 볼수 있을 것이며 침입자는 바로 왜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구의 침입은 隆末 鮮初에 특히 빈번했었다. 특히 고려중기에 성립된 봉수체는 元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너져 갔으나 고려말 왜구의 침입이 빈번해 짐에 따라 다시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때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및 동국여지지의 영동지방의 봉수로는 세종시 신설한 봉수라기보다는 고려말 왜구 침입방지를 위해 설정한 봉수로와 깊은 관계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봉수로는 왜구에 대한 交隣 政策이 상당한 실효를 거두게 된 조선중기이후에는 사용의 빈도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자연히 폐지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겠다.⁴⁾ 실제로 봉수체 무용론의 비등으로 연산군10년(1504년)에 봉수체가 이미 혁파된바있었고 그뒤 그에대한 반동으로 중종이 집권한 후 제도적 차원에서 부활시켰다고는 하지만 삼포왜란(1510년)이나 을묘왜변(1565년) 및 나당개의 난(1582년)시에도 봉수는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점을 참고해 볼 때 동

4) 「한국군체사」 p.501

국여지지에 실려있는 영동지방의 봉수망은 사실보다 훨씬 오래전에 虛說化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 1656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나온지 126년 뒤에 나온책으로, 주로는 임진왜란으로 많은 변화가 뒤파랐던 시기의 새로운 자료들을 정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여지지의 봉수망은 126년전의 동국여지승람의 봉수망과 다를바가 없다. 이점은 봉수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가 하는점보다 봉수시설이 어떻게 잔존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편찬했던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봉수의 정상적 활동과 운영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 것을 오히려 임진왜란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영동지방의 봉수망은 조선조에 이르러 새로이 신설한 봉수망이라기 보다는 왜구의 침입이 빈번했던 고려말에 설립되었던 봉수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이 정비한 것으로 보이며 이 봉수망의 폐지 또한 조선전기 왜구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아지역에 대한 침입이 약화되면서 자연히 봉수로는 비교적 일찍이 폐지된 것으로 생각된다.

영동지역의 봉수망은 그 운영에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가령 영동북부지방에 왜구가 침입했다면 이를 알리는 봉수는 금란으로 연결되고 다시 철원으로 이어졌을 것이며 영동남부의 경우는 안동이나 경주쪽으로 연결되어 한성으로 올라왔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의 중간지점 예를들어 강릉이나 양양지방의 경우는 어느 봉수망으로 연결되었을런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설명도 세종 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및 동국여지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합길도에서 내려오는 봉수

와 영동지방에서 온 봉수가 구철원의 소이산에서 합쳐지게 되어 있음으로 한성에서 봉수를 접할시는 분명히 지역별로 火炬의 구분 방법이 달라야 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구분이 없다면 어느지역에서 온 봉수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봉수의 거화수를 포함한 신호규정은 성종2년(1471년)에 반포된 경국대전의 봉수조에 확립되어있지만, 그 내용은 일찍이 세종원년에 대개 정해졌다. 즉 종전까지 無事時에는 一炬, 有事時에는 二炬이던 거화수를 보다 상세히 세분하였다.⁵⁾ 그 외에도 연대를 빙는 규정이나 봉수꾼의 규모 및 근무요령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하고 있으나 육로봉수와 해로봉수가 만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한성에 알리기 위한 구체적 봉수신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런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초에 영동에서 올라오는 海路 봉수가 함길도에서 올라오는 陸路 봉수와 만나는 경우 사실 일찍부터 영동지방의 해로 봉수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된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및 동국여지지에 표시된 함길도 방면의 육로봉수와 영동지역의 해로 봉수망은 거의가 일치하는 편이지만 일부지역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적의 침입양상과 그에 대응하는 방어태세의 변천이라던가 기후의 변동, 지형의 변화등에 따라 수시로 있었던 봉수의 移設 또는 新設과 관련되겠으나 근간

5) 외적이 침입시, 바다에 나타나면 2거, 해안에 오면 3거, 우리 병선과 접한시에는 4거, 살륙하면 5거이었으며, 육지에서는 적이 국경밖에 나타나면 2거, 국경에 접하면 3거, 국경을 침범하면 4거, 아군과 교전시에는 5거였다.

이 되는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들어 지리지의 경우 함길도쪽으로는 문천의 천불산 → 수점 → 견산 → 산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승람의 경우 천불산 → 유현 → 발산 → 견산 → 학성으로 적고 다시 중종 5년에 유현, 발산, 견산을 폐하고 장덕산으로 통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결국 천불산 → 장덕산 → 학성으로 재조정되었다. 또 지리지의 산성(견산과 사개현사이)은 승람에서는 학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지명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리지의 裁送은 승람에서는 吐氷으로 적혀 있는데 봉수를 이설한것인지 아니면 같은 봉수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이 지역이 북한 평강지역에 해당 됨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철원의 소이산과 미로곡 사이의 惠材谷은 지리지에만 이름이 보이고 승람부터는 모두 적골산으로 되어있다. 어렵게 혜재곡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혜재곡에서 미로곡은 멀어서 시야에 잘들어오질 않고 있다. 따라서 적골산은 혜재곡을 폐하고 신설한 봉수로 보인다. 그외 지리지의 加仇山은 승람의 대이산과 같은 명칭이다. 한편 1759년에 출간된 여지도서에는 영동의 봉수로 선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철원 소이산에 이르는 마지막 봉수인 珍村山과 그 동쪽의 阿吾山만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다 폐허화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시기에는 이미 영동에서 들어오는 봉수망은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철령과 所山사이에 峰道묘가 신설되었다. 송현과 쌍령사이에도 箭川이 추가된점이 승람과 다른점이다. 군사분계선 이남으로는 할미산이 신설되었다. 즉 소이산과 적골산 사이에 할미산이 추가된 것이다.

또 廣山峰은 苏邑峴과 같은 봉수이며 汗伊山 또한 大伊山과 같은 의미이다.

여지승람에서 추가된 여지도서의 봉도두, 전천, 할미산은 그 뒤 대동지지, 대동여지도 그리고 증보문 헌비고에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다음으로 문헌상으로 찾아본 봉수들의 실제위치와 남아있는 상태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일대의 봉수지를 요약하면 아래 표 및 지도(부록1 참조)와 같다.

번호	봉수지명	위 치	비 고
①	소이산(철원)	철원읍 사요리	비무장지대
②	진촌산	철원군 갈말읍 상전리	멸실
③	해계곡	포천군 관인면 냉정2리 상녕동	멸실
④	할미산	철원군 동송읍 창홍4리 구수동	멸실
⑤	적풀산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중군봉	멸실
⑥	미코곡	포천군 평북면 야미리	일부잔존
⑦	독산	포천군 신북면 기자리	일부잔존
⑧	임읍점	포천군 가산면 후금리 산86-1	일부잔존
⑨	대이산	남양주시 천접읍 연평리	일부잔존
⑩	마차산	서울시 중랑구 폭동 산 46-10	복원
⑪	alam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구전, 멸실
⑫	대령산	철원군 관말읍 토성리	구전, 멸실
⑬	삽송봉	철원군 동송읍 하갈리	구전, 멸실
⑭	상제암	철원군 서면 자등리	구전, 멸실

동북지역의 봉수지 일람표

현재 군사분계선은 철원 소이산 북쪽을 통과하여

진촌산과 김화 소이산 사이를 지나간다. 따라서 확인이 가능한 지역은 철원 소이산과 진촌산부터이다. 다만 김화의 소이산은 철원의 소이산과 명칭은 같으나 실은 김화읍 계웅산(604m) 상감령(538m)을 말한다. 현재 이 지역은 북한측 비무장지대안 571 G.P에 해당한다. 적 G.P와 수백메타 떨어진 아군 G.P에서 판측이 용이하며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봉수지의 혼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태이다.

철원의 소이산 봉수는 철원읍 사요리의 소이산(324m)정상에 있다. 民統線안에 있어 출입이 어려웠으나 현재 잡목이 우거져 접근이 어려워 재확인이 필요한 봉수이다. 일제시대에 만든 조선보물고적조사 자료에 장경 20간, 단경 15간의 타원형 土壘형태라고 기술하고 있다. 비록 조그만 봉우리에 있지만 제1기 봉수로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다.

진촌산봉수는 영동지역의 봉수가 소이산으로 연결되는 마지막 봉수이다. 원래 진촌리는 평강현에 속했으나 상·하진으로 나뉜 후 현재는 상진리로 남아있다. 상진리 뒷산에오르면 멀리 김화 소이산과 철원 소이산이 시야에 같이 들어오나 봉수터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진촌산봉수치는 마을 뒷산 좌측 봉오리로 추정된다. 해재곡 봉수는 일찌기 세종실록지리지에만 이름이 보이는 봉수로 현재 포천군 관인면 냉정2리 국사봉(200m)으로 추정된다. 소이산 봉수로부터 이곳까지의 직선거리는 14Km. 이곳으로부터 미로곡봉수까지는 10Km정도이다. 현재 이곳 정상에는 다른시설물이 있어 봉수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혼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해재곡이 없어지고 적골산이 신설된 것으로

로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해재곡이 소이산과 미로곡과의 후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소이산에서 적골산은 17Km나 되어 해재곡보다 더욱 멀어졌으며 그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지도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뒤에 할미산봉수가 증설된 것으로 보인다.

할미산 봉수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구수동의 할미산(200m)정상에 있으며 일명 구수동 봉수라고도 한다. 산정상은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으나 남쪽봉우리가 더 넓고 석재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봉수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산8~9부 능선을 따라 둘레 약200m 정도의 석성이 남아있다. 이석성에 관한 문헌도 일체 없으며 산의 크기나 성의 규모가 적고 정상부근에 대피할 수 있는 곳이나 우물도 없다는 점에서 이성은 山城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일시적 피난처로서 보인다. 여러 가지 유물로 보아 봉수보다 성이 먼저 빵은 것으로 보인다.

적골산 봉수지는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의 중군봉(250m)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명 중군봉봉수라고도 부른다. 정상의 봉수지는 완전 멸실된 상태이어서 봉수의 흔적은 전혀 없다. 봉수의 형태에 관해서는 조선보물고적조사 자료에 장경9간, 단경 4간의 石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다. 해재곡이 없어지고 대신 새로이 신설된 봉수로 보인다.

彌老谷 봉수지는 포천군 영북면 야미리의 165m야산 봉화뚝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모든지리서에 명장이 보이는 중요한 봉수지이며 며로곡이라고 불리운다. 정상부분의 북쪽과 남쪽으로는 석축이 남아있다. 그리고 석축위에 만곡형의 원형이 남아있다. 연조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돌무더기가

남아 있으며 연조로 추정되는 곳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차지하고 있다. 해방전에는 연조가 제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이 주민의 말이다.

禿山(禿峴)봉수는 포천군 신북면 가지리의 독산(225m)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烽墩은 비록 붕괴된 것으로 보이나 4개의 연조를 확인할 수가 있다. 연조 기단부는 토석혼축이며 동서직경 17m, 남북직경 14.5m의 타원형이다. 연조는 3개의 경우 직경 1.8m의 원형이고 나머지는 2.9m×0.9m의 크기이다. 다섯 번째 연조의 위치는 동쪽일 것으로 보인다. 봉수지 주위가 넓어 봉수군의 가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뱃돌 한 개가 수습되었다.

임읍점 봉수는 포천군 가산면 우금리 산86-1의 294m고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명칭이 임읍현, 광산, 광현 네재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 오고 있으나 의미는 모두가 같다.

전체적으로 보아 일부 인멸된 곳도 있으나 독현 봉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그 윤곽이 남아있다. 연조 기단부는 남북직경 35m, 동서직경 14m의 타원형으로 削土에 의해 만들어진 토축 기단부이다. 정상부분은 성토한 후 다섯 개의 연조를 석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5개의 연조가 대개나마 확인된다.

대이산봉수는 남양주군 연평리의 173.5m고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봉수의 다른 명칭은 가구산(세종 실록지리지), 한이산(여지도서, 대동지지, 대동여지도, 증보문헌비고)등이다. 정상부근에 자세한 봉수터는 없고 지름 4m 정도의 원형분지가 남아있고 주위에 전제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석축이 다소 남아 있다. 주위의 돌을 이용해서 직경30cm 높이110cm정도 되는 최근의 석탑이 하나 놓여있을뿐이다. 한국

의 성곽과 봉수에서는 아차산을 대이산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다.

아차산봉수는 현재 서울시 중랑구 목동과 신내동 경계지역에 있는 봉화산(138m)봉수에 위치하고 있다. 수년전 거의 멀실된 이 봉화산 정상에 새로 이봉돈을 복원해 놓았다. 봉수의 원래 모습은 조선보물고적조사 자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의하면 2단의 土壘를 쌓고 그위에 4개의 발화 석축 대가 있었으며 제일단 토루는 주위가 100간, 높이가 1간이며 2단토루는 주위가 36간의 삼각형에 높이가 2.5간이다.

조사가 가능했던 8개의 봉수간의 거리는 진촌산 → 소이산 (13km), 소이산 → 해재곡 (14km), 해재곡 → 미로곡 (10.5km), 소이산 → 할미산 (10.5km), 할미산 → 적골산 (6km), 적골산 → 미로곡 (8km), 미로곡 → 독산 (14.5km), 독산 → 임읍점 (11km), 임읍점 → 대이산 (13.5km), 대이산 → 아차산 (13km), 아차산 → 목멱산(13km)로서 평균봉수거리는 11.5km에 해당한다.

합경도에서 목멱제1봉으로 연결되는 이 봉수망은 북방야인의 침입에 대비한 第一炬路線으로 불리울 만큼 중요한 봉수망이지만 다른 봉수노선 특히 第五炬路線(순천 - 한성)이나 第四炬路線(의주 - 한성)과 비교해 보면 보다 일찍이 멀실되어 봉수지 확인이 어려운곳이 많을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봉수지도 연조의 숫자는 물론 峰墩 또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가 많았다. 이는 内地봉수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해안봉수들은 봉수가 설립된 후 지방 수령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수하는 등

관리유지에 노력을 기울인 방면 제1거노선의 경우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곽이나 봉수등은 외부의 침입이 자주 있었을 경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수하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 관방유적들은 빨리 붕괴되어 멀실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해안방면은 왜구등의 침입이 잦고 특히 의주쪽으로부터는 북방민족의 침입이 잦은 반면 그 후 함길도 지역으로부터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큰 군사적 침입이 적었다는 데에서 답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산과 잉읍점봉수는 비교적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고 서울 근처의 아차산 봉수등이 복원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1거봉수의 명맥은 확인되는 셈이다. 현재 철원의 소이산 봉수는 군작전지역이긴 하나 조선시대에 매우 중요한 봉수였음을 고려할 때 군과 협조하여 봉수터의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가능한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독산, 미로곡, 대이산 역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리하고 본다.

지금까지는 주로 문헌과 관련있는 봉수들에 관해서 연급을 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에는 문헌에는 없으나 구전상으로 전해져 오거나 아니면 可觀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봉수터가 몇군데 있었다. 철원군에는 이러한 봉수터로서 상사봉봉수지, 덕령산봉수지, 삼송봉봉수지, 상해암봉수지 등 4곳이 있었다.

그중 상사봉 봉수지는 갈말읍 상사리 314m의 산봉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314m고지는 봉수가 만들어 지기 어려운 지형이었다. 오히려 이고지에서 서쪽으

로 내려온 능선형의 고지에서 일부 연조의 혼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이를 봉수지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봉수는 조선시대의 자리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조선보물고적조사 자료와 문화유적총람에 그 규모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뿐이다. 조선보물고적조사 자료에서는 장경7간, 단경4간의 적방형 토루가 있었다고만 되어 있을뿐 연조와 관련된 설명은 없다. 문화유적 총람이나 철원군지는 단지 이기록을 바탕으로 상사봉봉수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뿐이다.

덕령산봉수지는 일제문현상의 기록은 없고 철원군지에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근거로 기록하고 있다. 즉 갈말읍 토성리의 덕재(589m)정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는 아무런 혼적도 찾아볼수 없다. 다만 산이 높아서 멀리 김화지역의 소이산봉수와 삼사봉봉수 및 삼송봉, 상해암을 다 바라다 볼 수는 있다. 이산에 올라서면 과연 이렇게 높은산에도 봉수를 만들었을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된다.

삼송봉은 동송읍 하갈리의 넓은 벌판에 홀로 우뚝솟은 219m의 산봉정상을 말한다. 6·25전쟁시는 아이스크림고지의 격전장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역시 문현상의 기록은 없고 철원군지가 구전을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 벌판에 우뚝솟은 봉우리라는 점에서는 할미산봉수나 적골산봉수와 매우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문현상에 나타나 있는 봉수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가깝다.

상해암봉수지는 철원군 서면 자동리의 516m고지에 있는 것으로 철원군지에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결과 이근처에는 봉수지의 혼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아무런 문현상의 근거도 없었다. 다

만 동네에서 봉화터라고 전해져 올뿐 그 규모에 대해서도 아는바가 없다.

구전되거나 문현의 기록이 없는 위의 네봉수지에 대해 철원군자는 김화의 소이산 봉수지와 관련하여 소이산 → 상해암 → 덕령산 → 삼사봉 → 할미산이라는 노선과 소이산 → 상해암 → 덕령산 → 삼송봉 → 할미산 노선의 두가지로 봉수탕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무런 근거를 찾을수 없으며 봉수거리나 시야의 연결에 있어서도 설명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철원군지의 봉수향목의 집필자도 이러한 봉수망의 연결은 하나의 시도일 뿐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흔히 깊은 산골에는 숯굴들이 있게 마련이고 일제하 독립운동시 마을주민들이 뒷산에 모여 횟물을 올린 훈적들도 더러 찾아볼수 있다. 그런가하면 정월대보름날 쥐불놀이를 즐기는 장소로 인근야산의 봉우리를 이용할수도 있었으며 变亂이 일어났을시 이를 알리기 위해 산정상에서 불을 짚었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봉화로 잘못 전해져 올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봉화터의 훈적이나 위치, 그리고 전후봉수와의 연결상태 및 문현과의 판계등을 고려하여 봉화터 진위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포천군 일대에도 이와같이 구전되어 오는 봉수지라는 것이 세 개가 있다. 그중 포천군 가산면 방축리 산16-1의 화봉산(182m)봉수지라 구전되는 것은 정상이 큼직한 화강암 암반들로 구성되어 있어 봉수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는 북쪽으로 10km떨어져 독현봉수가 있고 동남쪽 4km뒤에는

임읍점 봉수와는 4km 떨어져 있으나 시야가 가려 서로 대응할수 없다. 이로보아 대보름날의 민속놀이가 이산정에서 오랫동안 행해지면서 봉화터로 잘못 불리워졌을것으로 추정된다. 그외 포천군 화현면 길명리 산112번지의 282.5m고지에 있다는 길명리 봉수지나 포천군 영중면 거사리 산661번지 금화봉(254m)에 있다는 봉수지도 현재는 산정상에 골프장 공사와 체석장으로 인멸상태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봉수지라기 보다는 역시 민속놀이와 관련된 곳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III. 경기 중북부 지역의 봉수지

이 지역은 오늘날 연천군 일대에 해당되며 임진강본류와 한탄강이 만나는 지역일대에 해당된다. 조선시대로는 삭녕, 마전, 연천, 적성 및 양주일부가 해당되는 지역이다. 이지역의 봉수에 관해 조선시대의 자리서등에는 아무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일제시대에 출판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車灘里봉수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일대에는 구전되는 봉수를 실제 조사한 결과 봉수터라고 말할 수 있는 곳 6개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된 이 봉수들의 분포위치는 남북으로라기보다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 지역 일대의 봉수지를 요약하면 아래표 및 지도(부록 2참조)와 같다.

번호	봉수지명	위 치	비 고
①	두루봉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	구전, 일부잔존
②	아미리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구전, 일부잔존
③	고성산	연천군 황경면 무등리	구전, 일부잔존
④	차단리	연천군 연천읍 차단리	문헌, 멀실
⑤	눌목리	연천군 천곡읍 놀목1리 놀목봉	구전, 일부잔존
⑥	간파리	연천군 천곡읍 간파리	구전, 일부잔존
⑦	국사봉	연천군 신서면 담곡리	구전, 멀실
⑧	금굴산	연천군 미산면 동이라	구전, 멀실
⑨	장단리	연천군 청산면 장단2리	구전, 멀실
⑩	장파리	파주시 장파1리 산 51-4	구전, 멀실

연천군내 봉수지 일람표

두루봉봉수는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와 파주군 진동면 용산리의 경계지에 있는 조그만 두루봉(57m)에 위치하고 있다. 동네사람들은 이봉수를 반정리봉수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의 중언에 의하면 6·25 전까지는 봉수지가 잘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봉수지로 추정되는 정상은 둘레 40m 정도의 타원형의 토석흔적으로 되어 있으며 정상부근의 평지는 남북 13m, 동서 8.5m의 장방형으로 그위에 흙과 돌의 혼합물이 돌출부를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정상주위에는 공공시설이 있으며 여기에는 쓰인 돌들은 오래된 판석들로서 정상에 있던 석축을 이용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돌의 봉괴상태등으로 보아서는 개축한 흔적은 없다.

남쪽으로는 임진강건너 멀리 파평산이 보이나 북

쪽은 남방한계선과 거의 현해 있어 산으로 인해 시야가 가린다. 이에 비해 동쪽으로는 아미리봉수와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어떤 봉수지라고는 말할수 없으나 관망이 매우 좋아 동서로의 연결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여진다. 일부 수습된 유물들은 대개 고구려계통의 기와가 중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미리봉수는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의 능선 중 140m의 봉우리에 있으며 동남쪽으로 임진강과 그 대안의 넓은 지역이 관망된다. 정상에는 일부 붕괴된 봉수지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된다. 붕괴된 연조는 1개였고 거의 원형이었으며 외부 지름은 650cm였다. 내부 함몰된 부분은 적사각형으로 남북 300cm 동서 210cm 깊이 80cm 정도였다. 연조주위는 약 1m내외의 석재가 둘러쌓여 있었고 이 돌들은 밑으로 많이 훌러내렸다. 연조 내부 벽면 역시 석재로 쌓여져 있었다. 유물은 없고 불에 그을린 석재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봉수지 서쪽으로는 두루봉봉수가 있어 서로 대용이 가능하다. 또한 남쪽 강건너에는 놀목리 봉수와도 연결이 가능하고 동북쪽으로는 고성산봉수와 대용할 수 있다. 연조는 비록 한 개이지만 매우 큰편에 속하고 어느정도 원형은 보존하고 있는 편이다.

고성산 봉수는 연천군 왕정면 무등리와 북삼리의 경계지역의 고성산(150m)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아미리 봉수와 대용이 가능하고 동쪽으로는 차탄리 봉수와 대용이 된다. 대형 봉분같은 형태이며, 정상은 함몰되어있다. 함몰된 내부 둘레는 14m, 지름은 4m이고 함몰부의 깊이는 1.8m이며 옆의 사면(30° - 40°)으로 석재가 훌러내렸고 함몰부안에는 불에 그을린 석재들이 무너져 내려있다. 전체

적인 모양이 아미리 봉수와 유사하다. 동네에서는 봉수지로 알고있거나 또는 삼국시대의 성으로 알고 있다. 이 봉수가 있는 임진강 此岸에는 무등리성지, 우정리성지등이 같은 능선상에 있어 강을 건너는 침입세력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차탄리봉수는 연천군 차탄리와 군남면 황림리의 경계인 봉화봉(244m)정상에 있는 봉수이다. 조선보물고적조사 자료에만 설명이 되어있다. 고려시대 봉수로 불리워 졌으며 오랜세월이 흘러 아무런 유물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보아 일제시대에 이미 이봉수는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6·25이전에 둘레 약 20m 높이 1m 되는 연대와 연조가 남아있었다고 하나 확인이 불가능하다. 서쪽으로는 고봉산과 대웅이 가능하며 동남쪽으로 장탄리 봉수와 연결될 수 있다.

눌목리봉수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놀목1리에 남북으로 뻗은 능선상의 봉우리 정상(410m)에 자리 잡고 있다. 연천군 일대에 남아있는 봉수지중 가장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봉수지는 남북으로 약간 긴 타원형으로 남북7m, 동서5m 규모이고 그안에 남북 210cm, 동서 180cm, 깊이 80cm~100cm정도의 타원형 연조가 남아있고 연조속에는 옆에서 무너진 돌들이 채워져있다. 북쪽과 동쪽으로는 석축기단이 다소 남아있으며 서쪽과 남쪽은 돌이 흘러내렸다. 특히 석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북쪽으로는 임진강 건너 수월성, 아미성이 보이고 아미리봉수와 대웅이며 뒤로는 갑악산, 오른쪽으로는 마차산봉수와 대웅이 가능하다.

간파리봉수는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와 양주군 은현면과의 경계의 위치하고 있으며 서북쪽으로는 놀

목리, 동남쪽으로 마차산봉수지 사이에 있다. 현재 이곳 봉수지에는 공공시설이 들어있고 그앞으로 봉수에 사용됐던 석재들이 많이 훌려내려있으며 봉수지는 멀실되었다. 구전되어오는 이야기나 사용된 석재 및 불에 그을린 석재등을 볼 때 봉수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봉수는 좌측의 높목리와 너무 가까이 있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북쪽 37번도로와 368번 도로가 맞나는 지점까지 감제가 용이한 점이나 이고갯마루가 뒤로 동두천 일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남북으로 연결가능성도 일단 추정해 볼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매우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6개의 봉수지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봉수지의 모습을 확인할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외에 이 지역의 촌노들에 의해 구전되어오는 봉수들이 몇 개 더 있으나 다른 시설물이 서있다던가 아니면 봉수지의 흔적이 전혀 없는것들이었다. 예를들어 국사봉봉수지는 연천군 신서면의 담곡리와 마전리 경계지역의 국사봉(338m)정상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정상부근에는 6·25와 관련된 많은 참호들이 산재해 있어 봉수지 확인이 어려웠다. 다만 정상에는 많은 기와 편과 토기등이 발견된점으로 미루어 보아 건물이 있었다고 볼수는 있다. 그외 미산면 동이리 금굴산(196m)봉수는 완전 멀실되었으며 청산면 장단2리 봉화봉에 있었다는 장단리 봉수는 고암전주가 들어서 확인이 어려웠고 미산면 광동리와 백석리사이의 봉화재(179m)역시 6·25로인해 멀실된 상태이다.

이제 끝으로 위에 언급한 봉수지에 관해 역사적 중요성과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들 봉수들은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봉수지의 모습을 다소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에 열거한 것들 가운데에는 더욱더 세심한 조사와 연구가 뒤따라야 할 점도 없지는 않지만 출토되는 유물이나 전설 및 일부 문헌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봉수들은 조선시대의 봉수망이 아니라 고려 또는 그 이전으로 시기가 올라간다고 생각된다. 이와 동시에 조선시대의 지리서의 단 한 곳에도 이들 봉수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찍이 폐허화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봉수들이 고려이전 삼국시대에 설립되었을 가능성부터 살펴보자. 우선 이 봉수들이 놓여 있는 위치들은 대개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쪽에 동서로 서로 나란히 놓여 있다. 두루봉, 아미리, 고성산이 강북안 근처에 있다면 늘목리, 간파리, 차탄리 등은 강남쪽의 봉수들이다. 그 외 구전되는 금굴산, 국사봉은 강북에 있고 장탄리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어 거의 균등하게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임진강은 과거 삼국시대에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이 대치하는 國境河川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다. 한때는 고구려와 백제 간에, 다음으로는 고구려와 신라 간에 그리고 통일후에는 당나라와 신라 간에 국경역할을 해온 하천이다. 따라서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상호 영토침입을 위해 술한 첨전이 이루 어졌으니 이 강은 최전방 경계선인 셈이다. 따라서 강북이나 강남 세력은 모두 군사력을 강안에 배치하여 적의 침입을 저지하였으며 침입 세력의 渡江을 저지하기 위해 戰線이 강을 사이에 두고 길어졌으며 따라서 적의 도강 침입에 대비하여 적의 침입을 좌우로 알리기 위해 임진강을 연하여 봉수를 설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임진강안 남

북양쪽에 축조한 삼국시대 성지들도 마찬가지다. 즉 임진강 남북 강안에는 천년이 넘은 많은 古城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이다. 이지역의 봉수지 또한 이러한 고성들과 거의 같은 지역에 연해서 발달 되 있는게 특징이다. 이렇게 볼 때 이봉수들은 도강 하여 침입하는 적의 내침을 아군 좌우진지에 연락 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이봉수 지에서 삼국시대의 기와나 토기들이 수습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고 하겠다.

기록상 우리나라에 봉수제가 시작되는 것은 고려 중기(12~13세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침입을 알리고 상호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일반적인 통신수단이 봉수란점을 고려할 때 각축이 가장 심했던 삼국시대의 임진강주변에 이러한 봉수의 초기 형태가 존재 했었을것이라는는데에는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비록 시설은 다양하지 않고 간단했지만 돌로 견고하게 쌓았으며 아직은 봉돈도, 또 여러개의 연조도 없이 하나로 운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지역 봉수들은 삼국시대에 해당되는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으나 문헌상 기록의 부족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다소 어렵다.

다음으로 생각할수 있는 것은 이봉수들을 고려시대의 봉수로 간주해 보는 견해이다. 이민족의 침입을 알린다고 생각할 때 대개 암록강하류를 건너서 들어오는 침입은 여진족, 몽고족, 거란족 등이었으며 바다쪽으로는 분명 왜구의 침입에 대향하는 의미가 컸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초기 세종실록지리지에 등장하는 동해안의 많은 봉수들이 고려시대 이지역을 통해 침입하는 왜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봉수들이 강원도 북쪽 태백산맥을 넘어 철원의 소이산으로 연결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목멱산으로 연결된 것으로 설명한바 있다. 영동지방의 봉수들이 고려시대의 것이라면 결국 송악으로 연결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강원도 동해안 북방에서 넘어오는 봉수들은 적어도 철원지방에서 서쪽으로 연결되어야 할것이며 그런점에서 경기 북부 일대의 봉수들이 이역환을 했을것으로 생각할수 있다. 이일대의 봉수들이 임진강을 중심으로 하여 넓게 좌우로 분포되어 있고 또 이들이 남북보다 좌우로 서로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이 더욱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현재 이지역의 봉수지가 문헌에 의해 대응관계가 밝혀진 것도 아니며 구전에 의해 확인되는 설정임으로 정확히 철원 지역에서 개성방향으로 연결되는 봉수망도를 작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봉수지들이 세종실록자리지에 실리지 않은 이유는 이봉수망이 한성으로 집결되는 봉수가 아니며 그런점에서 조선초 세종때에 개수하거나 증설할때도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조선시대에 이르러는 불필요한 고려시대의 봉수망을 자리지에 수록할 필요도 없었고 따라서 일찍이 멀리되 갔다고 볼 수도 있겠다. 위의 두가지 가설중 어느것이 타당한가하는 문제는 현재로는 증명할 자료가 없다. 아니면 이 가설이 전혀 사실과 다를수도 있을 것이다. 문헌자료가 없는 점을 바탕으로 한 해석상에 상당한 무리와 오류가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상세한 조사와 문헌연구등으로 이지방의 독특한 봉수들이 실제가 들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IV. 서북지역의 봄수암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고양군, 파주군, 창단군 등 한강이북지역을 말한다. 지금까지 이지역에 관해 알려져온 조선시대의 봉수는 강계에서 내륙을 거쳐 한성으로 올라오는 第三炬 直烽路線과 의주에서 해안을 거쳐 한성으로 올라오는 第四炬 直烽路線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이지역의 봉수노선은 어떻게 변했는지 조선시대의 문헌을 토대로 알아본다.

<세종실록지리지의 봉수방>

제 3로 : . . . 송악→천수산(임강)

(개성) 4

도라산→성산(원평)

(임진) 4

소달산→무악동봉→목멱제3봉

(교양)

제 4로 : 송악(개성)

1

단절→검단상(교하)

《胡琴》 1

성사(고양)→봉현(고양)

1

문학선물→문예제 4부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제 3로를 평안도, 황해도로부터 육로로 올라오는 봉수로 보았고, 제 4로는 평안도, 황해도로부터 해로로 오는 봉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송악의 경우는 제 3로에서는 위로 송악 → 성산(강음) → 남산(평산) → 봉자산(평산) · · 등으로 이어지고 제 4로는 송악(개성식단) → 미타산(백취) → 차자산(백취) → 각

산(백천) → 백석산(연안) 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송악에는 두 개의 봉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 3로 중 남한에 있는 봉수는 도라산(임진) 성산(원평) 소달산(고양)과 무악동봉이며 제 4로는 검단산(교하), 성산(고양), 봉현(고양), 무악(서봉) 등이다.

< 동국여지승람 및 동국여지지의 봉수망 >

제 3로 : 송악산국사당 → 천수산 → 도라산 → 대산(파주) → 소질달산(고양)무악동봉 → 목멱제 3봉

제 4로 : 송악산 성황당 → 턱적산 → 금단산 → 고봉산 → 봉현 → 무악서봉 → 목멱 제 4봉

위의 세지리지를 통해 볼 때 봉수망은 하등 변화가 없다. 제 3로의 경우 성산(원평)은 대산(파주)이고 소질달산 또는 소달산(고양)은 후에 독현(고양)을 뜻한다. 제 4로에서 성산(고양)은 고봉산을 뜻한다. 이와같이 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된 1454년부터 동북여지지가 출판된 1656년까지의 202년간 봉수로의 명칭은 약간 변했지만 봉수의 위치는 변한바 없다.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는 늦어도 1709년이전에 제작된 봉수지도인데 이지도에는 봉수의 위치를 표시는 했으나 봉수의 상호대응관계에 관해서는 명확한 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성송악으로부터 한성에 이르는 사이에 위의 나타난 봉수명칭들은 모두다 명시되어있다. 다만 봉수의 위치가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봉수노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지도의 봉수망은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의 것과 같다고 생각된다. 이 봉수지도의 제작연대를 숙종20년(1694년)에서 숙종35년(1709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국여지

지(1656년 제작)와는 사오십년 차이 밖에 나지 않은 점에서 더욱더 일치된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봉수지도에는 봉현 봉수가 없고, 해포봉수가 등장하고 있다. 이점은 제3로의 경우 독산과 무악(동봉)사이에 해포봉수가 신설된 것으로 보이며 제 4로의 경우 봉현봉수가 없어집에 따라 고봉산에서 무악서봉으로 직접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대동지지와 대동여지도 및 증보문현비고를 보자.

<대동지지와 대동여지도 및 증보문현비고의 봉수망>

송악국사당 - 도라산 - 대산 - 독산 - 해포 - 무악동봉
- 목멱3봉 - 송악성황당 - 덕적산 - 형제봉 - 고봉 -
무악서봉 - 목멱4봉(오두성)

대동지지와 대동여지도는 둘다 孤山子의 저술이고 또 저술시기도 몇 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대동여지도는 봉수의 위치가 분명한 반면 봉수끼리 상호 대응관계가 다소 불명확한데 비해 대동지지는 봉수의 상호연결을 기술하고 있어 서로 보완이 된다. 우선 위 두 문헌에 있어서 상호 다른점은 없다. 다만 같은봉수를 대동여지도에서는 오두성으로 기록하고 대동지지에서는 형제봉으로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즉 1759년에 출판된 여지도에서 겹단산을 형제봉으로 옮겼다고 기술한바 있는데 대동여지도는 이를 오두성이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두성은 겹단산 서쪽 1km지점에 있다. 이런점에서 볼 때 같은 저자에 의해 집필되었고 집필시기도 거의 같은 시기의 두 저작의 오두성은 곧 형제봉으로 이해할수 있겠다. 그리고 1908년에 편찬된 증보문현비고의 봉수망은 대동지지의 봉수망과 전혀 일치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문헌에서 공통적인 것은 제 3로의 송악국사당과 도라산사이에 천수산봉수가 없어졌다 는 점이다. 이것은 우연한 일치라고 볼수는 없고 결국 필요가 없어서 폐쇄된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가 싶다. 그러나 도라산에서 개성까지의 거리가 최소한 18km인점을 감안할 때 기온이나 기후등의 영향으로 교신이 과연 순탄하기만 했을까하는 생각을 도라산 정상에서 멀리 송악산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다. 서북지역봉수망은 다른 지역의 봉수망과 달리 평안도와 황해도를 지나 내륙으로오는 제 3거 직봉노선과 해안지역으로 들어오는 제 4거 직봉노선의 두 직봉노선이 서로 밀접하게 가까워 지면서 한성으로 같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내륙 노선인 제 3거 직봉노선은 함길도의 제 1거 직봉노선과 같이 세종이 야인을 정벌하여 영토를 확장한 후에라야 봉수 설치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에 잔존했던 봉수터가 아니라 세종때 새로 신설한 봉수노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세종이 설치한 4군지역에는 자성에 7개소, 여연에 4개소, 무창에 11개소, 우예에 5개소 등 모두 27개 봉수를 조밀하게 설치했었다.

이에 비해 4거노선인 해변봉수는 왜구와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세력에 대비한 봉수망으로 해안의 도서지방을 포함하고 특히 조선초에는 교동도와 강호도와 통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고려의 봉수를 근간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 3거 및 제 4거 노선상의 봉수는 도라산을 비롯해서 모두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답사와 조사가 가능하였다. 이 일대의 봉수지를 요약하면 아래표 및 지도(부록3 참조)와 같다.

번호	봉수지명	위치	비고
①	도라산	광단군 도라산	비무장지대
②	대산	파주군 주내면 봉암리	멸실
③	검단산	파주군 성동리 검단산	일부잔존
④	고봉산	고양시 일산구 고봉산	멸실
⑤	독산	고양시 고봉동 독산	보존
⑥	봉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봉산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봉산	멸실
⑦	해포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봉대산 정상	멸실
⑧	무악봉	서울시 서대문구	복원
⑨	행무봉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구전, 멸실

서북지역 봉수망 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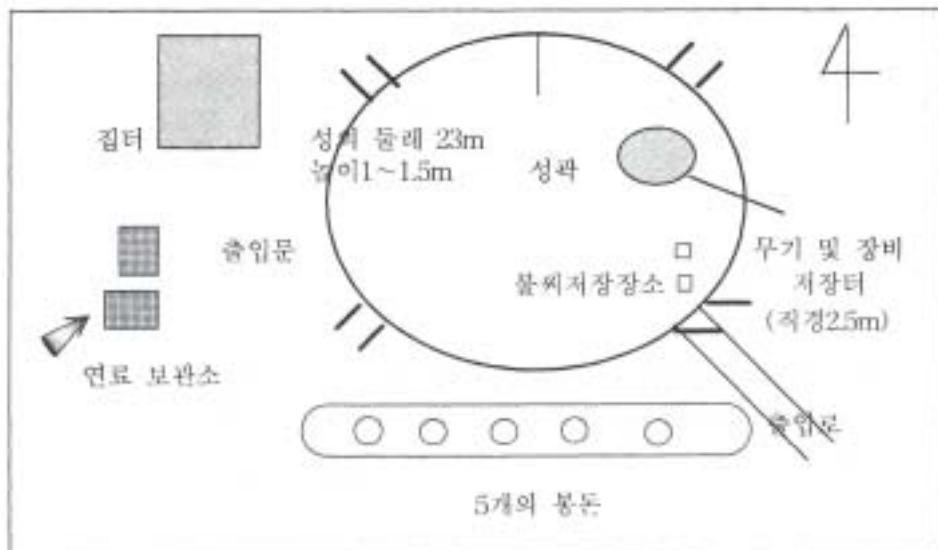
도라산 전망대는 현재 비무장지대안에 있으나 사전에 군당국에 신청만하면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다. 봉수지의 위치는 전망대가 위치한 지역이 아니고 동쪽 정상부분으로 북을 향한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봉우리로 그곳의 장기 거주자의 말을 빌리면 정상에 많은 석재들이 모여 있는데 현재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아주멀리 송악산이 보이나 여간 날이 맑지 않고서는 시야가 흐려 관측이 매우 어려운 실태이다. 북서쪽으로 덕적산으로 추정되는 봉우리역시 관측은 가능하였다.

대산봉수는 현재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봉암리의 대산(82m)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초에는 성산(원평)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성산은 파주서면의 봉서산을 치칭하는 것인데 대산이 성산서남쪽 1.5km지점에 인

접해 있음으로 얻게된 명칭이 아닌가 싶다. 주위 사람들은 봉암리 봉수라고 부르고 있다. 봉수터는 이 산의 정상에 위치하였으리라 추측되나 정상은 다른 시설물들이 이미 들어서 있어 봉수터는 완전 멸실되었다. 다만 대산의 정상 동편측에서는 다량의 토기와 자기편이 수습되었다.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건물은 봉수터의 부속건물로 보인다. 많은 석재들이 이지역 시설물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연조로 사용되었던 석재로 추정된다.

소달산은 고양시 고봉동과 문봉동경계에 있으며 그명칭도 다양하다. 문현에는 소지달산, 독산등으로 불리워 졌으며 구전되는 이름은 문수산봉수, 솟달봉수, 소아달봉수등이며 높이는 133m이고 서남쪽 고봉봉수와는 3.5km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이봉수는 다른봉수와 달라 구조도 특이하며 부대시설도 비교적 확인되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여 앞으로内地 봉수 연구의 귀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달산 봉수 평면도)



우선 정상에는 둘레 23m, 높이 1~1.5m로 쌓은 원형의 성곽이(?) 자리하고 있으며 봉수터는 이성안에 있지않고 성밖 남쪽에 별도로 동서로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위로 넓은 평지에 건물지가 나타나며 서쪽아래로는 돌로 쌓았으나 다소 붕괴된 4각형의 석재시설이 나타난다. 성곽안은 평지이나 동편에 직경 2.5m, 깊이 70cm정도의 큰 원형 구덩이가 있고 다시 남쪽 아래에 1m×60cm정도의 작은 사각형 구덩이 둘이 있고 성곽에는 4방으로 폭 1m 정도의 출입구가 4곳이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 5개의 봉돈이 있는 봉수터와 원형성곽은 상호 유관한 시설로 보이며 그런의미에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이봉수를 발견하고 정성껏 관리해오고 있는 김득환씨(고양군 체육회 부회장)는 원형 구덩이를 연못자리로 추정하고 조그만 4각형 구덩이를 음식물 저장고로 추정하고 있다. 원형구덩이를 연못으로 보기위해서는 이곳이나 주변에 수로나 샘의 흔적이 있어야겠으나 그런흔적은 없는편으로 보아 이곳에 반쯤 땅에 묻힌 움집형태의 건물을 만들고 이곳에서 성곽을 지키기위한 무기나 기타장비들을 보관한것으로도 볼 수 있다. 건물지는 성곽밖에 있음으로 이곳에서 침입하는 야생동물이나 침입자를 막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식물 저장고라고 추정하는 4각형 구덩이를 오히려 불씨와 관련된 자료들도 같이 보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서쪽 둘로 쌓은 시설들은 쪽이나 싸리나무, 짐승의 배설물, 숯 등 봉화의 재료를 쌓아둔 창고로 보인다. 특히 지난 8월14일에는 김득환씨가 주체가 되어 고양문화원의 후원하에 이

곳에서 통일기원 전국 봉화제를 올린바 있어 이지역 봉수보존과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봉돈지는 모두 5개가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의 석재가 흘러 내려 주위에 널려있는 상태이다. 이봉수는 나무말뚝으로 짹아서 침입을 방지하는 대신 석재로 성곽을 쌓은 봉수로 보인다. 내지 봉수로서는 특이할뿐만 아니라 비교적 시설도 잘남아있어 앞으로 가능한한 발굴과 복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제 4거직봉노선상의 겸단산 봉수는 오두산성 동쪽 1km지점 150m 고지인 겸단산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 문성왕 9년(847년)에 금단대사가 지은 사찰이름에서 산이름이 나온 듯 하다. 명칭도 처음엔 黑丹山으로 불리웠으며 뒤에 僧丹山으로 변했다. 이 봉수는 덕적산 봉수와 고봉봉수 사이에 있으나 여지도서에서 밝힌바대로 폐쇄시키고 앞에 있는 오두산(형제봉)으로 옮긴바 있다. 내지 봉수인 관계로 연대는 쌓지 않고 연조만 설치 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두 개의 연조가 뚜렷이 남아있다. 하나는 원형이고 다른 하나는 4각형이다. 원형은 지름이 290~330cm에 깊이가 170cm이고, 4각형은 170cm×200cm에 깊이가 90cm정도였다. 두 연조사의 거리는 약1m이고 연조 주위에 흘어진 돌로보아 맹수의 침입을 막기위해 돌담을 쌓았던 흔적이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고봉봉수는 현재 일산의 고봉산(209m)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봉수의 명칭은 조선전기에는 성산(고양), 고봉성산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하였는데 산정상 부근에 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전기에는 겸단산과 봉현사이를 연결했으나 후기에는 봉현이 폐지된후 바로 무악동봉으로 연결되었다.

현재 이 지역은 큰 철탑이 정상부를 차지하고 있어 봉수지는 멀실된 상태이나 주위에서 많은 기와편과 토기편이 발견되고 있다. 연조주위에 큰 나무들이 조밀하게 둘러쳐 있었다는 현지 노인의 말이나 현지에서 베어버린 큰 나무그루터기를 볼 때 주변에 야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책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현봉수는 원래 고봉과 무악 서봉사이를 연결하는 봉수로 시작되었다. 세종실록자리지, 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에는 이와같이 설명이 되 있으나 뒤에 와서는 조선의 자리서에 그이름이 빠지고 있다. 조선팔도봉수산악지도와 그뒤의 여도비지, 대동여지도, 대동지지 및 중보문현비고에는 이름이 빠지고 같은 지점부터 해포봉수가 기록에 보인다.

蜂峴은 현재 서울 갈현동 부근의 수국사 일대의 언덕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벌고개, 벌말 등 옛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기는 하나 현재 이곳에는 석재들을 약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며, 다른 시설이 들어있는 형편이다.

해포봉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세기 이후의 자리서에 새로이 나타난 봉수로서 독산에서 받아 무악 동봉으로 연결하고 있다. 즉 독산과 무악 동봉사이에 새로이 신설된 봉수로 보여진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대동여지도에 행주산성 동북 2km지점으로부터 현 봉대산(93m)고지 정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다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봉수는 이미 멀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시대의 문현에는 나타나지 않는 봉수지가 한 곳 전해지고 있다. 앵무봉수로 알려진 이 봉수는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에 있는 앵무봉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는 공공시설이 들어있어 봉수지는 멀실 단계에 있으나 일제시대의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그 크기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주위가 53간이고 석축의 높이도 4척내지 6척이 되는 석재로 된 봉수지로 되어있다.

다른 문헌이 없어 어떻게 다른봉수와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서북지역의 제3·제4기 직봉노선은 세종때 설립된 후 친수산, 형제봉, 봉현, 해포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폐지된 것 2곳과 이설 및 신설된 것 2곳이 보이나 대체로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평야지대에 놓여있어 많은 봉수들이 빨리 멀실됬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 있어 크게 훼손되었다.

이지역 봉수간의 거리는 도라산-대산(13km), 대산-독산(14km), 독산-해포(12km), 해포-무악동봉(5km), 김단산-고봉(13km), 고봉-봉현(14km), 봉현-무악서봉(4km)로서 봉수간의 평균거리는 10.5km이다.

V. 緒 言

경기북부지방에 분포되어있는 봉수지는 지역적으로 제 1기봉수로에 해당하는 철원군, 포천군, 일대의 동북지역과 연천군 일대의 봉수지 및 제 3기 및 제 4기 봉수로에 해당하는 파주, 고양, 교하 일대의 서북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동북지역의 봉수는 함길도에서 오는 내륙봉수와 강원도 일대의 해안에서 오는 봉수가 철원의 소이산에 합해져 한성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봉수로였으나 18세기부터 강원도 일대의 봉수망은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철원의 소이산부터 아차산봉수까지의 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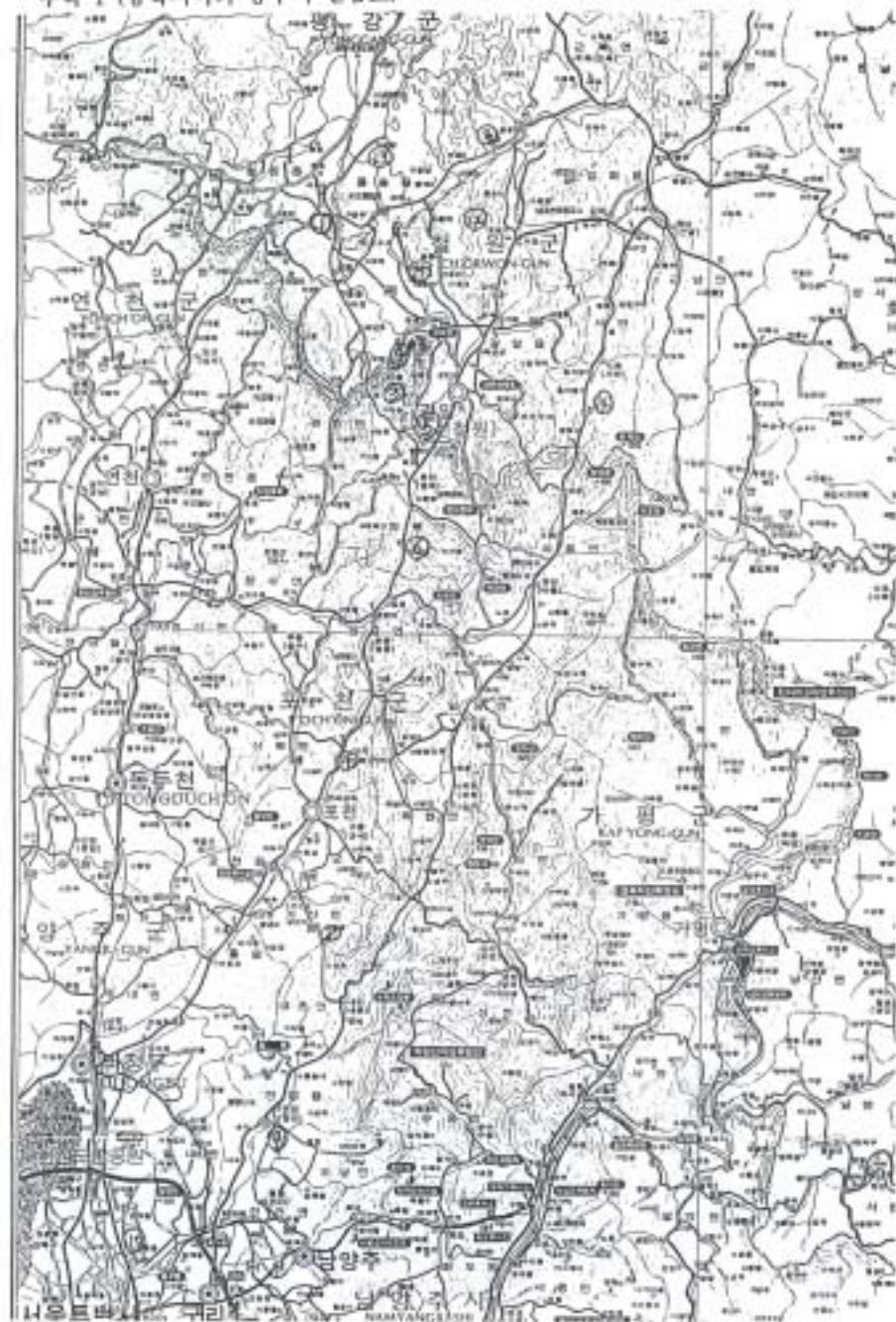
봉수들은 연대도 비교적 간단하고 연조수도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봉수지모습이 제대로 확인 가능한 것은 독산, 잉읍점 정도이다. 한길도의 야인의 침입에 대비한 봉수망이지만 조선조중기 이후 특별한 변란이나 침입이 거의 없어 이 지역 봉수지들은 서로 수축되지 않은 채 태반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었다. 경기 중북부의 봉수지들은 조선조 자리서에는 일체 기록이 없으나 특이한 형태로 남아있다.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주로 동서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과 이 봉수들의 연조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이전의 봉수로 보인다. 현재로는 이들이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상호각축했던 삼국시대의 봉수 아니면 동해로부터 오는 봉수를 받아 개성으로 연결되었던 고려시대의 봉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요망된다.

서북지역의 봉수망은 세종시 개척한 6진지역에서 오는 제 3거 노선과 의주에서 오는 해안선의 제 4거 노선이 개성에서 합해 지면서 나란히 무악의 동서봉으로 연결되고 있다. 왜구의 침입이나 북방이 민족의 침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의 봉수이기 때문에 관리와 보수가 잘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봉수지가 이미 멸실된 상태이다. 그중에서도 독산(고양) 봉수는 비교적 부대시설까지 양호하게 남아 있어 서북지역의 봉수지 형태연구에 매우 귀중한 봉수지로 보이며 보존과 연구 그리고 더 나아가 관리에도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전체적으로는 중부 지역의 봉수가 가장 간단한 형태로서 연대는 없는 편이고 연조는 큰 형태이지만 대개가 하나 정도였으나 석재를 많이 사용하여 대형 봉분같은 형태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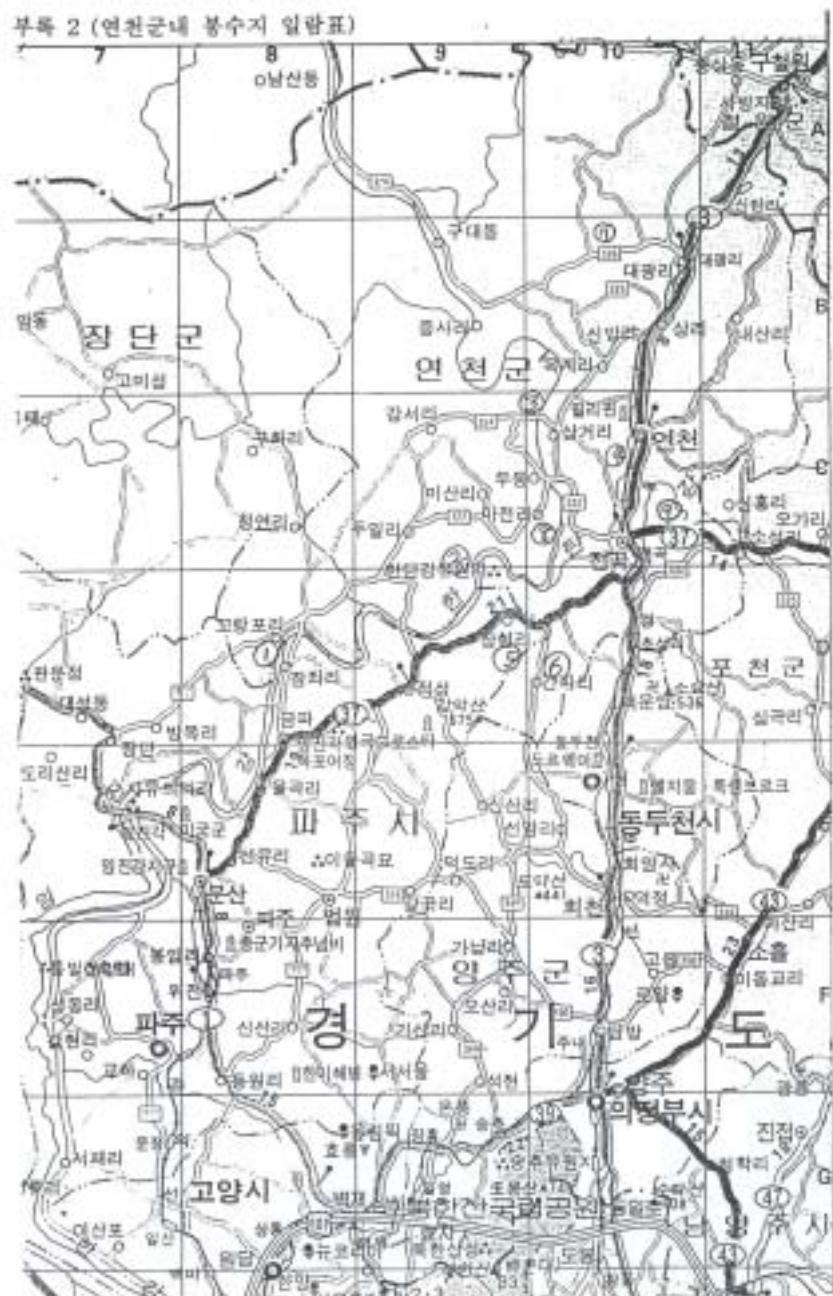
동부지역의 경우 연대는 토축으로 된 경우가 더러 있었으며 연조도 다섯 개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조의 크기는 비교적 작은 형태이었다.

서북지역의 경우 대개가 멸실되어 전체적 규모는 확인이 곤란하나 독산의 경우와 같이 비교적 연대, 연조, 봉돈 및 주변의 방어시설등도 모두 다 갖추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지역 일대의 봉수들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연구가 반드시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부록 1 (동북지역의 통수지 일람표)



140 학술세미나



부록 3 (서북지역 봉수당 일람표)



경기 봉화유적 조사 및 사례연구

김 기 섭(경기대학교)

근래 한국사 연구의 폭과 깊이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문화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듯하다. 그것은 정치사 위주의 연구와 교육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 역사학계의 분위기와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연구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고학 등의 인접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과 무관하지는 않은 듯하다.

발표자(이재)는 최근 수년간 경기도·강원도 일대의 관방유적에 대해 꾸준히 조사하여 왔으며, 수차에 걸쳐 매우 유용한 결과물을 학제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예의 조사 대상은 대부분 민간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군사보호구역내의 유적이어서 그 가치와 의미는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따라서 다년간 관련 유적을 살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온 발표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지역의 봉화유적에 대해 개관한 만큼, 오늘의 발표 논문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발표문의 요지는 크게 보아 대략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영동지방의 봉수방은倭寇의 침입이 빈번했던 고려말에 설립된 것으로서, 왜구에 대한 통제가 상당한 실효를 거두는 조선 전기 내지 중기에 이미

폐지되었다는 것.

둘째, 두루봉·아미리·고성산·차탄리·눌목리·간파리봉수지 등 임진강 연안에 위치한 봉수지들은 늦어도 고려시대 이전의 봉수망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

셋째, 조선시대 제3炬와 제4炬의 적봉노선이었던 서북방면의 봉수지는 대체로 해발고도가 낮은 평야 지대에 위치한 탓인지 근래 빠르게 멸실되었거나 훼손된 상태라는 것.

이상은 발표자가 해당지역의 관련 유적을 하나하나 조사·점토하는 가운데 얻은 결론이므로, 식견 부족의 토론자(김기섭)로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의문이라든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점을 먼저 밟히고 싶다. 다만, 경기지역의 관방유적에 대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 토론자로서는, 매우 귀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발표자의 그 풍부한 경험을 나누어 갖고 싶은 욕심에서 몇 가지 단순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발표자는 영동지방의 봉수노선이 고려 말에 왜구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왜구 정벌 및 일본과의 交隣政策이 상당한 실효를 거두게 된 조선 중기 이후에는 봉수의 사용빈도가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폐지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보다 126년이나 나중에 편찬된 『東國輿地志』(1656년)에도 영동지방의 봉수망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봉수의 운용 실태보다는 봉수시설이 어떻게 잔존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동국여지지』를 편찬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영동지방의 봉수는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정

상적 활동과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영동지방의 봉수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발표자의 위와 같은 추정은 향후 해당지역의 봉수로 조사·연구에 적지 않이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보다 활발한 논의를 위해서는 한가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여타 지역의 봉수로, 특히 남부지역 봉수로와의 차이점에 관한 것이다. 즉, 영동지방 봉수로의 기능과 목적이 왜구에 대한 것이었고, 그렇기에 일본과의 교란정책이 실효를 거두게 되자 봉수로가 폐지되었다고 한다면, 기능과 목적이라는 면에서 일부 공통점을 지니는 남부지역의 봉수망에는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혹여 왜구라는 외부의 원인보다는 지리·행정적 조건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인지, 발표자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지』 사이에 봉수망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동국여지지』가 기본적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문화 중심적 성격에 대한 비판에서 편찬된 柳馨遠의 私撰이며, 그 결과 王亂과 胡亂 이후의 정치·사회 개혁 및 질서 회복에 초점을 맞춘 地理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봉수로에 대한 부분에는 그다지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또한, 발표자는 해안방면의 봉수로는 외부의 침입이 찾았던 관계로 지방 수령들이 꾸준히 관리하였으나, 咸吉道방면의 第1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왜구

동의 군사적 침입이 적었던 탓에 상대적으로 일찍이 멸실되고 말았다고 추정하였는데, 적어도 기록에 의거하는 한 발표자의 추정은 입증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듯하다. 즉, 成吉道의 경우, 榮燧臺는 『世宗實錄地理志』(1454년)에 99개소,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132개소, 『大東地志』(1864년)에 139개소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바, 기록상으로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현상을 단순히 봉수대의 증가로만 보아서도 곤란하겠지만, 적어도 조선 중·후기에 관심 밖의 봉수망이었다고 하기는 더욱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발표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임진강유역의 봉수지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 싶다. 발표자는 이를 봉수지가 조선시대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후, 이 지역에서 고구려·백제간, 고구려·신라간의 쟁투가 빈번하였던 삼국시대의 유적 이거나, 영동지방과의 연계선상에 있었던 고려시대의 유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2가지의 가설을 제시하였는데, 매우 흥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봉수지가 만약 삼국시대의 것이라면 근접한 삼국시대의 성곽들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될 수 밖에 없을 터인데, 坡州의 七重城처럼 조망성이 뛰어난 산성 인근에 새삼 눈목리·간파리봉수와 같은 봉수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우선 그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강 北岸에 위치한 봉수지와 南岸의 봉수지 사이에는 기능상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인지, 발표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임진강유역의 봉수지를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발표자가 제시한 9개의 봉수지를 어떤 형태의 봉수망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도 매우 궁금하다. 만약, 두루봉-아미리-고성산-국사봉의 경로를 상정할 경우에는 나머지 5개소의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놀목리(혹은 간파리)-금굴산-고성산-국사봉의 경로를 상정할 경우에도 역시 나머지 5개소의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삼국시대이든 고려시대이든, 이들 9개의 봉수지를 모두 같은 시기에 사용된 봉수로 보아서는 곤란하며, 가능 역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듯한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밖에, 지금까지 발표자가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봉수지를 조사하여 오면서 느낀 立地라든가 地形 조건상의 공통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문헌에 기재된 봉수대와 기재되지 않은 봉수대 사이에는 기능과 형태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발표자의 친절한 설명을 기대한다.

발 표

천림산 봉화터의 고고학적 실증

발표 : 김주홍(토지박물관 학예사)

토론 : 조유전(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천천산(천림산)봉화터의 고고학적 실증

金 周 洪(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학예사)

- I. 머리말
- II. 명칭 및 해발고도
- III. 구조적 특성
- IV. 평면형태별 특성
- V. 맷는말

I. 머리말

성남시 수정구 금토2동 산32번지에는 과거 천천산(현)봉화(穿川山(縣)烽火)·월천현봉수(月川峴烽燧)로 불리웠고, 현재 천림산봉수(天臨山烽燧) 또는 금토동봉수로 잘 알려진 유지가 1개소 현존하고 있다. 이 봉수가 있는 곳은 청계산 동쪽 기슭인 해발 약 180m의 나즈막한 구릉능선 말단부로서, 동쪽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엇비슷하게 지나고 있다. 또한 봉수대를 가로질러 청계산으로 오를 수 있는 주된 등산코스여서 등산객들의 왕래가 잦은 편이다. 여기에서 보면 멀리 남쪽으로 용인의 석성산(보개산)과 북쪽으로 남산타워가 잘 조망되며, 대옹봉수 노선의 거리는 남쪽으로 석성봉수와는 18.75km, 북쪽의 목멱봉수와는 16km의 비교적 원거리에 있다.

이 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路의 봉수노선 중 第2路 直烽의 内地烽燧로서 南쪽으로 용인 석성산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北쪽으로 경성 목멱산봉수에 신

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였던 경기도 관내의 마지막 봉수였다. 그동안 이 봉수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해발 618m의 淸溪山으로 보는 설¹⁾과, 성남시 상적동과 고등동 사이의 月川峴으로 보는 설²⁾이 있었으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최근 이 지역의 봉수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함토문화 연구자와 지역 주민의 제보로 이 봉수의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게 되었다. 매년 1회의 통일기원 전국 봉화제가 개최되어 '98년 9월 제4회 봉화제'가 이곳에서 개최된 바 있다. 또 이 봉수의 위치와 발견경위 및 현황 등에 관한 짧은 글이 이미 발표된 바 있다.³⁾

京畿道에는 현재 高麗 穀宗3年(1149) 8月 西北面 兵馬使 曹晉若의 上奏로 1急에서 4急의 烽燧式을 규정하고 성립된 봉수체를 바탕으로 朝鮮 世宗代에 체계적으로 정비된 봉수대와 조선 중·후기에 신설된 봉수를 합쳐 약 35개소 가량의 봉수가 알려져 있는데,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봉수에 대해 기록한 가장 초기의 기록은 『世宗實錄』 地理志의 京畿 條이다. 여기에는 廣州(현 성남시)의 천천산봉화(천림산봉수)를 시작으로 모두 22개 都護府·郡·縣에 38개소의 烽火名·위치·대용 봉화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중 오늘날의 행정구역상 북한땅에 속한 臨江縣의 天水山烽火와, 서울시에 편입된 陽川縣의 開花山烽火·楊州都護府의 加仇山烽火(아차산봉

1) 南都使, 「烽燧臺社」, 『서울六百年史』 (文化史遺稿), 1987, p.134.
이에따라 봉수명도 淸溪山烽燧臺라 하고 있다.

2)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1990, p.626.

3) 金起燮, 「天水山烽燧의 위치와現況」, 「朝鮮時代의 社會와思想」, 朝鮮社會研究會, 1998, p.317~330.
천림산봉화복원추진위원회, 「제4회 통일기원전국봉화제-천림산봉화제」, 유인물, 1998.

수), 인천시에 편입된 江華都護府의 大母城·鎮江山·網山·別立山·松岳烽火 등을 제외하면 실제는 30개소가 된다. 대개 1~3개소의 봉화가 각 府·郡·縣별로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봉수유적들은 위치하고 있는 입지조건을 살펴 볼 때, 해발 471m의 용인 석성산봉수와 해발 472m의 안성 망이산봉수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발 100m에서 300m내의 그다지 높지 않은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평택 원정리 과태길곶봉수(해발 83m), 김포 백석산봉수(47m), 화성 흥천산봉수(해발 61.3m), 인천 축곶산봉수(해발 70m), 파주 대산봉수(82.4m) 등은 해발 100m내의 평지나 다름없는 나즈막한 구릉 정상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였던 烽燧는 山城내에 설치되어 산성과 한 세트가 되도록 설치되어 운용되었다. 즉, 용인 석성산봉수(보개 산성 내), 파주 성산봉수(봉서산성 내), 김포 약산봉수(수안산성 내), 고양 성산봉수(고봉산성 내) 등 7개소의 봉수유적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천천산봉화(천림산봉수)터의 고고학적 실증을 위해 다음의 여섯가지 점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본 논고가 금번의 성남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천천산봉화터 복원을 위한 학술세미나’ 발표 주제로서 쓰여지는 만큼 성남시의 대표적인 관방유적인 천천산봉화에 중점을 두고,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화성 해운산봉화·포천 잉읍점봉화를 비교 설명함으로서 봉화로서의 진위여부를 입증하고자 한다.

둘째는 봉화명의 어미에 산(山)·도(島)·곶(串)·

현(峴) · 곡(谷) · 점(站) · 봉(峰) 등의 명칭이 붙어 다양하게 불리어지고 있는 봉수의 명칭중에서 천천산봉화와 마찬가지로 산명(山名)이 들어가는 봉화를 파악하여 명칭면에서 보편적인 봉화명을 가진 봉수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세째는, 경기도의 봉화를 해발고도별로 100m 이내 · 100~200m 이내 · 200~300m 이내 · 400~500m 이내로 구분하여, 천천산봉화가 이중 가장 많은 분포 범위를 보이고 있는 100~200m 이내에 포함되어 일반적인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네째는 천천산봉화에 대한 평면도와 주요 부속시설인 출입시설 2개소 및 석축 방호벽 일부에 대한 입 · 단면도를 작성하여 구조적으로 내지봉수 직봉 노선의 봉수구조를 갖춘 전형적인 봉수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다섯째는 봉수에 대한 별칭으로 '烽火' '烽煙' '浪火(浪煙)' 등의 용어가 구분없이 쓰이고 있으나, 실제 봉수체가 처음 성립되었던 고려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高麗史』 · 『高麗史節要』 등 문헌기록을 검토하면 '봉수'라는 용어 대신 '봉화'라는 용어가 보일 뿐이며, 고려조의 봉수를 바탕으로 조선초기에 봉수를 정비하고 기록한 『世宗實錄』의 地理志에도 봉화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봉수라는 용어는 조선 중기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부터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므로 이때부터 독자적인 조선의 봉수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초기 『세종 실록』의 지리지에 봉화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봉수는 일단 고려초기 봉수체의 성립과 더불어 설치 · 운용되어 조선시대까지 계승된 봉수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세종실

록』의 자리지에 봉화로 기록되어 조선후기까지 유지되어진 봉수의 시대추정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 중기이전 즉 초기로 소급하여 편년하였다.

여섯째는 본고에 인용된 봉수명칭은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에 사용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며, 별도로 별칭을 부기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현재까지도 대개의 봉수명은 山 이름을 빌리거나 山名이 없는 경우 행정구역명에서 빌어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저마다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나마 잠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봉수용어의 통일은 향후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II. 명칭 및 해발고도

1) 명칭

경기지역의 봉수를 명칭에 따라 분류하면 어미에 산명(山名)이 붙는 봉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천천산 봉화도 이에 속하는데 이를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참조] 이는 현존 경기지역 소재 전체 35개소의 봉수 중 24개소로서 비율상 69%라는 압도적인 수치이다. 이를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연변봉수 9개소 26%, 내지봉수 15개소 43%로서 대개 산명이 붙는 봉수는 내지봉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대적으로도 조선시대의 각종 지지류에 고구려 안장왕과 한씨미녀의 설화가 전하는 삼국시대의 성산(고봉)봉수를 제외하고, 23개소의 봉수 중 고려시대의 봉수가 15개소 65%, 조선시대의 봉수가 8개소 35%를 차지하고 있다.

〔表 1〕 山名 烽燧 一覽表

행정구역	봉 수 명 칠	구 분	노 선	시 대	비율(%)
김포시	주산(북성산·내정산)	연변봉수	제5기 적봉	고 려	20%
	주산(남산)		제5기 적봉	고 려	
	약산(수안산)		제5기 적봉	고 려	
시흥시	절왕산		제5기 적봉	조 선	
화성군	홍천산		제5기 적봉	고 려	
	염불산		제5기 적봉	고 려	
	해운산		제5기 적봉	고 려	
	간달산		제5기 간봉	조 선	
	제봉산		제5기 간봉	조 선	
고양시	소달산(독산)	내지봉수	제3기 적봉	고 려	43%
	성산(고봉)		제4기 적봉	삼 국	
남양주시	대이산(한이산)		제1기 적봉	고 려	
성남시	원천산(천령산)		제2기 적봉	고 려	
수원시	안산(파성봉준)		제1·5기·간봉	조 선	
안성시	망이산		제2기 간봉	고 려	
용인시	건지산		제2기 적봉	고 려	
	석성산(보개산)		제2기 간봉	조 선	
	조백산		제2기 간봉	조 선	
과주시	설산		제3기 적봉	고 려	
	태산		제3기 적봉	조 선	
	권단산		제4기 적봉	조 선	
	도라산		제3기 적봉	고 려	
포천군	독산		제1기 적봉	고 려	
	직골산(죽군봉)		제1기 적봉	조 선	

위의 산명봉수외에 내지봉수로서 현명(眞名)이 들어가는 봉수는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의 봉현(해포)봉수가 유일하며, 곡명(谷名)이 들어가는 봉수는 포천군 관내의 혜재곡·미로곡 등 2개소의 봉수가 있다. 다음으로 점명(點名)이 들어가는 봉수는 포천군 관내의 잉읍점봉수가 유일하며, 봉명(峰名)이 들어가는 봉수는 과주시 관내의 협재봉봉수가 유일하다.

다음 연변봉수로서 산명에 이어 많은 비율을 차

지하는 봉수명칭이 도명(島名)인데, 이는 현존 경기 지역 소재 전체 35개소의 봉수 중 3개소로서 비율은 9%이며, 도명이 붙는 봉수는 당연히 연변봉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곳명(串名)이 들어가는 봉수는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의 과태길곶봉수가 유일하며, 성격상 연변봉수이나 어떤 명칭분류에도 속하지 않는 봉수로는 안산시의 무옹고리봉수가 유일하다.

[表 2] 島·串·峴·谷·岵·峰· 기타名 焰燄 一覽表

행정구역	구분	봉 수 명 칭	성 性	노 선	시 대
시흥시	島名	오길매(오길이도)	연변봉수	제5거 직봉	고 려
		형도		제5거 간봉	조 선
		제부도		제5거 간봉	조 선
평택시	串名	과태길곶	내지봉수	제5거 직봉	고 려
안산시	기타	무옹고리		제5거 간봉	고 려
고양시	峴名	봉현(해포)		제3거 직봉	고 려
포천군	谷名	체재곡	내지봉수	제1거 직봉	고 려
		미로곡		제1거 직봉	고 려
포천군	岵名	임음절	내지봉수	제1거 직봉	고 려
파주시	-峰名	형제봉		제4거 직봉	조 선

II. 해발고도

경기지역의 봉수를 해발고도에 따라 분류하면 100m 이내의 평지나 다름없는 낮은 곳에 위치하는 봉수는 전체 35개소의 봉수 중 8개소 23%(연변 5개소 14%, 내지 3개소 9%)이며, 대부분의 봉수는 100~200m 이내의 높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천천산봉화도 이 분포범위에 해당되고 있다. 이는 전체 35개소의 봉수 중 15개소 43%(연변 7개소 20%, 내지 8개소 23%)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대별로는 高麗時代의 봉수가 11개소, 朝鮮時代의 봉

수가 4개소로서 이 해발높이에 위치하는 봉수는 초축시기가 고려시대인 봉수가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0~300m이내의 봉수는 전체 35개소의 봉수 중 9개소 26%(연변 3개소 9%, 내지 6개소 17%)로서, 경기지역의 봉수는 전체 300m 이내의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입지조건이 양호한 곳을 선택하여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00~400m 이내의 봉수는 확인할 수 없으며, 400~500m이내의 고지대에 위치하는 봉수는 용인의 전지산(411.3m)·석성산(보개산,471m)봉수와 안성의 망이산(마이산,472m)봉수 등 3개소를 들 수 있는데, 모두 내지봉수이다.

이중 천천산봉화가 분포하고 있는 100~200m이내의 봉수를 표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表 3] 100 ~ 200m 이내 焰燄 一覽表

행정구역	봉 수 명 칠	높이 (m)	구 분	노 선	시 대	비율 (%)
김포시	주산(봉성산· 냉정산)	150	연변봉수	제5기 직봉	조 선	20%
	주산(남산)	180.2		제5기 간봉	고 려	
	악산(수안산)	146.8		제5기 직봉	고 려	
시흥시	점령산	115		제5기 직봉	고 려	
화성군	염불산	170.2		제5기 직봉	고 려	
	해운산	126		제5기 직봉	고 려	
	령도	126.5		제5기 간봉	조 선	
고양시	소달산(독산)	133.4	내지봉수	제3기 직봉	고 려	23%
남양주시	대미산(한이산)	173.5		제1기 직봉	고 려	
성남시	천원산(천립산)	180		제2기 직봉	고 해	
과주시	진단산	150		제4기 직봉	조 선	
	령제봉	124		제4기 직봉	조 선	
	도라산	167		제3기 직봉	고 려	
포천군	혜재곡	200		제1기 직봉	고 려	
	미로곡	165		제1기 직봉	고 려	

III. 구조적 특성

현재의 행정구역상 과거 경기도에 속하였던 인천시와 강화도 및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경기도에는 약 35개소 가량의 봉수유적이 남아 있다. 이를 봉수유적은 거의 대부분이 인위적인 파괴로 인해 유지가 교란되어 성격파악이 불분명하거나, 완전히 멸실되어 흔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일부 봉수는 그 유지가 거의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 성격파악 및 복원이 가능한 상태인데, 천천산봉화도 비록 후대의 경작으로 인해 2개소의 봉돈이 유실되었지만 3개소의 석축원형 봉돈과 2개소의 출입시설 및 방호벽 등이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남기고 있어 성격파악이 가능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천천산봉화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몇가지 주제를 놓고 설명하고자 한다.

1) 입지조건

천천산봉화는 그 대웅봉수노선이 남쪽의 용인 석성산(보개산)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북쪽으로 서울의 목멱(남산)봉수로 보내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신호를 받고 또 보내기 위해서는 그에 가장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현 천립산봉화도 관교-서울간 고속도로변에 인접하여 교통로상에 있으며 해발 180m의 그다지 높지 않은 곳이지만 이곳에서 보면 남쪽과 북쪽으로 용인 석성산(보개산)

봉수와 서울의 남산봉수가 지척에 있듯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어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2) 평면형태 (도면 1 참조)

천천산봉화는 사방으로 높이 1m 내외의 석축으로 방호벽을 마련하고, 그 위에 5개소의 원형석축 봉돈(2개소는 멸실)이 마련되어 있는 동서장축 장(방)타 원형의 구조를 하고 있다. 지형상 동쪽이 약간 높고, 서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봉수대 내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엇비슷하게 경사가 져 있다. 규모는 동서장축 32.5m, 남북단축 13m, 전체둘레 81.3m로서 비교적 큰 규모의 제2기 내지봉수 적봉노선의 봉수이다.

3) 봉돈

천천산봉화의 봉돈은 원래 5개소였으나 2개소는 이미 후대의 경작으로 인해 멸실되어 터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남쪽의 용인 석성산(보개산)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북쪽으로 서울의 남산봉수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에 가장 적합한 봉돈배치 상태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따라 현존 3개소의 봉돈은 북쪽으로 신호를 보내기 용이하게끔 동쪽 출입구와 북쪽 방호벽에 맞붙어 동-서방향 일련로 서울의 남산봉수를 향하고 있다.

제일 동쪽의 동쪽 출입구와 인접하여 있는 봉돈을 제1봉돈으로 하고 서쪽으로 가면서 제3봉돈까지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봉돈

제1봉돈은 동쪽 출입구와 인접하여 현존 3개소의 봉돈 중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110cm, 직경 390cm 가량으로 크기 30~40cm 가량의 치석하지 않은 자연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는데 현존 상태 양호하다.

나) 제2봉돈

제2봉돈은 높이 100cm, 직경 410cm 가량으로 크기 40~80cm 가량의 비교적 큰 자연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는데 현존 상태 양호하다.

다) 제3봉돈

제3봉돈은 높이 80cm, 직경 220cm 가량으로 교란이 심하며 2·3봉돈간 6.4m의 거리를 두고 있다.

4) 출입시설

가) 동남쪽 출입구 (도면 2 참조)

천천산봉화가 청계산으로 오르는 등산로 중의 하나로 이용되어서인지 동남쪽출입구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통로이다.

출입구는 높이 80cm 가량으로 정연하지 않은 6단의 석축으로 되어 있다. 현재 올라오는 입구에는 폭 120cm 가량 2단의 계단시설 혼적이 남아 있으며, 출입구 석축에서 130cm 가량 앞으로 나와 있다.

나) 동쪽 출입구 (도면 3 참조)

동쪽 출입구는 측면 모습이 'U'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좌측이 높이 60cm 가량으로 3단의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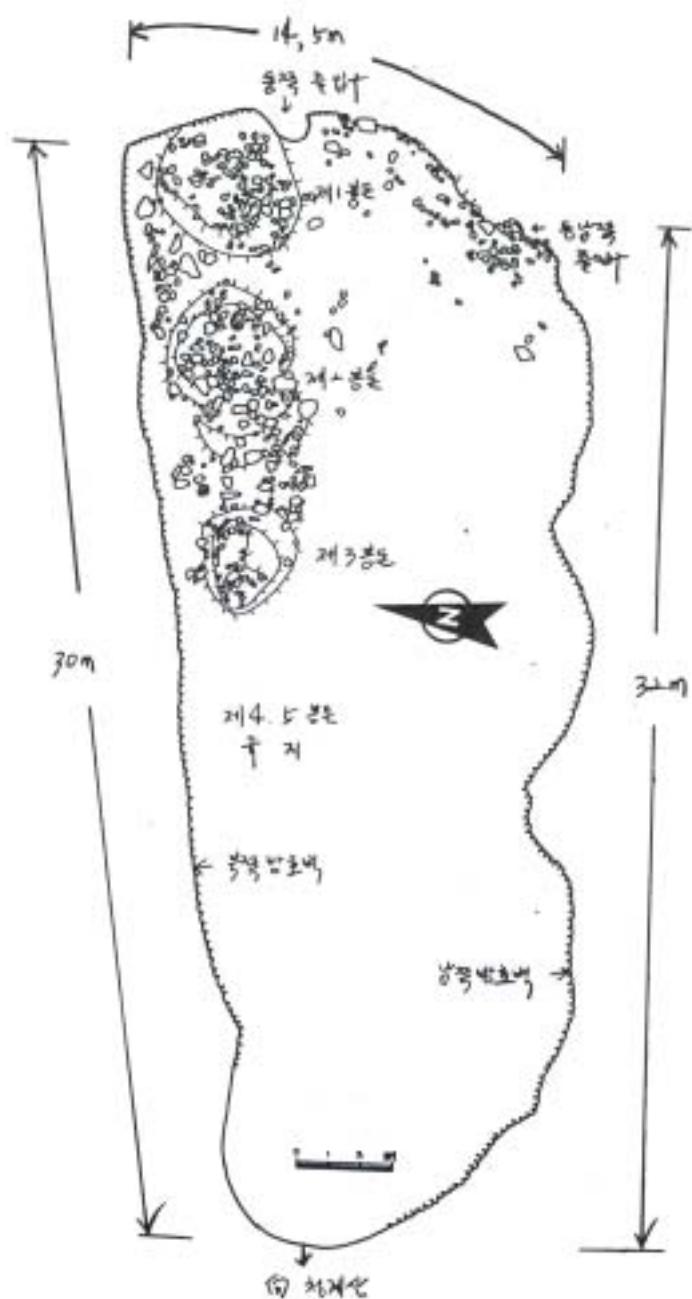
한 석축흔적이 남아 있으며, 우측은 높이 100cm 가량으로 석축단수는 토사가 덮고 있어 불확실하다.

5) 방호벽 (도면 4 참조)

방호벽은 청계산으로 향하는 서쪽 끝의 일부가 지면과 맞붙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석축으로 높이 70~150cm 가량의 유지가 잘 남아 있으며 축조단수는 8~12단 정도이다. 이 석축 방호벽은 높이가 낮고 석축 흔적이 미약한 남쪽보다는, 현재 3개소의 봉돈이 서울의 목멱산 봉수를 바라보고 있는 북쪽이 거의 원형으로 잘 남아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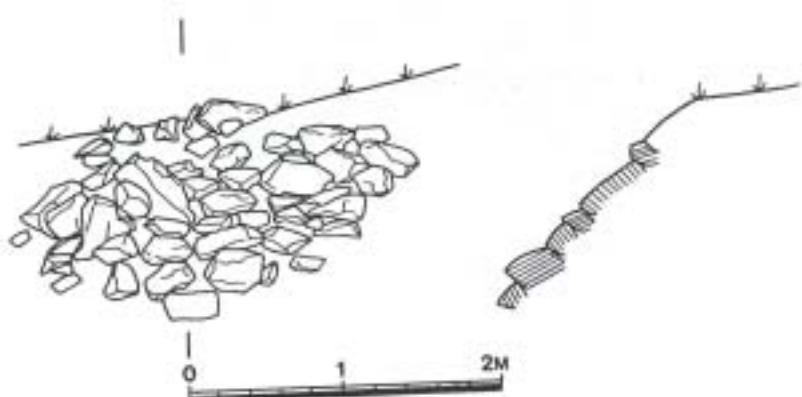
축조에 있어 일정한 정형성을 두지 않고 크기 20×30 , 70×25 cm 가량의 치석하지 않은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들판에는 작은 돌을 채워 넣기도 하였다.

[도면 1] 천진산봉화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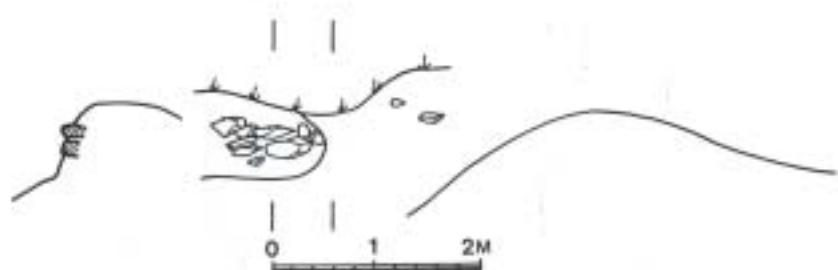


162 학술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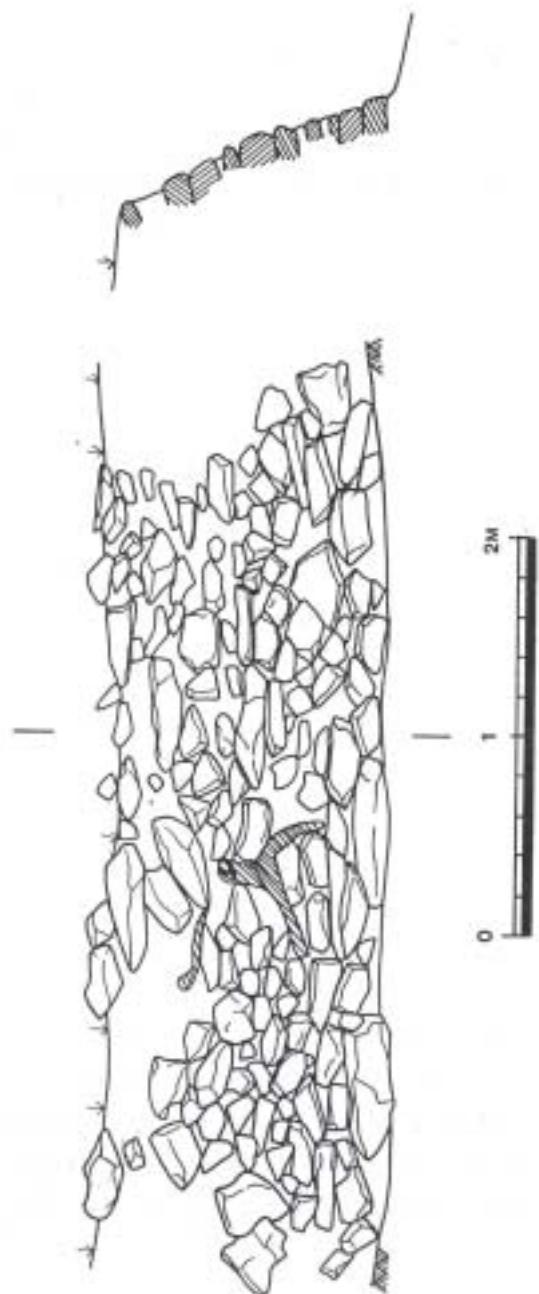
[도면 2] 천천산봉화 동남쪽 출입구 입면도



[도면 3] 천천산봉화 동쪽 출입구 입·단면도



[도면 4] 천천산봉화 북쪽 석축방호벽 입·단면도



IV. 평면형태별 특성

현 행정구역상 경기도내 35개소의 봉수 중 유지가 전하는 봉수는 약 15개소 정도이다. 이중 내지봉수인 천천산봉화와 비슷한 구조의 봉수는 연변봉수인 화성군 송산면 독지2리의 해운산봉화와 내지봉수인 포천군 가산면 우금리의 잉읍점봉화를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의 두 봉수를 언급함으로서 천천산봉화와의 비교를 통해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화성 해운산봉수형 (도면 5 참조)

해운산봉화는 달리 海望山烽燧 · 독지리봉수리라고도 하며 화성군 송산면 독지2리(문지마을) 산3-2번지의 해발 126m인 봉우재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회관 앞의 황해를 바라보고 있는 높다란 봉우리 정상이 봉수가 있는 곳으로 봉수대까지는 산길이 잘 나 있다. 산 밑으로는 남-북으로 엇비슷하게 306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으며, 주위 일대는 해발고도 100m 내외의 저평한 충적평야지대로서 북쪽의 牙山鵠을 조망하기에 용이한 최일선 연변봉수이다.

이 봉수는 조선초기 북쪽으로 안산시 신길동의 무고리 봉수로만 신호를 보냈으나, 조선중기 이후 남쪽의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의 염불산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종래의 무고리봉수 대신 신설된 시흥시 정왕동의 오절이도봉수로 보내는 역할을 하였던 제5거 연변봉수의 직봉이었다. 대웅봉수노선의 거리를 볼 때 조선초기 북쪽으로 용하였던 무고리봉수와는 직선거리로 9.75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

으며, 그 이후의 오질이도봉수와는 9.25km, 남쪽으로 용하였던 염불산봉수와는 8km의 거리에 있는 등 모두 반경 10km 이내에서 상호 연락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운산봉화에 대한 최초의 학술조사 기록은 1942년 발간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이다. 이 자료에는 한자 표기를 '雲' 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高麗時代의 烽燧'라고 한다. 經 約 1칸 반의 石積5개소와 작은 집터 1개소가 있다' 4)하였고, 『文化遺蹟總覽』에는 '고려시대의 봉수라 전하며 가로 3.6m, 세로 3.6m, 높이 1m 정도가 잔존한다'라고 하였다. 5) 또 『韓國의 城郭과 烽燧』에서는 앞의 여러 문현들을 소개하면서 '화성군 송산면 독지2리 산에 있는 이 봉수는 남쪽으로 잇달아 있는 두 봉우리와 함께 예로부터 봉화산(봉우재)이라 불리었다. 산꼭대기에는 돌을 쌓아 놓은 흔적이 3곳(5개소 중 2개가 사라짐)이 있고, 이 중 맨 위쪽에 있는 것이 봉화를 올리던 곳이라 한다. 모두가 훼어져 있던 것을 오래 전에 마을 주민들이 둘더미를 다시 쌓아 놓아 곧 알아 볼 수 있다. 또 이 봉수대 동남쪽으로 30~40m 아래의 아카시아나무 밑에 봉수지기가 거주하던 작은 집터가 남아 있다' 6)고 하였다. 최근 한신 대학교박물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海望山烽燧 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7) 한편 1996년 발간된 『水原市史』(上)에서는 해운산봉수대란 명으로 송산면에서 면민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광복절에

4)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本原郡), 1942, p.12.

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卷), 1977, p.196.

6) 한국보이스카우드연맹, 『韓國의 城郭과 烽燧』(下), 1990, p.631.

7) 한신대학교박물관·草城郡, 『草城郡 墓葬文化財 地表調査報告書』, 1996, p.41~42.

이곳 봉수대에서 거화하고 있었으며 바다 건너 안산시가 한 눈에 바라다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⁸⁾

이 봉수는 현재 해발 126m인 봉우재 정상 능선에 토석흔축으로 동-서 장방형의 대지를 마련하고 그 위에 5개소의 원형석축 봉돈이 일렬로 나란히 있으며, 남쪽에는 폭 130cm, 길이 360cm 가량의 출입시설이 1개소 있다. 전체길이 22.8m, 남-북 단축 9.2m로서, 서쪽부터 제1봉돈으로 명명하고 동쪽으로 가면서 설명을 하면 제1봉돈은 원형의 석축으로 35×30, 40×15cm의 석재를 이용하여 봉돈시설을 하였다. 동서 2.4m, 남북 2.9m의 규모로서, 동쪽에는 직경 1.6m의 작은 원형 석축 흔적이 던붙어 있다.

제2봉돈은 원형의 석축으로 70×30, 30×15cm의 석재를 이용하여 봉돈시설을 하였다. 동서 3m, 남북 3m의 규모로서, 1·2봉돈간 4.2m의 거리를 두고 있다.

제3봉돈은 과거 봉화제 행사시 원래의 봉돈 석재를 이용하여 높이 60cm, 동서 3.7m, 남북 3.5m의 크기로 인위적인 시설을 하여 놓았기 때문에 원봉돈은 많이 교란된 상태이다. 또 이때에 사용되어 타다 남은 목재들이 주위에 많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 인근 주민들의 얘기로는 7~8년 전만 해도 광복절날 도지사·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제 행사를 하였기에 당시에 봉수까지 가는 길을 만들었던 것이며, 현재는 봉화와 관련된 행사를 거행하지 않는다고 중언하였다. 2·3봉돈간 남쪽으로 1개소의 출입시설이 남아 있으며, 이 출입시설에서 100m 가량 아래에는 건물지가 있다.

제4봉돈은 인위적인 시설 마련으로 교란된 봉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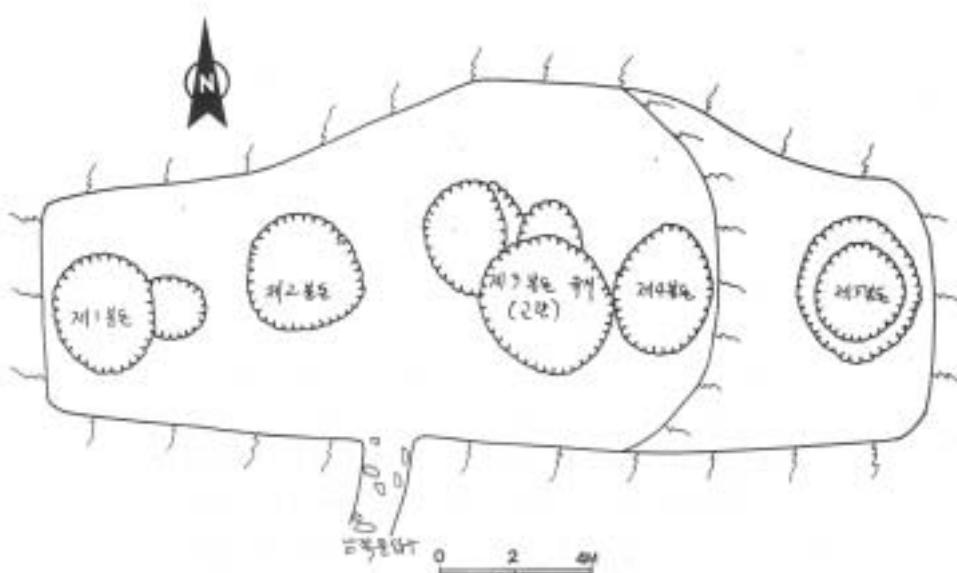
8) 리제계, 「永康市史」(上), 1996, p.439~441.

바로 옆에 맞붙어 있는데, 원형의 석축으로 80×30 , $30 \times 20\text{cm}$ 의 석재를 이용하여 봉돈시설을 하였다. 동서 2.5m, 남북 3.2m의 규모이다.

제5봉돈은 1~4봉돈과는 별도로 단 아래에 있는데, 원형의 석축으로 34×20 , $30 \times 10\text{cm}$ 의 석재를 이용하여 2중의 봉돈시설 흔적이 있다. 동서 3.2m, 남북 3.8m의 규모로서 4·5봉돈간 4.6m의 거리를 두고 있다.

같은 화성지역의 홍천산·염불산봉화가 산 능선을 따라 1개소씩의 규모가 큰 토총(망대)시설이 있고, 별도로 4~5개소의 토·석흔축 봉돈시설이 있는 반면, 해운산봉화는 장방형의 토·석흔축 대지를 마련하고 그 위에 석축의 원형봉돈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서 주목을 끈다.

[도면 5] 화성 해운산 봉화 평면도



2) 포천 앙읍점봉화형 (도면 6 참조)

앙읍점봉화는 달리 仍邑峴(縣)烽燧·廣峴烽燧·넙재봉수라고도 하며, 포천군 가산면 우금리 산86-1의 해발 294m인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47번 주도로와 내촌3거리에서 갈라지는 325번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도로변의 좌측에 98.8.15. 건립된 육사생도 참전기념비가 있다. 이 비의 오른쪽으로 난 산길을 따라 10~20분 정도 올라가면 정상부 못미쳐 8부농 선쯤에 살구나무 있는 곳이 봉화터이다.

이 봉수는 북쪽의 포천군 신북면 기지리의 독산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남쪽의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의 대이산봉수로 보내는 역학을 하였던 제1기 내지봉수 직봉의 봉수였다. 대옹봉수노선의 거리를 볼 때 북쪽의 독산봉수와는 11.5km, 남쪽의 대이산봉수와는 13.5km의 거리에 있다.

앙읍점봉화에 대한 조사는 육군박물관에 의해 실시된 바 있다. 조사결과 '토축으로 된 연조 기단부는 타원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북 직경 35m, 동서 직경 14m이다. 이 연조 기단부에 연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성토하고 이곳에 연조를 석축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5개의 연조의 흔적이 있어서 마치 5개의 봉화소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북단의 동편에 위치한 연조는 원래의 위치로 보기 어렵다. 남쪽 평탄지에는 건물의 주춧돌로 사용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연조 기단부를 북쪽에서는 6m, 기타 지역에서는 2~3m를 벗어나면 삭토를 해서 인위적인 단애를 형성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삭토를 통해서 연조 기단부 주위를 절벽으로 만든 것은 이곳에 근무하는 봉수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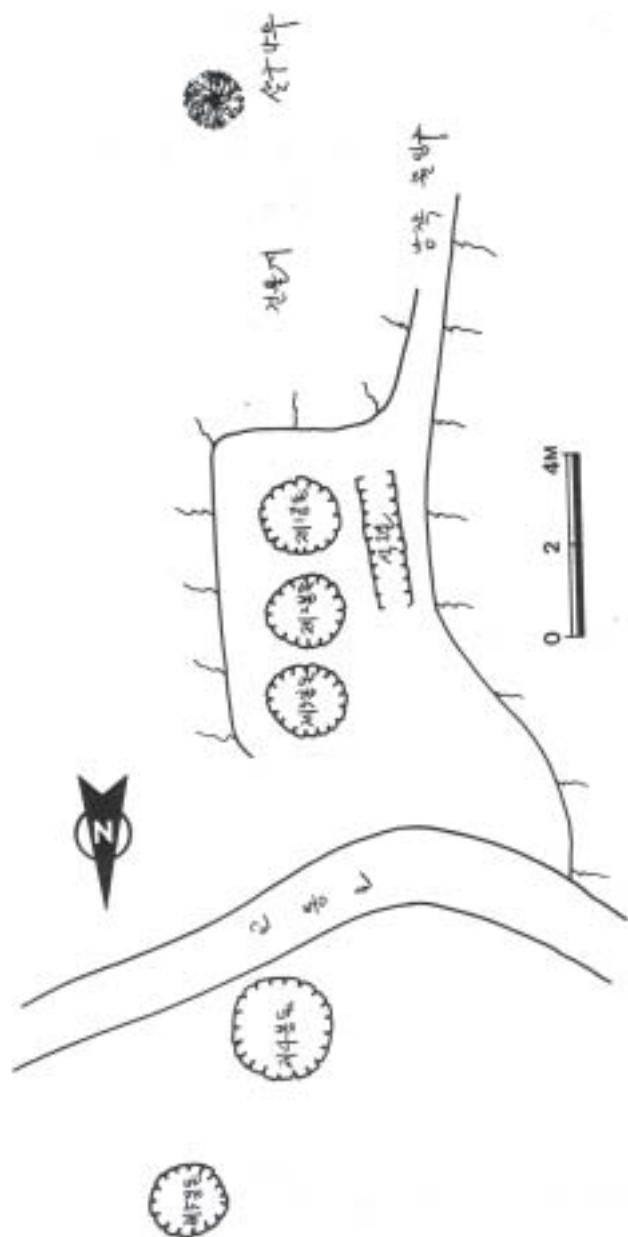
치였을 것이다.⁹⁾고 보고하고 있다.

이 봉수는 현재 산의 8부 능선 살구나무가 있는 곳에 건물지가 있었던 평탄지와 장방형의 토축 대지위에 3개소의 석축원형 봉돈이 남-북 일렬로 나란히 있으며, 2개소의 봉돈은 중간에 교통호로 인해 단절된 채 떨어져 있다. 가장 남쪽에 있는 봉돈을 제1봉돈으로 명명하고 북쪽으로 가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봉돈은 원형의 석축으로 동서 1.8m, 남북 1.6m의 규모이다. 제2봉돈 역시 원형의 석축으로 동서 1.8m, 남북 1.6m의 규모로서, 1·2봉돈간 2m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그 간격은 50cm이다. 서쪽으로는 폭 80cm 가량의 석축 담장 흔적이 일부 남아 있으며, 그 밑으로는 흙으로 둔덕을 마련하고 토축의 담장시설을 한 흔적이 남북으로 길게 남아 있다. 제3봉돈은 원형의 석축으로 동서 1.8m, 남북 1.5m의 규모로서, 2·3봉돈간 2m의 거리를 두고 있다. 1~3봉돈이 모두 동일 규모의 원형석축 봉돈으로서 남-북 일렬로 나란히 놓여 있는 반면, 제4봉돈은 중간의 교통호로 인해 단절된 채 제3봉돈에서 북쪽으로 7.2m의 거리에 있으며, 크기는 동서 2.2m, 남북 2.4m의 규모이다. 제5봉돈은 앞서 육군박물관의 조사에서 원래 연조의 위치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원형의 석축 봉돈 흔적이 정형성을 보이고 있어 제5봉돈 시설로 보고자 하며, 크기는 직경 2m내외의 작은 규모이다.

9)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포천군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유적조사보고 제4 친), 1997, p.129~131.

[도면 6] 포천 임음점 봉화 평면도



V. 맺는말

지금까지 봉화터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천천산봉화터의 실증을 위해 봉수의 명칭과 해발고도별로 분류하여 보편적인 봉수의 명칭과 해발고도를 살펴보았고, 다음에 천천산봉화의 구조적특성 파악을 위해 평면형태와 3개소의 봉돈 및 출입시설·방호벽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평면형태별 특성으로 현존 경기도내 35개소의 봉수 중 유지가 남아 있는 15개소의 봉수 중 천천산봉화와 구조가 비슷한 화성 해운산봉화 및 포천 잉읍점봉화를 언급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내에 소재하는 봉수는 그 명칭에 있어 어미에 '산(山)' 명이 붙는 봉수가 전체 35개소 봉수 중 24개소로서 비율상 69%의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천천산봉화도 이 보편적인 명칭분류에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높이에 있어 경기도의 봉수는 해발고도 100~200m에 전체 35개소 봉수 중 15개소가 분포하고 있어 가장 많은 분포범위를 보이고 있는데, 천천산봉화도 해발높이 약 180m로서 이 분포범위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시대별로는 高麗時代의 봉수가 11개소, 朝鮮時代의 봉수가 4개소로서 이 해발높이에 위치하는 봉수는 초축시기가 고려시대인 봉수가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대적으로도 부합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구조적 특성으로 천천산봉화는 봉수면 흔히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봉돈·출입시설·방호벽 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봉화임에 틀림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제 천천산봉화(천린산봉수)에 대한 이론의 여지는 금번 학술회의로 종식되기를 바라며, 향후의 과제는 천천산봉화의 정확한 구조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시굴·발굴조사이며 이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 향토유적으로의 지정 및 현재 봉화터 내부를 지나는 등산로를 우회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 봉화터가 현재 판교-서울간 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로를 따라 분포하는 봉수의 암자조건에 부합되고, 성남시의 대표적인 관방유적으로서 홍보 효과가 크므로 현재 봉화터를 가리고 있는 화장품 선전 광고탑을 철거하고 대신 천천산봉화와 관련된 홍보탑을 세워 널리 알리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문화의 불모지인 성남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거듭 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천천산(천림산)봉화터의 고고학적 실증

조 유 전(국립문화재연구소)

천천산 봉화터의 고고학적 실증에 대한 김주홍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 중 조선시대 중·후기에 설치된 봉수전반에 대한 입지조건에 따른 분석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천천산 봉화터가 봉화터가 아니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존하는 유적의 고고학적인 현상을 살펴 봉화터로 보는 견해에 대해 토론자로서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토로자도 그간 천천산 봉화터 현장을 두 차례 답사하여 현황을 나름대로 관찰했기 때문에 발표자의 주장에 더욱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발표자가 주장하신 향후 과제인 천천산 봉화의 정확한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술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규모와 형식을 정확히 밝히고 나아가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라는데도 동감입니다. 나아가 구조 뿐만 아니라 봉화를 담당하기 위해 지었던 건물터도 확인함으로써 향토유적 보다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 보호받도록 해도 좋을 것이며 앞으로 원형복원도 고려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봉화터를 가리고 있는 화장품 선전 광고 탑을 철거하고 천천산 봉화터 관련 홍보탑을 세워 널리 알리도록 조처가 필요하다고 한 의견에 대해

서는 화장품 선전탑을 철거하여 봉수가 사용되었던 당시의 자연환경을 살려내고 봉수에 관한 홍보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발표자에게 한가지 질문으로 저의 약정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봉수에 대한 명칭이 천천산 봉화, 천천령봉수, 천령산봉수, 금토동봉수로 각각 불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산의 이름을 따라 명명한 것과 봉수가 속했던 지방 명의 이름을 따라 명명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발표자가 봉수의 위치를 청계산 동쪽 기슭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자칫 청계산 봉수라고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표자가 이 천천산 봉화를 고려시대 마련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는데 그렇다면 봉수의 이름을 고려시대 명칭을 찾아서 불리던지 아니면, 최초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는 조선시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봉수 명칭에 나타난 천천현 봉수로 하는 것이 어떠할지 아니면, 시대에 따라 행정구역도 변화함으로 오늘날의 산 이름인 청계산을 따서 청계산 봉수로 하는 것이 어떠할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학술발표 주제가 천령산 봉화 고증을 위한 학술발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정되어야만 앞으로 명칭상의 혼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발 표

천림산 봉수군 신분과 생활

발표 : 방상현(경희대학교 교수)

토론 : 김영관(서울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天臨山 烽燧軍 身分과 生活

방 상 현(경희대학교 교수)

- I. 序 論
- II. 天臨山 烽燧臺
- IV. 烽燧軍 身分과 經濟 生活
- III. 烽燧軍의 軍役
- V. 結 論

I. 序 論

烽燧는 조선근대전기사회에 유일한 통신기능을 갖고 전국적으로 봉수망이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봉수대는 통신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주어져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烽燧臺에서 종사하였던 烽燧軍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할은 봉수의 중요성을 심도 있게 재조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봉수자료의 한계성과 연구성과의 부진에 따라 연구논고가 저조하고 성과도 미흡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흡족한 연구성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先學者 남도영 교수의 穿鑿에 힘입어 本考는 봉군의 軍役과 근무실태, 경제생활, 사회적 신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외 봉수망에 관한 기록내용을 약간 附記하면 중국에 관한 봉수시설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기록이 있다.

선조때 盧稷이 국왕에 아뢴 내용에 중국 중원 변방

1) 선조 30년 2월 명을조.

에는 5리마다 연대가 하나 있었고 혹은 연대를 2개소로 설치하기도 하였다는데 내용과 단지 直線으로 한 줄만 있지 않고 종횡으로 설치하여 바둑돌을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는 거미줄처럼 복선의 봉수망을 설치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 중앙아시아 烽火 시설은 봉수가 평원에 있어 구릉지역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봉군은 視覺을 통하여 조망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중앙아시아 호례즘 문화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평원의 봉수는 상거리가 가까운 곳과 먼거리에 관하여 畫煙과 烽火는 가능성이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丘陵의 높은 전망대에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어 동시에 봉수와 전망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거리의 視覺을 통한 측정은 어렵게 보였다.

II. 天臨山 烽燧臺

1) 烽軍의 役割

광주 天臨山 烽燧臺는 조선시대 5개 烽燧通信網중 제2로에 속한 烽燧路이다. 이 봉수로는 경상도 東萊와 漢城을 연결하고 있는 直烽 45개 봉수대중 하나가 천립산 봉화대이다. 이 봉수대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점은 한성의 木覓山 봉수대 직전에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부여된다.²⁾

봉수선로는 조선전역을 거미줄처럼 직봉과 간봉으로 펼쳐있어 국난과 변란의 급보를 즉시 한성에 알려야 하였던 통신시설임을 주지한 바 있다. 따라서 천립산 봉수는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각종 변란상보를 전달받아 상황을 분석·정리 할 수 있었고 충청도, 경기도의 각종상보도 천립산 봉수를 통하여 목멱산 봉수로 전달되었다

2) 「經國大典」兵備 烽燧條.

고 하는 사실에 유의할 수 있었다.

제1炬가 경흥과 한성을 연결하고 있어 북쪽 중국과
異民族 관계의 사변이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제2炬
는 남쪽倭寇와 관계된 변란의 발생을 전달하였다. 따
라서 천림산 봉수대 봉군들은 누구보다도 왜구의 침입
에 대한 정보를 가장 신속히 알게 되는 정보상 기밀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천림산 봉수대 군관은 『經國大典』에 의하면 봉군 10
인 伍長 2인이 있었다. 봉군은 候望을 임무로 하고 오장
은 봉군을 감독 독려하는 임무가 있었다. 아마도 천림산
봉수군도 봉졸, 봉간, 간방인, 후방인 등으로 호칭이 불
리었다고 본다. 근무교대는 매 5일 交代를 하였지만 세
종때 10일 교대의 기록도 있어 교대일수는 변화가 있었
다.³⁾

천림산 봉수대는 假屋을 지어 각종 생활용품과 火器,
兵器 등을 보관 저장하였고 뿐만 아니라 방위수단으로
적군의 침입을 널리 알리는 信砲, 角 등이 있었다.⁴⁾

천림산 봉수군은 후망을 잘하고 봉화를 전달받아 목
벽산 봉수대에 알려주면 천림산 봉수대의 임무는 종료
되었다. 그러나 그 전수가 龍仁의 石城山 봉수대에서
받은 봉수 舉火 내용과 전보한 내용이 일치하여야만 그
책임이 끝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봉수가 원
만하게 진행되고 봉화대의 炬火도 이상이 없었다고 관
단될 때에 천림산 봉수소는 京峰據의 차봉수소로서 그
책임과 임무가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각 봉수대간의 거리는 처음 연대가 측정되어
질 때 10~15里의 거리였지만 세종때 이르러서 40里에
이르고 있었던 점⁵⁾에서 천림산 봉수대도 여기에 준하였

3) 세종 29년 3월 별인조.

4) 세종 4년 8월 계묘조.

5) 세종 14년 6월 계사조.

다고 본다. 조선시대 역전체가 驅과 상거리가 30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면 봉수대 상거리가 역제 보다 10리 정도 더 멀게 떨어져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봉수군이 폭풍과 운무가 발생하여 봉수상황을 다음 봉수소에 까지 달려가 전보를 하는 일은 그리 수월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感知할 수 있다. 즉 次次驅報가⁶⁾ 봉수군은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점이다.

2) 峰燧臺의 兵器

봉수군은 수군과 같이 身良賤役의 사회적 대우를 받았던 軍種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峰燧가 갖고 있는 국가의 중요기밀사항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천역시 되지 않았어야 하는 중요한 의문점과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변방의 적군이 침범하고자 할 때 국가의 국방과 안위에 관계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봉수는 변방사정을 중앙 都城에 알려 국난을 대비하고자 하였던 봉수 본연의 목적을 보아도 알 수 있다.

政府啓 峰燧之法 關係邊警利害不小故歷代之制 率以
謹烽火爲重 國家參的歷代之法⁷⁾

봉수는 변방의 사변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었던 통신시설이라고 한다면 봉수군은 보안비밀취급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원임을 간파할 수 없다. 봉군은 양인으로 군역에 정발되어 峰燧軍種에 보임 되었던 점을 보면 駕船軍 보다는 육지에 근무한다고 하는 위험수

6) 세종 5년 1월 경을조

7) 세종 28년 10월 경지조

당이 비교적 적은 점에서 낫다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봉군도 근무처가 深山이라고 하는 점에서 근무환경이 아주 좋은 여건이라고 만은 생각할 수 없었다.

세조 5년 봉수군은 殘劣한 군인이란 점을 밝히고 군역이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⁸⁾ 봉군이 잔열한 이유는 富實한 군인이 기피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암시하고 있어 육수군에 비하여 봉군은 기피하고 도외시 되고 있었던 점이다.

조선군역의 문제가 되었던 중요한 점은 보급품을 어떻게 보급하여 주었는가에 있었다. 『경국대전』 병전에 식량은 절제사가 공급한다고 하고 있지만 채소와 각종 부식품은 봉수군이 自生하여 조달하고 있었다고 한다.⁹⁾ 煙臺에 假屋을 짓고 각종 兵器와 아침저녁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즉, 水火器皿을 간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山 정상에 항상 식수를 준비하고 불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였으며 각종 나무를 준비하고 칼(刀), 槍, 그릇(器) 鏃, 軍(쌍창) 등이 보관되어야 했고, 개인의 자위적 방위와 봉수대의 國秘가 외부에 노출되어지지 않도록 기밀보안에도 주력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보안유지를 위하여 방위벽을 구축, 축대를 빙았고 나무말뚝을 박아 주위에 접근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때 나무끝을 뾰족하게 각아서 방위용으로 하였기 때문에 짐승과 人馬가 삼상하도록 되어 있었다.¹⁰⁾ 그리고 信砲와 小火砲도 배치하였다.¹¹⁾

봉군이 연대에 근무하는 동안 피복은 중요한 건강과

8) 세조 5년 12월 음해조.

9) 세종 29년 3월 병인조.

10) 세종 29년 3월 병인조.

11) 세종 14년 2월 기해조.

직결되는 身體의 보온을 위한 요소이다. 그러나 국가는 피복은 공급하지 않았고 봉수군 스스로 마련하여 착용하도록 하였다.

3) 峰燧軍 機能

烽燧는 조선근대전기사회에 유일한 통신기관이다. 그리고 烽燧網은 전국적으로 5路線에 直烽 402곳과 間烽 271곳으로 총 673개 봉수대가 있었다.¹²⁾ 봉수군은 1개 봉수소에 8명씩을 근무케 하면 전국적으로 봉수대 근무 봉군은 5,784명이 있었다. 봉수군은 오늘날 정보통신원에 해당하고 이들은 곧 현대의 전신전화국 근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늘날 전신전화국 근무자가 국가 1급, 2급, 3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근무하는 것과 같이 옛 날에도 국가의 기밀사항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적군이 침입하면 가장 먼저 봉수대를 점유하여 봉군을 살해한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도 적군들은 봉수대에 침입하여 봉수군을 살해하고 각종 병기와 물품을 약탈하였다. 봉수는 국경지방의 사변상황을 전보할 때 ①적군의 출현, ②적군의 침군, ③적군의 侵入, ④적군과 接戰, ⑤변경지방의 평온 등¹³⁾ 5 가지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오늘날 통신이 국과 전화번호로 구분하고 있듯이 조선시대 통신도 봉수대와 사건내용이 반듯이 봉수의 거화수와 봉수대를 통하여 의사가 전보되었다.

이는 한성에는 남산 남소의부장이 사고의 유무를 보고하고 본조에는 그 익일 새벽에 상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란이 발생하면 밤이라도 상주하여야 한다. 그리고

12) 속군본부, 「한국군대사」, p.528.

13) 「經國大典」共傳 烽燧錄.

지방은 봉수장이 主鎮에 보고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통신원인 전신전화국 근무요원은 옛날 봉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봉수대는 현대의 전신전화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봉수군이 군인의 신분을 갖고 군역을 수행하였던 점에서 보면 근무환경과 근무상황이 苦役과 高山峻峰에 勤務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賤役觀 되었다.

봉수의 기능이 통신기능과 정보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보면 봉수군은 정보전달 기능과 정보감지기능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봉수대에 근무하는 봉군은 사회적 대우는 저조하였지만 국가의 국역을 수행하는 자세와 사명의식은 높았다고 본다.

III. 烽燧臺의 軍役

1) 軍役 事例

봉수는 낮잠 자고 저녁에만 봉화를 올리면 다른 군역에 비하여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군역이었다. 그러나 봉수는 낮과 밤에도 쉴사이 없이 봉화대에서 후망을 하여야 한다고 보면 苦役임에 틀림이 없었다.

세조때 남포 봉화군 李德明이 儒 학수에 의탁하여 머리를 삭발하고 중이 되고자 봉군 漢永과 더불어 도주한 애가 바로 봉수가 苦役임을 나타낸 대표적 표본이었다. 이들의 소행에 대하여 李仁石, 李紅生, 李德明 등을 保納하도록 조치하였다.¹⁴⁾ 그리고 이덕영은 杖 100대를 때리어 변방에 유배하고 학수는 杖 80대로 환속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봉수군이 봉수대를 流浪하고 있다고

14) 세조 2년 11월 경진조.

하는 점이다.

국가에서 봉화를 설치한 목적이 烽燧와 斥堠를 신중히 하도록¹⁵⁾ 하였다. 그러나 위급을 전달하는 일이 없어 모든 봉수대의 봉졸이 태만하고 근무지를 떠나 있으면 봉화는 단절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정은 警報가 있으면 봉화를 올리지 않고, 없으면 봉화를 올린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봉수의 폐단이 更張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¹⁶⁾ 뿐만 아니라 변보를 급히 알려주는 봉화는 엄격하고 봉수군의 存沒과 墓火의 허설을 자주 摘奸하게 하여 수령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¹⁷⁾ 하여야 함이 봉수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하고 따라서 수령이 소홀히 하였을 경우 가벼운 죄에 해당하면 감사가 잡아다 決杖하게 하였고 중한 죄의 경우는 啓聞하여 군율로 다스리게 하도록 하였다.

이점은 봉화가 여러달 동안 올려지고 있지 않아 혹시 사변이라도 있으면 참으로 염려가 된다고 하였던 점과 구름이 짙게 끼어 봉화가 끊어지는 일이나 어쩔수 없었지만 맑은 날에도 올리지 않았던 것은 그 고을수령과 봉졸이 근실하지 못한 소치이라고 단정하고 봉졸과 수령이 태만한 자는 모두 사목에 의기 논죄를 하도록 하였다.¹⁸⁾ 봉졸의 태만은 봉화를 불거화 하는 근무태만과 근무지 이탈에서 오는 공백상태의 봉수대 상황근무¹⁹⁾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녁에만 있다가 밤에는 자기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 등이 있어²⁰⁾ 봉군의 근무기강과 근무태도는 봉수의 廢置論과 허설화에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현종 6년에는 유도대신이 도성의 상황에

15) 선조 30년 2월 병술조.

16) 선조 30년 2월 병술조.

17) 선조 33년 2월 무오조.

18) 현종 원년 9월 무오조.

19) 현종 1년 7월 무인조.

20) 현종 6년 5월 음제조.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烽火의 상황을 기록하여 날마다 보고²¹⁾하도록 하였던 자료는 봉수가 자기 자리매김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표출하였기 때문에 봉졸의 엄격한 군역 실행을 요구한 뜻으로 풀이된다.

2) 烽軍의 不實性

봉수가 군역중에서 가혹한 친역인지 아니면 허술하게 감독과 고찰이 되어 善好의 軍役인지에 관하여 가늠하기가 어렵다.

왜나하면 봉군은 산 정상에 근무하여 보통사람의 눈에 띠지 않고 감독하는 사람이 監考 외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봉군이 감고와 야합하고 財物로 접근하면 代立과 편의를 보아 근무에 임할 수 있었다.

세종 28년 1월에 보면 지금까지 봉수의 잘못된 사항이 守 승의 공과에 들어가지 않았던 점이 있고 앞으로 매 봉수에 監考의 선별과 함께 그 임무를 주는 문제에 대하여 수령의 책임도 지우도록 하였던 점에서 책임문제가 거론 되었다.²²⁾ 즉 감고의 죄질은 수령과 함께 책임을 갖게 하였던 점이기도 하다.

봉수대에 감고 2명, 봉수군 6명을 정하고 兩番의 교대 근무도 봉수연대의 근무 군졸과 군관을 한정하고 봉수대에 군역 군역한계를 명시하고 있다.²³⁾ 또 세종 20년 1월에는 근무지 이탈에 죄형도 밝혀²⁴⁾ 봉군역은 그렇게 쉽지 만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성종 6년 5월 기록에 봉수군이 身役이 헐하다고 여기고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봉군역에 들어갔다²⁵⁾고 하는 이 말은 봉군이 근무를

21) 景宗 3년 8월 계재조.

22) 景宗 28년 1월 감자조.

23) 景宗 28년 10월 경자조.

24) 세종 20년 1월 경자조.

저녁에만 후망하였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어 이는 군졸들의 경계임무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점에 주의를 갖게 한다.

이러한 봉수군관과 봉간들의 근무태만은 烽火不炬, 근무지이탈, 곁점, 직무태만, 무녀자 잡임 등 각종 사안에 관하여 觀察使와 節度使, 節制使는 각처 봉수소에 관리를 과견, 摻箇, 點考하도록 하고 죄질에 따라 형량을 집행하였다. 이때 청고에 짜지면 初犯은 答刑 50대, 再犯은 杖刑 80대, 三犯은 100대의杖刑을 집행하였다.²⁶⁾ 그러나 이러한 처벌도 富實한 봉군은 代立 집행 관리와 밀착하여 있었던 船軍의 예에서와 같이 수성군과 봉수군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우선 선군의 기록 예를 살펴보면 보면 특히 세종 21년 7월과 성종 7년 6월의 기록에 代立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①立番 수군이 질병에 걸린 경우, ②가정에 喪을 당하여 產役에 입하지 못한 경우, ③富實한 가문에 속한 자가 遠方에 차역 보내는 것을 꺼려 役夫에게 代價를 지급하고 대립시키는 경우, ④입번 봉군이 만호 천호에 財物을 주고 대립시키는 경우, ⑤입번 수군이 만호에 뇌물을 주고 兵籍을 조작하여 자기 휘하의 人夫를 대립시키는 예 등이 있는²⁷⁾ 것으로 부어 水軍의 예에서 볼 때 봉수군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²⁸⁾ 그렇기 때문에 세종 28년 10월 기록은 봉수군도 수군과 대동소이한 형태의 기록이 보인다.

若以老弱殘疾 不堪其任者 私自代替人 依大明律守禁

25) 성종 6년 5월 을해조.

26) 세종 21년 7월 병인조.

27) 方相贊, 「조선후기 수군제도」, p.84.

28) 方相贊, 「박상봉교수 파간기념논총」.

軍人 雇人冒名代替者各減二等條 替身杖六十收籍充軍
正身杖八十依舊充軍²⁹⁾

위 자료의 내용을 보면 만약 老弱殘疾한 烽卒이 말은 바 임무를 감내하지 못하여 사사로이 다른 사람을 대립케 하였을 경우 대명율의 守禦軍人이 사람을 履立하여 冒名代替한 자는 각각 2등을 감한다는 條文에 의거 代立者は 杖 50에 병적을 거두어 充軍하고 대립시킨 사람(正身)은 杖 80대에 烽軍의 役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봉수군의 역을 自願하여 대립을 한다고 그 자손의 형제 손자가 원하면 이를 허가하도록 하였다.

“수군의 代立價는 종래 수군의 1朔雇價가 6~7匹에 달하던 것이 3匹로 公定된 步正兵의 예에 따라 3匹로 공정되었다고 하니 여기서 봉군은 3匹의 대립가를 암시한다. 즉 步正兵例每朔三匹定價이다”(성종 24년 7월 경신조).

이와 같은 점은 봉수군은 정병의 대립현상이 없지 않았던 사실을 감지할 수 있게 한다. 봉수대에 종사하는 사람 중 봉졸 이외에 봉역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監考 또는 伍長이었다. 따라서 烽干이 잘못하였을 때에 그 책임 또한 감고가 無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국가는 감고가 考察을 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여 초벌은 태형 50대를 집행하고 재벌은 1등을 가하고 죄가 장형 100대에 관직을 과면조치 하도록 하였다.³⁰⁾

봉졸과 감고가 봉수역을 수행하는데 엄중히 경계하도

29) 세종 28년 10월 경자조.

30) 세종 29년 10월 6일

록 하고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는 물론 봉수대 근처에 雜神을 모셔 기도하는 자는 그 범행을 문고 監考와 함께 죄질을 律에 따라 문책하였다. 그렇다면 봉수군이 천직으로 변직되어진 사유는 무엇일까? 이점이 본수군 군역이 천역으로 여겨져 身良賤役化하여 國俗에 전한다. 그러나 봉군천역의 변질 근본은 봉군의 정신적 차세와 근무환경 그리고 봉군대우에 기인하였다고 본다.

3) 봉군의 직무태만

『經國大典』兵典에 봉수군은 혹시 煙暗과 風亂이 있어 煙火가 불통이 되었을 때에는 즉시 봉수군은 다음 봉수대까지 달려가 봉수를 전달하여야 한다.³¹⁾ 즉 폭풍과 거센바람 그리고 안개가 끼어 봉화나 연기가 전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뛰어가서라도 책임을 완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봉군은 깊은 산속의 나무와 숲이 우거진 심산의 현실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되기 어렵기도 하였다.

봉수의 법은 邊境과 國益에 관계되어 중대하기 때문에 역대 제왕이 거의 모두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국가는 역대의 법을 찰작하여 슈甲을 기재하고 속전에 기록한 것이 그 法이 지극히 상세하고 주밀하였지만 변방장수가 검찰하지 않고 엄격하게 관찰하지 못하여 점차 폐弛하여 마침내는 聚要한 邊報도 중도에 폐하여 봉수가 이르지 않게 되어지니 실로 통탄할 일이었다.

이러한 봉군의 직무태만을 조사·보고하여야 하는 伍長과 절제사도 직무의 관찰에 있어서 소홀히 하였을 때 봉수군과 더불어 곤장과 유배의 형을 집행함으로써 그 죄 값을 묻고 있었다. 그러나 봉군의 근무지 이탈과 봉

31) 『經國大典』兵典, 봉수.

화의 책임성은 도외시 되었고 봉수는 중도 폐절과 아예 보고를 하고 있지 않아 봉군의 성실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근무태만 사례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수대 폐지론이 대두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兩亂을 봉수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배제할 수 없었다.

烽燧軍의 勤務 慎慢³²⁾

烽軍의 煙信怠慢	内 容	時 日	備考
1. 변란을 고하지 않음	事變이 일어나도 알리지 않음	성종 8년 5월 乙未 성종 25년 8월 己酉 중종 39년 4월 乙酉	중종 17년 7월 丙寅 중종 18년 6월 壬午 중종 39년 4월 乙酉
2. 撫火 不舉	烽火를 촬리지 않음	성종 8년 4월 己酉	
3. 平時 一奉	평상시에 같이 충화 들판	성종 9년 1월 25일 성종 9년 2월 29일	중종 27년 9월 乙丑 중종 39년 5월 乙酉
4. 遷置한 路路	주간에는 근무 찾고 애간단 근무	성종 2년 12월 乙酉	
5. 保報 不報	상급기관에 보고 달방	성종 22년 1월 중종 5년 4월	중종 5년 6월 24일
6. 자주 护送	봉화가 자주 단정됨	중종 14년 8월 庚酉 선조 27년 1월 乙未	
7. 送報 不報	판관의 기록 달방	명종 10년 1월 丁未 명종 10년 5월 乙酉	
8. 送款 不保奉	사면의 휘장을 보고 달방	선조 30년 2월 丙戌	
9. 王娶歸屬	봉화군은 내용을 알리지 않음	선조 25년 4월	
尼滿介의 離	麗의 한장을 알리지 않음	선조 16년 1월	

IV. 烽燧軍 身分과 經濟生活

1) 烽軍의 身分

조선시대 軍은 正軍과 役軍, 中央軍과 地方軍으로 편

32) 유흥본부, 「한국군제사」, 선기, pp.502~503.

제되었다. 정군은 陸守軍인 中央(入番)軍과 地方(守戍)軍인 鎮軍과 駕船軍 즉, 水軍으로 편제하였다. 정군은 반드시 역군인 奉足(保人)이 따랐다. 역군은 正軍을 輔助하는 임무이었다.

세조때 榮誠之가 군대를 구분하였던 내용은 親兵, 內禁衛, 兼司僕, 위병은 甲士, 別侍衛, 勳位, 忠義, 忠貢衛, 宿衛는 奉忠拱辰衛로 구분하였다.³³⁾

王城을 番上하는 군인은 正兵, 平虜衛이고 步軍은 破敵衛, 役軍은 防牌, 使令軍은 摄之十 등으로 나누고 外鎮守軍은 鎮軍, 守城軍, 船軍으로 구분하였다.³⁴⁾

地方軍은 진수군을 뜻하고 鎮軍, 守城軍, 船軍으로 구별한다. 진군은 각 鎮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로 鎮將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봉수군은 鎮에 속해 있었고, 진창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 정군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봉족은 원래 戶制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조선 시대 紿保가 봉족제의 선구가 되었으며, 봉족은 丁을 전제로 하여 戶를 단위로 하였다.

戶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①가족 단위의 人爲的 戶와 租稅 단위의 국가적 의미를 갖는 戶로 구별한다. 태종때 군병 이외에도 國役의 전반영역에서 봉족이 있었다.³⁵⁾

고려때 罪人은 烽卒로 枊配하였다라는 사실과 京外罪人도 徒刑에 해당한 사람은 봉화군에 충당하였던 사실은 봉군이 죄인으로 충당되었던 사실이 있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³⁶⁾

그러나 본래 봉군은 良人으로 충당하였다. 이는 身良賤役의 뜻이 신분이 양민임을 의미하고 있다. 봉졸을 지

33) 차문설, 「조선시대 군체연구」, 단국대총관부.

34) 李基白, 「高麗軍人考」, 高麗學報 21期.

35) 세종 29년 10월 경자조.

회 감독하는 伍長은 甲士나 品官이 대개 임명되었는데 감사는 良民으로 구성되었다. 太宗 말기부터 富貴한 자나 祖孫이 순수한 자에서 試取되었다.

受敎輯錄에 明宗 11년(1556)에 봉수대가 있는 지방의 수령은 사리에 밟고 근면 성실한 品官 4인을 監考로 차 정하여 兩番交代로 근무하게 하였다. 여기서 감고를 품 관으로 배치함은 伍長의 補強策으로 봉수대 관리와 훈련을 더욱 칠저하게 함이었다.

봉수군 대우에 관하여 고려 桀宗(1149)때 防役 2인과 白丁 30인을 봉수대에 배치하여 그들에 軍田을 경작하게 하였고 厚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어떤 때는 봉군은 백정과 같고 新白丁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세 종때 무릇 正丁 1명에 餘丁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조력하여 正丁을 돋게 하였는데 이를 國俗에 奉足이라 하였다.³⁶⁾

凡正丁二名給餘丁 使之出財力 以助正丁 國俗謂之奉足³⁷⁾

봉족은 正丁을 도와 田地를 경작하여 食糧을 생산하였고 각종 建築, 토목사업, 방제공사, 벌목사업 등에 주 역을 담당하였다. 세조 10년 충청도 군적사 混後甲, 경 상도 군적사 權禁, 전라도 군적사 姜老 등에 주어진 事 目에 3保가 있어 1保를 받드는 것을 甲士라 하고 그 보 가 있어 1保를 받드는 것을 騎兵 正兵이라 하고, 獨保는 봉수군 防牌 섭육십이라 하였다. 따라서 봉군은 獨保 이었다. 봉수대 책임자인 監考는 근무에 충실히 며 6년마다 한번씩 散官職을 제수하고 우대하였으며 監考와

36) 李基白, 「高麗軍人考」, 貢庶擇取 21輯.

37) 세종 2년 1월 을사조.

烽火喉望人에 대하여 일절 雜役을 免除하였다.³⁸⁾

봉군은 봉족이 딸려 있는 正軍으로 良人 身分이며 근무지가 높은 산속에 있어 천대시 여겨졌을 뿐이다. 그러나 이따금 作罪人이 봉수대에 정원에 충당되어 봉군의 신분을 격하시키는 사회적 인식으로 나타났다.

2) 烽軍의 經濟生活

수군은 군역상의 烽軍役과 생활상의 自生役이 있었다. 그런데 이 자생역은 봉족의 몫이었다. 본래 군종에 정군은 2명의 봉족이 있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다. 즉 각 兵種별로 군역에 임하는 正丁 1인에 대하여 數名의 有役人丁이 경제적 補助를 하도록 하였다.

이때 정군은 2~3結 이하는 奉足 2호를 주고, 4~5결 이하는 봉족 1호를 주었고, 7~8결 이상은 스스로 1領을 세우고, 15결 이상은 스스로 2領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騎船軍의 예이었다. 2년째 甲士는 2~3結 이하는 봉족 2호를 주고, 4~6결 이하는 봉족 1호를 주었다. 그리고 7~8결 이상은 주지 않았다. 그러면 봉수군은 鎮屬軍으로 본다면 吹鍊軍과 함께 1~2結 이하는 봉족 1호를 주고 3~4結 이하는 주지 않았다.³⁹⁾ 봉군은 국가로부터 田苗을 받아 봉군이 봉족을 통하여 경제적 생활문제를 해결하였던 점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태종때 議政府에서 각도 각官에 명하여 民戶의 빈부와 강약을 나누어 助戶를 주도록 하였던 조치였다.

조선시대 군역편성은 1家戶 내에서 左右領의 편성에 입각한 父子兄弟完聚를 뒷받침하고 있어 富實한 군역

38) 세종 29년 3월 병언조

39) 세종 4년 5월 재해조

을 꾀하고 있었다. 따라서 夫子중에 戰亡한 경우에 타인으로 개정하고 군역의 완취를 도모한 사실을 수군의 군역편성과 정군의 편성에서 알 수 있다.⁴⁰⁾ 따라서 봉졸도 군역은 정군역에서 陸守軍 같은 正兵이었다.

봉수군이 다른 군역에 비하여 편하게役에 입할 수 있었던 점은 代立 현상이 만연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봉화를 황혼을 이용하여 후망할 뿐이고 낮과 밤으로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봉군역에 허점이고 또한 대립도⁴¹⁾ 하지 않았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봉군직은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봉군과 오장에 대하여 국가는 봉군을 散官職을 제수하여 梓火, 海望人이 능히 사변을 보고하고 적군을 잡은 자는 속병전에 의하여叙用行賞하도록 하였다.⁴²⁾

그러나 이같은 보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봉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었던 점은 京外罪人으로 徒刑에 해당되는 사람이 봉수군의 元額에 구애받지 않고 봉수대 근무를 지정하였던⁴³⁾ 점이 봉수군의 사기를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 즉 죄인이 전직의 세도를 갖고 오히려 봉수군을 꾀롭히고 꾀곤하게 하였다.

봉수대에 근무를 가벼히 보았던 세인의 안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①죄인이 충군되었다고 하는 점, ②연대는 항상 高山에 설치되어 있어 맹수가 접근하고 있어 봉졸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더욱 두렵고 나쁘게 보였다. 봉수군은 兵器를 항상 휴대하도록 하였다고 하지만 심리적 공포심은 부담을 갖고 생활하였다.⁴⁴⁾ ③봉수군 생활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이

40) 方相結, "朝鮮初期 守軍初立".

41) 성종 6년 5월 을레조.

42) 세종 29년 3월 병인조.

43) 성종 28년 10월 경자조.

44) 세종 19년 2월 기묘조.

는 곧 남녀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성과 벨거하고 있어 여성들에게 좋지 않게 여겨지는 점이기도 하였다. 마치 수군이 해상생활로 몇 개월씩 벨거하고 있었던 점 보다는 적다고 하지만 10여일 동안 가정과 떨어져 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이 봉군의 생활이 불편한 현실이었다. ④봉군은 집안사정에 있어서 자녀의 교육, 가사정리, 관혼상례 등에 소외되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친이상을 당하였을 때에 군역에 있게 되면 어려운 일이었다. 이상과 같은 군역 여건과 환경은 봉수군이 천역시 여겨지고 사회적으로 낮게 보여지는 요인이었다고 본다.

朝鮮時代 正軍은 赴防立役하여 교대 立番하였다. 봉졸은 소정의 전법훈련과 화기훈련을 받았고 수성훈련도 있었다.

烽火干이 봉화를 올리는 사람을 국가의 풍속에 身良, 賤役者라고 불렀고 혹은 干, 尺이라 하였다.⁴⁵⁾

봉간이 봉화대에 근무중 가장 곤경스러운 점은 전 봉수대에서 봉화가 울려지지 않고 하루를 보내야 하는 지루함과 태만성의 발로가 나타나게 되었고 봉수가 자주 울려지면 모르지만 봉수는 울려지지 않고 밝은 날씨가 계속되는 봄과 가을에 인간이 느끼고 있는 감수성, 낭만성의 감정적 변화와 食困症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이나 낮잠을 청할때 봉화는 중단되기가 일수 있다고 추측된다.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을 보면, 봉군이 낮잠을 즐기고 烽燧所에 도둑이 들어서 보고하지 않은 자는 참형에 처하고, 봉수대 근처에 방화한 자도 참형에 처하였다. 따라서 봉군은 봉수대 주위에 대한 보안과 방위에 책임과 보호가 뒤따르게 되었는데 이는 통신보안을 적군이 탐지하여 민심의 교란과 전쟁의 참패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45) 세종 1년 5월 경오조.

V. 結論

천림산 봉수대 봉군의 군역은 다른 어느 지역의 봉수대 군역에 비교하여도 정군 본연의 임역을 수행하였다. 峰燧軍은 신분은 양민으로 근무지가 고산준봉에 위치하여 군인들이 군역을 꺼려하고 기피하여서 수군과 같이 사회생활에서 천역시 되었다.

그러나 봉수군은 국가에서 부여한 所任과 軍役에 대부분은 사명의식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였지만 극소수 일부 봉수군이 나태한 정신과 근무태만을 갖고 군역을 수행하여 봉수의 퇴치를 문제 삼게 되었다. 봉수는 근대 전기사회에 있어 변경지방 情報를 중앙에 연락할 수 있었던 유일의 通信施設이었고 峰燧路는 통신망이었다. 따라서 봉군은 당시 사회 唯一無二한 情報通信員으로 국가의 一級 機密事項을 소유 보존 관리하였던 점에서 존중시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봉군은 身良賤役이란 國俗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에 주어진 국법에 따라 봉족을 지급받고 經濟生活을 유지하면서 묵묵히 국역을 수행하였다.

한편 봉군은 근무상에 있어 직무태만과 근무지 이탈 등 국가의 손실을 초래하여 국난을 당하게 하였던 사례를 볼 때 봉수군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하고 소중한 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하였다.

봉수군은 經濟的 측면에서 흡족한 대우가 적었고 사회적으로 천대받아 그 어려움이 많았으며 作罪人과 함께 생활하여 그에게서 받았던 피해와 스트레스가 또한 많았다고 본다.

끝으로, 봉수군의 生活 단면을 살펴보면서 先學연구자에 감사하면서 아울러 자료의 발굴과 연구성과가 계

196 학술세미나

속되어야 함을 느끼고 이 분야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天臨山 烽燧軍 身分과 生活

김 영 관(서울특별시립박물관)

최근 들어 봉수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봉수제에 대한 연구는 허선도, 남도영 선생님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어 온 이후로 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봉수군의 신분과 생활문제연구도 매우 피상적인 수준으로, 그 실체적인 면은 거의 조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밤상현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은 봉수군의 신분과 생활에 대해 법제적, 경제생활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으로, 지금까지의 봉수제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고찰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봉수제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 토론자는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혹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서지만, 논문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는 기회로 삼을까 한다.

첫째, 봉수군의 호칭에 대한 문제이다. 발표자는 2제 이지 본문 13행과 14행에 걸쳐 “아마도 천림산 봉수군도 봉졸, 봉간, 간방인, 후방인 등으로 불리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봉수군의 호칭이 각 봉수대마다 상이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内地烽燧인 천림산의 봉수군에 대한 호칭이 沿邊烽燧의 봉수군과 다르다는 것인지가 우선 궁금하다. 토론자가 이해하기에는 봉수군에 대한 호칭은 인변과 내지봉수의 伍長이 경봉수에서 伍

員으로 별칭되듯이 봉수군의 호칭도 여러 가지로 불리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봉수군의 역할과 신분에 따른 기능적(사회적) 언어변이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둘째, 천림산 봉수대에는 假屋을 두어 각종 생활용품과 火器, 兵器 등을 보관, 저장하였을 뿐 아니라, 적군의 침입을 널리 알리는 信砲와 角 등의 信號手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신포와 각 등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신포와 같은 화기를 사용하자면 화약병기 조작법 등의 교육을 받은 봉수군이 천림산 봉수대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배치가 되었었는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信砲와 角 등 畫烟夜火 이외에 신호수단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는지도 궁금하다.

셋째, 봉수군은 假屋에 보관하던 신포와 각으로 적군의 침입을 널리 알리는 일종의 보안비밀취급을 하는 정보통신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봉수군이 봉화를 올리고 신포를 쓰고 각을 불어 정보상의 기밀을 알린다면, 조선 시대 봉수제의 단순한 신호전달체계상 그 내용이 봉수대 인근 백성들은 물론 여타의 사람들에게도 금새 알려질 수밖에 없는 노출된 신호체계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봉수군이 비밀정보통신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죄인도 봉수군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봉수군을 보안비밀취급을 하는 정보통신원으로 보기 는 더욱 어렵다. 봉수제는 적군의 침입상황이나 반란발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보고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적군들이 봉수대를 점령하여 봉수군을 살해하고 각종 병기와 물품을 약탈한 것을 비밀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통신을 두절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고 생각

된다.

봉수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봉수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봉수는 적정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오직 “晝烟夜火”에 의한 5炬의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별관이 밤드생한 정확한 지역이나, 적의 병력 수, 장비, 이동상황, 그리고 아군의 피해상황 등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양란 이후 파발제 등의 보완책이 뒤따르기도 했던 것이다.

넷째, 봉수군의 근무환경에 관한 문제이다. 봉수군의 근무지 즉 봉수대가 高山峻峰에 있어 賤視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단지 고산준봉에 근무하기 때문에 賤役으로 인식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별도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함경도와 같이 고원과 협산이 많은 곳에 위치한 봉수 중에는 1,000m 이상의 高峰 위에 설치된 것이 20여개나 된다. 그 곳의 1월 평균기온은 영하 20도 이하의 혹한지역으로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봉수가 모두 그런 곳은 아니었다. 도서지방이나 해안지방의 봉수대는 해발고도가 83m, 밖에 안되는 곳도 있고(평택 원정리 봉수), 천림산 봉수대와 같은 내지봉수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대개 200~4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고산준봉'이라고 볼 수 없다. 元慶烈(『大東輿地圖의 研究』)에 의하면 전국 봉수대의 평균 높이가 305m라고 한다. 참고로 몇몇 내지봉수대의 해발고도를 살펴보면 서울 남산 265m, 아치산 161m, 양주 한이산 173m, 용인 석성산 461m, 음성 망이산 472m, 충주 주청산 440m, 제천 오치 410m, 진천

소을산 415m, 청주 것대산 403m 등이다.

다섯째, 봉수군은 야간근무생활을 하는 까닭에 異性과 別居할 수밖에 없어, 여성들에게 좋지 않게 여겨졌다 는 내용에 대한 문제이다. 이성별거문제는 비단 봉수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實役에 있던 군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봉수군 선발은 봉수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殊定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밖에 죄인들을 봉수군에 충당하였다. 죄인으로 봉수군에 차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봉수군이 된 사람들은 봉수대 근처의 마을에 거주하는 양인들이었다. 이들은 잡역을 면제받고 생업에도 종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때문에 오히려 봉수군을 자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6년 5월 을해조)

봉수군이 賤役으로 여겨진 때에는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즉 이성별거 문제가 봉수군을 천역으로 여기는 사회적 요인은 아니었던 것이다.

봉수군이 사회적으로 천시되고 경제적으로 열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더 컸다고 생각된다. ① 봉수대에서의 候望임무가 한 시의 여유로움도 없고, 비록 교대를 하기는 했지만 1년 내내 밤낮으로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무하였다는 점, ② 기상조건이나 지형적인 문제로 視界가 불확실하여 燒烟舉火로 相應 할 수 없을 때 次次馳報하여야 하는 것이 더 큰 고역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대개 30~4-리에서 멀게는 6·70여 리 되는 봉수대 사이를 산을 오르내리면서 달려가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매우 괴로운 문제였을 것이다. ③ 죄수를 봉수군으로 충당한 까닭에 양인 봉수군의 신분이 오히려 하락했을 수도 있다. 고려시대 양인농민인 白丁이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천민까지 백정이란

호칭으로 부르면서 상대적으로 양인농민에 대한 신분적 격하가 있었다. 결국 백정이 도살업자로 사회적 호칭이 고착화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봉수군의 직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근무태만이나 잘못된 燒烟舉火시斬刑 등 극형을 면키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징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면도, 과중한 업무와 더불어 봉수군을 기피하고 천시하는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 ⑤ 경제적으로 봉수군은 직역과 생업을 동시에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때문에 富實한 생활을 하던 양인들이라도 그 생업을 더욱 확장시키기 어렵고, 점차 가계가 기울여지기 쉬웠다. 또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봉수대의 유지와 봉수군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사실상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현실이 봉수군의 직역을 기피하고, 천역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이르게 하였을 것이다.

이상에서 토론자의 의견을 보태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이야기해 보았다. 혹시 토론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편집위원

대회장 : 남선우

위원장 : 한춘섭

위원 : 조병로, 소진광, 장철수, 전보상

간사 : 이완우, 김후정

천림산 봉화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

인쇄 : 1999년 10월 1일

발행 : 1999년 10월 1일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6-2

(성남시 농업기술센타 2층)

전화 : 034) 781-1020, 781-2802, 729-5600

팩스 : 034) 709-5246

※ 이 자료집은 성남시로부터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